

B팀 3조 : LA CASA ESCONDIDA

1. 건물을 유지하는 실제 구조체는 무엇인가(왜 철골조인가)?
2. 1~4층까지의 엘리베이터실이 건물의 하중지지에 어떠한 영향을 줄것인가?
또, 이것의 위치적 특성은 무엇인가?
3. 1~4층 계단실(코어)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가벽의 의미는?
4. 건물에 평면과 단면이 삼분할 된 이유는?
5. 전층에 있어 동일코어에 의해 층이 연결되지 않은 이유는?
(2층 거실이 상대적으로 층고가 높고 면적이 넓은 이유는?)
6. 건물 전체 매스는 남북축을 갖는데 1층 거실은 동서축을 갖는 이유는?
7. 남측에 선큰으로 이어지는 브릿지가 서쪽으로 치우쳐 위치하고 있는 이유는?
8. 엘리베이터가 전체 동선에 미치는 영향은?
9. 3층에서 계단동선을 한번 단절시키고 다시 수직계단으로 연결된 이유는?
10. 천장이 북측을 향한 이유는?
11. 북측 가벽의 개구부가 갖는 의미는?
12. 선큰 가든의 창의 위치와 모양을 결정하게 한 요인은?
13. 북측 전면 넓이의 2/3를 닫은 가벽의 설치이유와 그것의 수직 삭제부의 의미는?
14. 5층 스태프룸층의 북측 전면에 창을 둔 이유와 그 전면창을 기울인 이유는?
15. 내부계단 난간을 유리로 한 이유는?
16. 개구부 2층부 계단난간이 서쪽부분만 솔리드한 벽면으로 처리되어 있는 이유는?
17. 북측 정면의 가벽과 건물내부 1~4층에 걸쳐 덧대어진 가벽과의 상관관계?
18. 옥외정원이 남쪽에 위치하게 된 이유는?
19. 계단의 형태가 다른 이유(계단의 형태가 예각으로 틀어진 이유)?
20. 동서측 외벽이 건물라인보다 높게된 이유?
21. 1층 출입구부터 가족실까지의 좁고 긴 복도의 역할은?
22. 장방형의 형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23. 중앙부에 코어를 두어 건물 평면을 3분할한 이유는?
24.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은 평면과 단면에서 어떻게 분리 되어 있는가?
25. 사적인 공간인 가족실이 1층에 있고 공적인 공간인 용접실(거실)이 2층에 있는 이유는?
26. 비슷한 용도의 거실 공간들이 코어를 기준으로 남측과 북측에 각각 배치한 이유는?
27. 실내 정원도 가능한데 굳이 실외 정원을 조성한 이유는, 그리고 정원을 남측과 북측 양면에 배치한 이유는?
28. 주 침실이 4층임에도 불구하고 1층에 식당이 위치하게 된 이유와 식당이 두 개로 분리된 이유는, 또한 식당이 가장 동선이 많은 현관 옆에 있는 이유는?
29. 4층 중앙 계단실 서측부위에 위치한 창의 존재 이유와 그러한 크기를 갖게 된 이유는?
30. 선큰가든의 창 위치와 모양을 결정하게 한 요인은?
31. 북측 전면부의 가벽 중에서 수평적 디테일이 되어 있는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B팀 4조 : LA CASA ESCONDIDA

1. 건물의 전체적 형태가 왜 직육면체인가?
2. 건물 Mass를 전면 도로쪽, 정원을 후면에 두는 배치를 선택한 이유는?
3. 주구조체를 양 옆 건물에 붙인 까닭은?
4. 정면과 배면의 입면구성 방식이 다른 까닭은?
5. 2층을 중층으로 계획하여 Void 부분을 확대 시킨 이유는?
6. 계단 코어 부분의 Void를 지하에서부터 천장까지 둔 까닭은?
7. 전면부에 Solid한 4층 높이의 벽체를 사용한 이유는?
8. 건물의 주 출입구가 왼쪽에 위치한 이유는?
9. 외부정원으로 가는 Bridge가 서측 벽쪽에 위치한 이유는?
10. 외부정원의 외벽이 2층 높이 까지 올라간 이유는?
11. 외부 정원의 Level차를 달리한 이유는?
12. 계단실 난간이 투명한 유리를 사용하였는데 왜 이 유리재료를 사용하였을까?
13. 계단실 옆의 벽이 1층부터 4층까지 한번에 올라온 이유는?
14. 계단실을 건물 중앙에 위치시킨 이유는?
15. 공간을 한정하는 엘리베이터 실을 현관문 옆에 위치시킨 이유는?
16. Privacy의 확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측면을 창으로 Open시킨 이유는?
17. 현관 쪽에 위치한 나무가 가지는 의미는?
18. 공간마다 바닥표현이 다른 이유는?
19. 지붕층 천장이 남쪽이 아닌 북쪽으로 경사진 까닭은?
20. 현관에서 가족실까지 좁은 복도를 사용한 이유는?
21. 층이 올라갈수록 Void 부분이 넓어지는 이유는?
22. 계단의 올라가는 방식이과 모양이 층마다 다른 이유는?
23. 전면 Solid한 벽체가 창문에 붙지 않고 돌출되어 있는 이유는?
24. 화장실의 위치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지 않고 분산되어 배치되어 있는 이유는?
25. 다른 건물들은 묽은 벽돌을 사용하였는데 왜 이 건물은 재료를 달리 사용하였을까?
26. 북쪽 후정 서쪽 벽에 창을 뚫은 이유는?
27. 앞 입면과 배면의 벽체가 양 옆의 건물에 비해 만으로 들어간 이유는?
28. 난로가 위치한 각 층의 벽체의 두께가 다른 이유는?
29. 건물이 내력벽 없이 지지되고 있는 이유는?
30. 동적인 공간은 저층부에 정적인 공간은 상층부에 위치시킨 이유는?

C팀 5조 : KOECHLIN HOUSE

1. 건물의 형태는 왜 사다리꼴인가?
2. 입구에서 진입을 왜 기단이 아닌 램프로 하였는가?
3. 배치도 좌측에 표현된 시설물은 어떻게 이용되는가?
4. 입구→창고→부엌→거실로 이어지는 긴 동선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5. 지하층 창고는 왜 다른 실을 통해 계단으로 진입하는가?
6. 자갈지붕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7. washing room이라고 표기된 지하실의 용도는 무엇인가?
8. 창을 3미터나 되는 슬라이딩 도어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
9. 입구 램프의 뒷벽을 왜 경사지게 하였는가?
10. 지하층의 바닥과 천장의 경사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11. 주진입부 상층 땅을 왜 경사지게 하였는가?
12. 주진입 출입문의 높이를 왜 개구부의 높이보다 높게 하였는가?
13. 2층에서는 왜 화장실을 기준으로 공간분할 하였는가?
14. 왜 계단실은 평면상 대각으로 마주보게 배치하였는가?
15. 지하층에 왜 중층을 두었는가?
16. 공간분할을 1층에서는 왜 유리로 하였는가?
17. 2층에서는 남북으로만 창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
18. 문과 창이 평면상 대각선으로 마주보게 놓인 이유는 무엇인가?
19. 일자계단만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
20. 앞마당의 형태는 다른 삼면과 달리 대지의 형태를 따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21. 자갈지붕의 진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22. 층별로 보이드 공간의 형태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23. 지상층은 왜 지하층보다 뒤로 후퇴해 있는가?
24. 종정을 둔 이유는?
25. 주출입구 내부계단을 통하지 않고 내부로 진입할 수 있는가?
26. 주출입부에 낮은 문을 설치했음에도 시각적으로 높게 보이려 한 이유는 무엇인가?
27. 이 건물에서 창의 역할은 무엇인가?
28. 1층의 외부 출입문이 서쪽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29. dead space를 생기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30. 1층 바닥 테라스 부분에 지하층과 연결된 유리창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

C팀 6조 : KOECHLIN HOUSE

1. 건물 형태를 사다리꼴로 취한 이유는?
2. 지하층 복도가 경사진 이유는?
3. 지하 출입구의 문의 형태를 일정한 수직적 요소를 넣어 디자인한 이유는?
4. 지하층의 kitchen store 부분에서 층계를 통한 1층까지의 연결을 꾀한 이유는?
5. 건물에 비교적 창이 많은 이유와 창 크기가 큰 이유는?
6. 2층 Pebbled roof(자갈지붕)을 둔 이유는?
7. 지하층 storage의 레벨을 둔 이유는?
8. 2층에 방을 집중시킨 이유는?
9. 1~2층간의 연결의 층계 2개를 대각선으로 둔 이유는?
10. sliding windows의 크기가 일반 창문보다 훨씬 큰 이유는?
11. 지하층이 위층보다 앞으로 돌출된 이유는?
12. 지하층 출입부분의 용벽의 형태가 나오게 된 이유는?
13. 지붕에 일자형으로 난 구조물의 용도는 무엇인가?
14. 지하층 출입부분의 문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는?
15. 지하층 끝 도착 지점에서 빛이 내려오는 상부창의 용도는 무엇인가?
16. 중정의 천장을 레일을 이용하여 개폐를 한 이유는?
17. 건물 동측에 있는 큰 계단의 용도는 무엇인가?
18. 각 계단마다 창을 전혀 두지 않은 이유는?
19. 중정을 둔 특별한 이유는?
20. 지하층에 글자락 모른편에 있는 유일한 복도창의 용도는 무엇인가?
21. 남·북 2층에 반사유리를 둔 이유는?
22. 방에 빈 스페어가 있는 이유는?
23. 창의 위치가 갖는 시각적 요소가 있다면 무엇인가?
24. 공간 체계의 구성은 크게 어떻게 되어 있는가?
25. 지하 출입 부분과 1층 출입 부분에 있는 마당과 같은 공간에 차이를 둔 이유는?
26. 2층 Pebbled roof(자갈지붕) 한쪽에 창이 아닌 턱을 둔 이유는?
27. 창이 매입형이 아닌 돌출형을 쓴 이유는?
28. 서측의 배열되어 있는 나무들의 용도는 무엇인가?
29. 건물의 색깔을 무채색 계열로 사용한 이유는?
30. 1층 내부를 유리로만 사용한 특별한 이유는?

D팀 8조 : F2 HOUSE

1. 현관에서 진입하여 복도를 통해 거실로 갈 때 직접 거실로 진입하는 것이 아닌, 외부를 통해 진입하게 동선을 우회시킨 이유는?
2. 동서방향의 긴 동선의 축과 그 교차점에 남북방향의 또 다른 동선의 축을 형성한 이유는?
3. 2층에 좁고 긴 복도를 둔 이유는?
4. 계단실이 서쪽에 편중되어 위치시킨 이유는?
5. 남북방향의 계단이 수직성이 강한 돌음 계단이 아닌 수평성이 강한 직선 계단으로 설계한 이유는?
6. 서재 및 지하 휴게공간 진입시 외부계단과 서측의 긴 계단을 통해 진입시킨 이유는?
7. 건물 진입시 건물내부에서 현관 앞에 진입공간을 따로 둔 이유는?
8. 1층 테라스 부분을 남쪽 마당부분으로 돌출 시킨 이유는?
9. 진입복도를 사선벽에 의해 점차적으로 좁아지는 공간으로 만든 이유는?
10. 1층 평면에서 거실과 가족공간을 따로 둔 이유는?
11. 1층에서 지하 서재부분은 open 시킨 이유는?
12. 1층 옥상에 목재 데크를 놓은 이유는?
13. 각 층별 층고가 모두 다르게 설계가 되어 있는 이유는?
14. 앞마당으로 진입이 가능한 외부 계단에 화강암 종류의 벽을 놓은 이유는?
15. 지붕의 끝을 사선 처리하여 지붕의 입면이 얇게 보이게 한 이유는?
16. 진입복도의 남측 부분을 전면의 유리로 처리한 이유는?
17. 거실의 창의 표현 중 일부는 외부로 돌출시키고 다른 창은 하단부에 얇게 열어준 이유는?
18. 서측 계단실의 외부 벽을 높고 길게 놓을 이유는?
19. 가족실에서 아래 부분에 낮고 길게 개구부를 둔 이유는?
20. 평지붕을 쓴 이유는?
21. 1층 지붕에 돌을 깔은 이유는?
22. 2층 침실부분의 테라스에 철제 난간과 유리난간을 사용한 이유는?
23. 서측 계단실의 상부를 유리로 막아준 이유는?
24. 2층 테라스 부분의 우측에 유리 발코니를 놓은 이유는?
25. 지하층에서 2층까지 연계되는 기둥이 1층 거실 부분에서 피막에 의해 숨겨진 이유는?
26. 식당과 주방의 천정을 마감하지 않고 철골보를 외부까지 노출시킨 이유는?
27. 지하층에 역보를 사용한 이유는?
28. 서측 계단실의 상부에 철골보가 돌출 되어 있는 이유는?
29. 건물 진입부분에서 벽체와 슬래브를 연결시키지 않은 이유는?
30. 점구조와 면구조를 혼용한 이유는?

E팀 9조 : NEW YORK CITY HOUSE

1. 지하1층 벽체의 두께는 각 부위별로 200m~500m까지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무엇인가?
2. 지하1층의 벽난로 좌우의 기능상 용도는 무엇으로 추정되며, 그러한 원인은 무엇인가?
3. 지하1층 벽난로 안쪽 실선의 용도는 무엇인가?
4. 지하2층 정면 좌측 계단 밑의 벽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5. 주 침실은 부분이 일반적인 공간 특징과 다른 이유는?
6. skip의 주요원인?
7. 1층부터 지하1층의 바닥까지 계단이 참이 없이 직선으로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러한 계단의 구조가 동선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8. 수영장이 내부에 위치하는 이유?
9. 중정부분에 직사각형으로 표시된 부분은 무엇이며, 직사각형의 형태로 구성된 이유는 무엇인가?
10. 전면 계단이 화단과 계단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초기 계단의 위치가 실제상에서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11. 서재부의 긴 창의 이유와 가구배치?
12. 주방부의 간이 찬막이는 공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13. 차고 우측의 벽체의 이유?
14. 평면 구성 시 층별 구성이 가운데 켜로 동선을 양분하는 이유?
15. 1층의 출입구에서 중정까지의 동선이 긴 이유?
16. 정면부의 중정외곽 벽체높이가 1층까지 된 이유?
17. 2층 발코니가 마당과 접하는 이유?
18. 북서측에 위치한 굴뚝이 전체 매스에서의 역할은 무엇인가?
19. 굴뚝의 크기가 2층 평면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
20. 중정의 성격이 폐쇄적으로 차이가 나는 이유?
21. 지붕의 래벨차가 생긴 이유?
22. 1층 중정에서 지하 수영장으로 연결된 계단에서 좁고 긴 계단이 존재하는 이유는?
23. 천창의 빛을 중앙에서 빗겨서 나눈 이유?
24. 지하1층 벽난로 창의 크기가 초기 모형안과 차이가 생긴 이유?
25. 거실의 위치가 북쪽에 있는 이유?
26. 종단면 상에서 2층 상부 단면에서 'ㄱ'로 꺾여 있는 이유는?
27. 수영장 외부 창호부분의 입면이 도면과 모형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
28. 2층 서재부분 창호에서 꺾인 창호가 사용된 이유?
29. 건물에 전체적인 매스를 보면 매우 규격적인 면을 강조했는데 1층 평면상에 출입구 옆의 화장실을 보면 단독 외부로 도출되어 규격적인 면이 깨진감이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30. 각 실의 창의 크기가 다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E팀 10조 : NEW YORK CITY HOUSE

1. 이 집의 가장 중요한 공간은 어디인가?
2. 중정부분의 화단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3. 배면에서 중정까지 이어지는 외부계단에서 좁고 긴 계단으로 사용한 이유는?
4. 주방과 식당 사이의 벽을 만든 이유는?
5. 매스가 전체적으로 사각형 박스 모양을 유지하면서 서측면에 매스를 둘출시킨 이유는?
6. 계단이 매스의 중심에 위치한 이유는?
7. 주계단을 2개의 형태로 분리한 이유는?
8. 중정의 위치와 그러한 위치에 중정을 둘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9. 남쪽에 벽난로가 위치한 이유는?
10. 굴뚝의 높이가 수직적으로 주는 의미는?
11. 중정 부분에서 수평 슬래브가 두꺼운 띠로 동일하게 (전면부 벽 상부의 벽돌패턴) 나타나는 이유는? 또 왜 그렇게 과도한 두께를 유지하고 있는가?
12. 단면상 1층 바닥 슬래브가 과도하게 두꺼운 이유는?
13. 지붕이 평지붕인 이유는?
14. 구조체를 분석했을 때 십자형 구조가 생성이 되는데 구중심이 편중된 이유는?
15. 왜 창틀이 수직적인가?
16. 중정부분은 왜 보이드 되었는가?
17. 북측면의 긴 띠창을 만든 이유는?
18. 2층 중정 부분의 담 높이는 어떤 의미를 주는가?
19. 2층 배면의 창의 처리에서 중심부의 매스 안으로 삭제하여 발코니를 만든 이유는?
20. 서측면의 창은 왜 다른면(남측면)으로 이어지고 있는가?
21. 배면부에서 왜 끝까지 개구부를 수직적으로 높게 뚫었나?
22. 배면 진입과 정면 진입의 계단이 서로 위치와 규모가 다른 이유는?
23. 대지의 레벨과 동선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4. 평면에서 보어지는 벽의 구획과 각기 다른 벽체는 동선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25. 1층 부분에서 계단을 중심으로 양측면의 벽체가 동일한 너비로 뚫진 이유는?
26. 배면 진입부분에서 굳이 지상에서 지하로, 다시 지상으로의 이러한 패턴을 사용한 이유는?
27. 수영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의 위치는 왜 그곳인가?
28. 왜 벽돌만을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가?
29. 거실 부분의 창이 수직적으로 틀을 형성하는 이유는?
30. 이 건물의 주요 파사드는 어느 쪽인가?
31. 이 건물의 구조는 무엇인가?

질문1> 캠프기간 중 좋았거나 만족했던 것은?

-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건축일기 방법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캠프에 참여하길 잘했다고 절실히 느끼고..
- 다른 학교 학생들의 사고가 나와는 다르다는 점과, 나 스스로의 부족함을 느낄수 있어..
- 일반적인 건축물을 분석하는 데 선행조건이 작가의 사상이나 가치관을 조사해야하는 것이라면, 캠프에서는 이러한 요소를 배제하고 네가지 체계인 구조, 동선, 피막, 공간의 기준으로 접근해가는 방식이 새로웠고, 건축물을 또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으며, 좀더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등이 만족..
- 여러 사람들과 의견을 나눠가며 공유했던 거..
- 자기의 생각을 정리 발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웠다..
- 건축을 열망하는 학생들끼리 모였다는 것이 좋았다....앞으로 내가 겪을 문제와 장애를 이미 해결하신 선배님들과의 만남이 매우 소중한 기회였으며, 앞으로 걸어야 할 나의 모델과, 좌표를 찾았다는 점이 이번 캠프의 가장 큰 소득이다.

질문2> 캠프기간 중 힘들었거나 불만족스러웠던 것은?

-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자신의 아집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다..
- 일관적인 운영방식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눈에 띄어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류터 선생님들은 열정적인 교육열을 보이는 반면, 일부 크리틱 선생님께서는 전체적인 교육방식에 대한 관심이 좀 부족해 보였고, 그에 따른 학생들의 혼선을 가지게 했던 것이 사실..
- 발표력 부족으로 인한 실리적 부담감이 컸고, 크리틱 조별 준비가 부족 했던 것..
- 프로그램 일정의 짜임에 문제? 또는 무리가 있어 학생들의 참여도가 낮았지 않았나...
- 캠프에서의 읽기가 분명히 4체계에 의해서만 분석하는 것이라고 하였는데...중간 크리틱 시간에 “건축가의 사상이나 생활방식 등에 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선생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캠프의 주제가 어디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 체육시간과 캠프파이어 시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했으면..
- 기간이 너무 짧아 소화하기가 어려워서..

질문3> 캠프에 바라는 것은?

- 조원들과 좀더 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 류터 선생님들과 좀더 친밀한 관계형성의 기회가 많았으면.
- CG작업이 많으니 미리 컴퓨터 지원을 해 주었으면..
- 많은 시간을 투자한 만큼 주제가 토론시간이나 크리틱 시간이나 일관되었으면 하며, 학생들의 자유로운 해석을 더욱더 많이 수용했으면 한다.
- 좀더 많은 홍보로 관심 있는 선·후배들의 많은 참여가 있었으면..
- 잠을 자야한다... 정말로

■ 입교식



■ 강의



건축읽기 방법론 - 유정훈

형태구성요소와 체계 - 조재억

건축표현 방법론 - 이양훈

■ 외빈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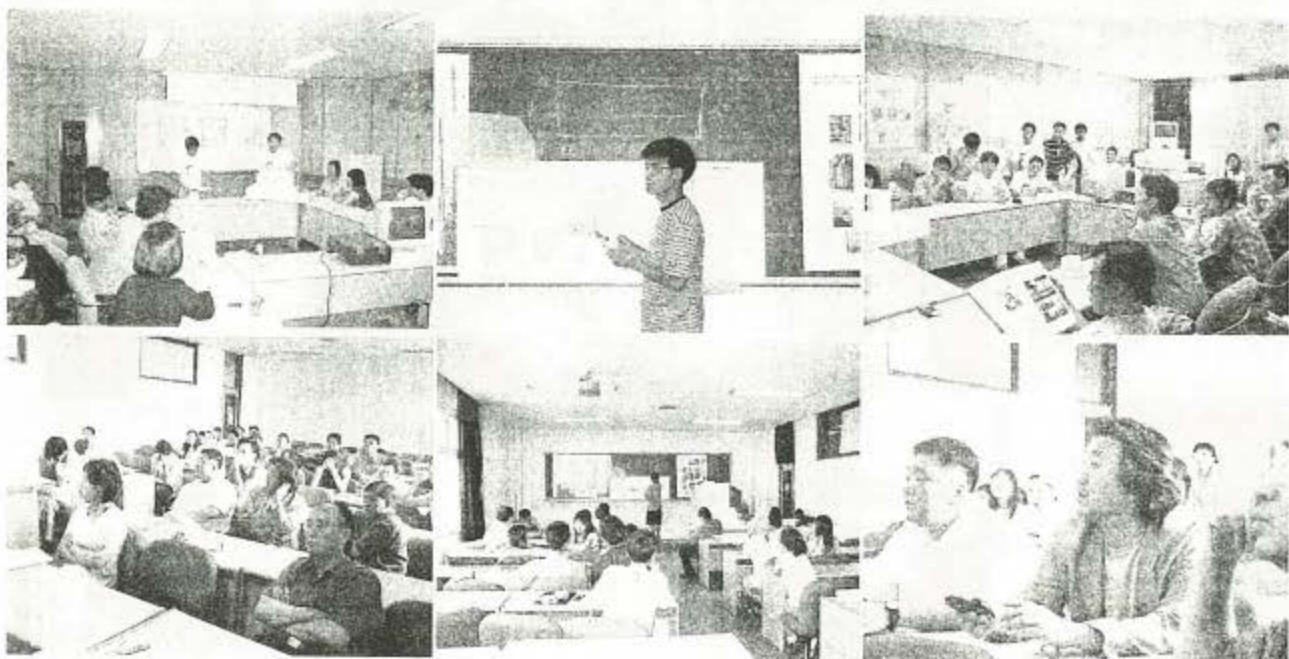
■ 작업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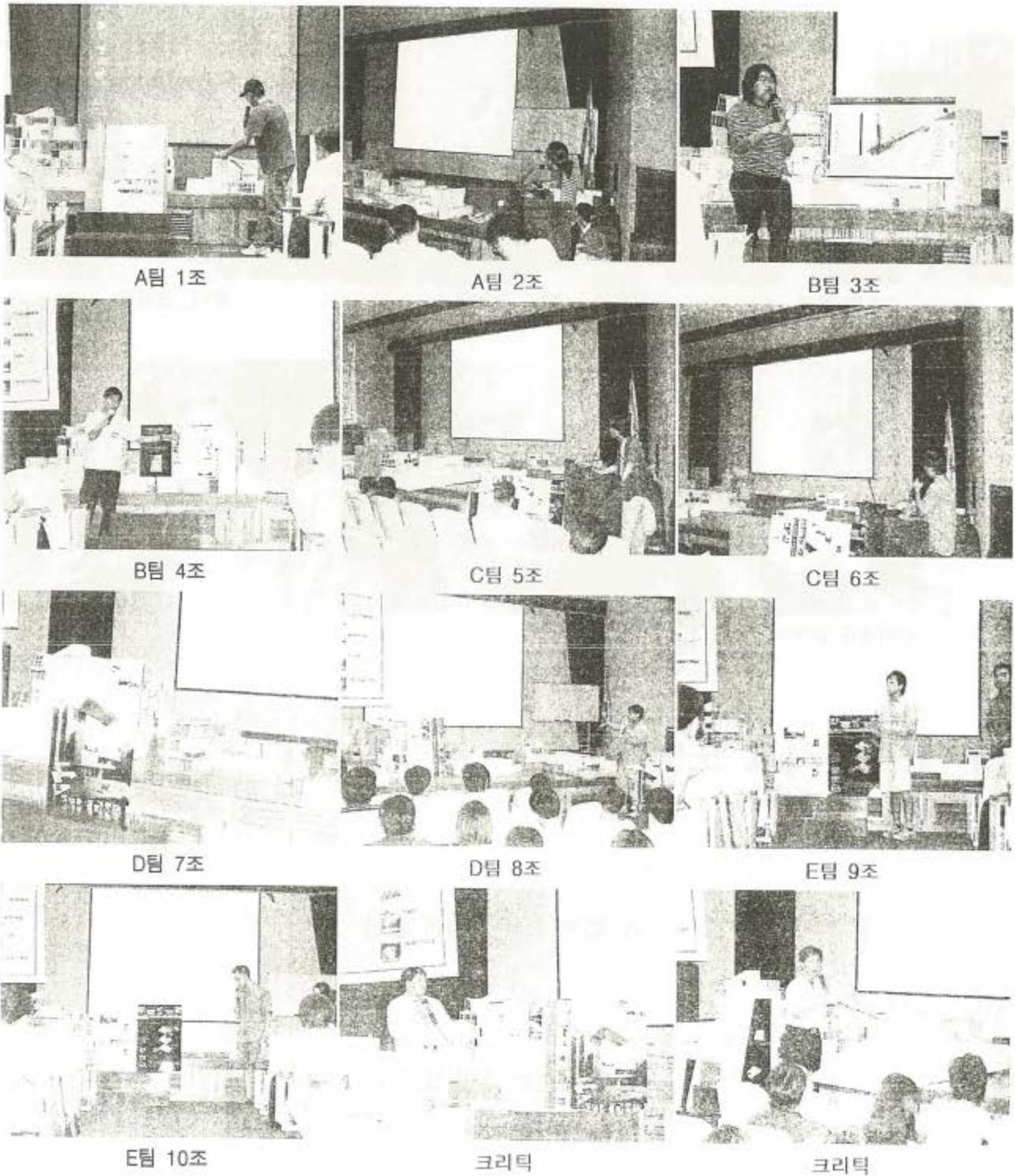
■ 튜터실 풍경



■ 조별 크리틱



■ 공개발표 및 크리틱



■ 폐교식



수료증 수여



튜터, 크리틱



튜터, 크리틱



아쉬움을 달래며



■ 캠프 티셔츠 도안



↔ 캠프 티셔츠 전면 도안

캠프 티셔츠 후면 도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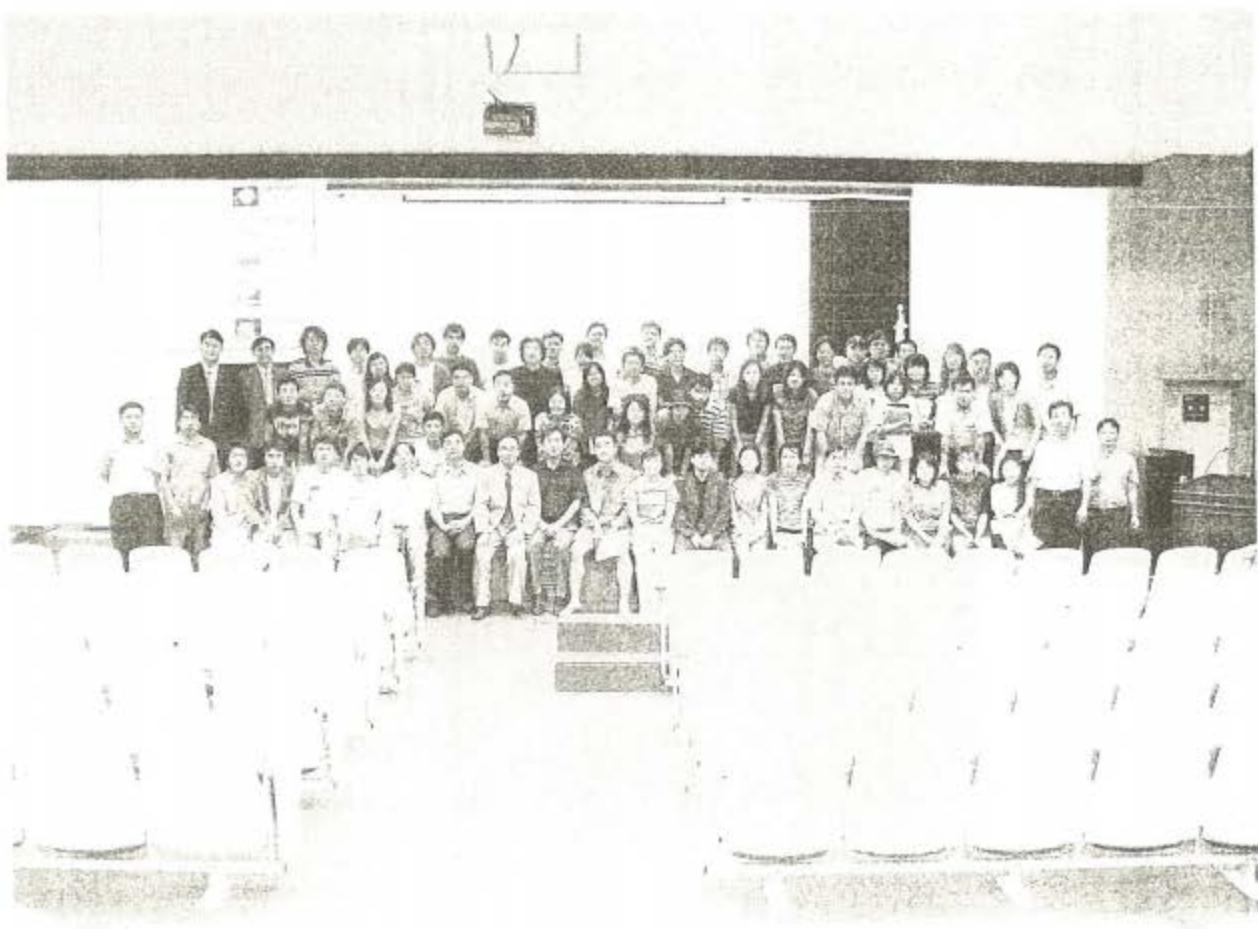
11

마무리

■ 추억남기기



■ 단체사진



건.축.디.자.인.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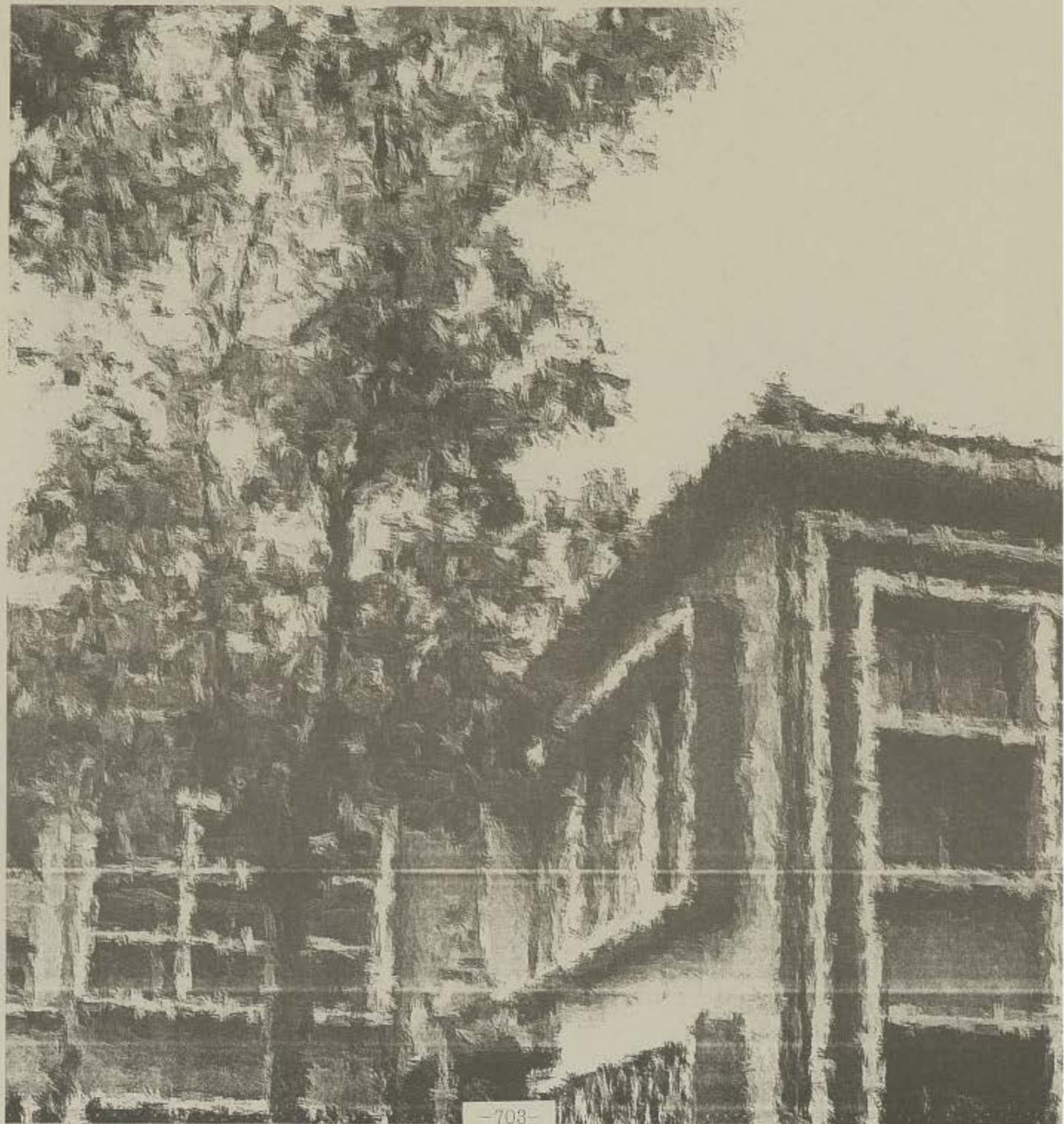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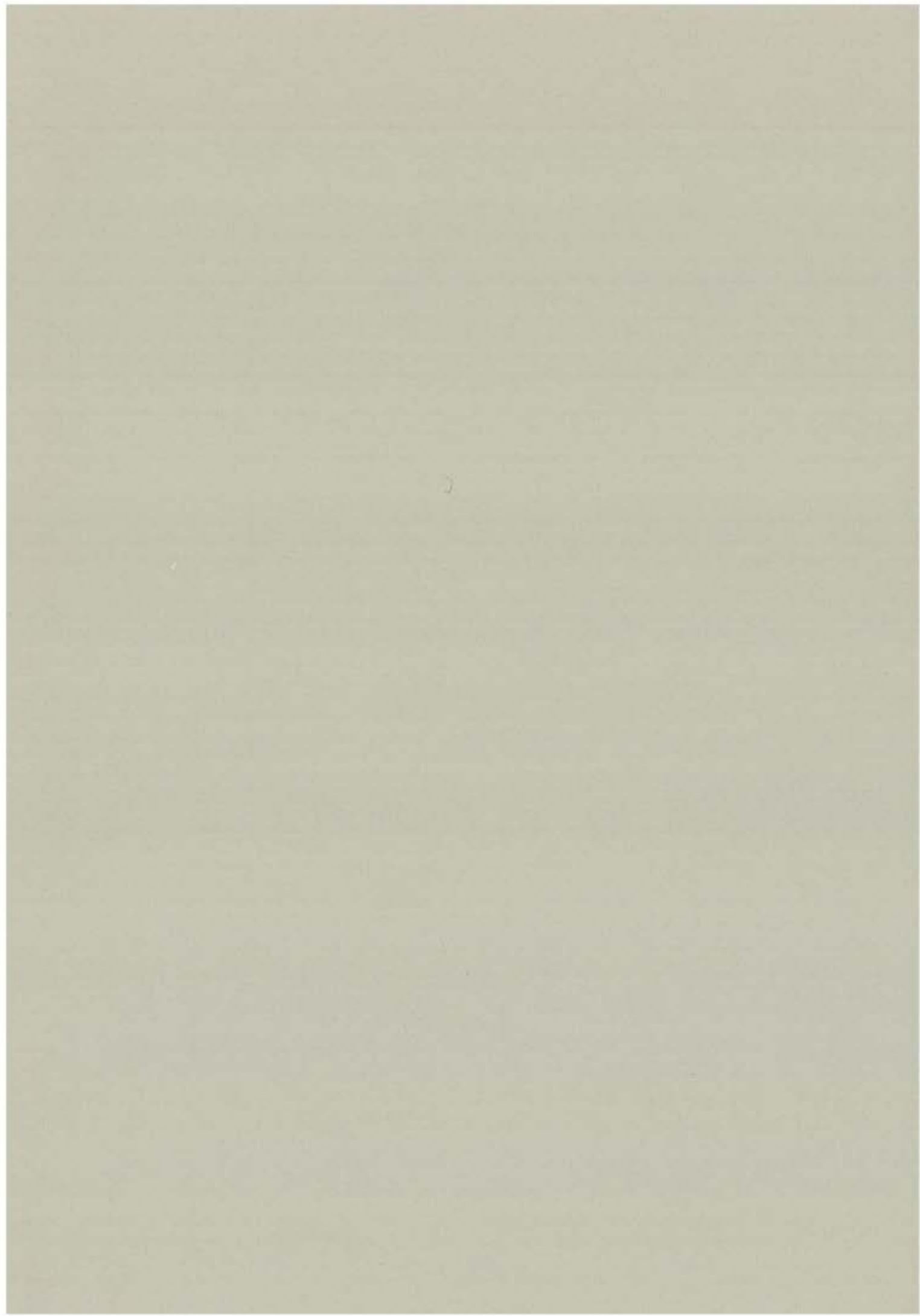
Research Institute
of
Architecture

2004 / 06

주제 : 혼적....덧쓰기

건 · 축 · 디 · 자 · 인 · 캠 · 프





■ 목 차

1. 발간사
2. 격려의 글, 초청의 글
3. 프로그램
4. 조 편성
5. 운영진
6. 운영회 활동
7. 대상건축물 소개
8. 각 조별 작품
 - 8-1. A팀 1조
 - 8-2. 2조
 - 8-3. B팀 3조
 - 8-4. 4조
 - 8-5. C팀 5조
 - 8-6. 6조
 - 8-7. D팀 7조
 - 8-8. 8조
 - 8-9. E팀 9조
 - 8-10. 10조
9. 캠프활동
10. 단체사진

1

발간사

16차 건축디자인캠프의 주제인 '흔적... 덧쓰기'는 우려했던 데로 그리 쉬운 주제가 아니었습니다. 대흉동 농산물검사소라는 구체적인 리노베이션 대상도 적잖은 고민거리를 유발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튜터 포럼에서 거듭된 격론의 결과 본 주제가 선정된 데에는 건축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병폐적 현상에 대한 반성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나친 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건축이 경제적 가치 추구의 대상으로만 여겨져 역사와 문화가 용해된, 삶이 누적된 생활환경이 가치 없이 파괴되고 설익은, 소위 새로움만이 가치 있는 것으로 추구되는 경박함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간다는, 아니 잃고 있다는 사실 자체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딱한 형편에 대한 자각이었습니다. 너무나 쉽게 짓고 너무나 쉽게 허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 장소의 기억이란 매우 소중한, 정신없이 빨리 돌아가는 각박한 현실에서 개인과 도시를 건강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며, 건축이나 도시는 결코 가능성, 경제성, 전위성만을 우선할 수 없는 사회적·문화적 기억의 축적물임을 잊은 것입니다. 삶의 질이나 행복지수는 경제적 잣대로만 저울질할 수 없는 심리적 요인이 큰 역할을 합니다.

대흉동 농산물검사소는 대전의 구시가지에 몇 남지 않은 1950년대 건물로서 건축적으로 대단히 우수하거나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큰 건물이라기보다는 그냥 그곳에 있음으로써 도시의 시간적 영속성을 이어준다는 의미에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또한 짧은 캠프기간에 적합한 소규모 건물이고 침체된 구 시가지를 재활시키려는 노력에 부합된다는 명분도 작용했습니다. 무조건적 보존은 방치로서 환경을 오히려 파괴하는 일임을 인식하고 또한 새로운 역사 창조라는 미명 하에 과거의 사실을 너무나 쉽게 없애는 만행을 극복하면서 개발과 보존이 반대 개념이 아닌 상호 보완적 개념임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건축은 언젠가 소멸하고 새로운 환경에 따라 재개발 되어야 하고 변화되어야 하는 운명이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에 따라 건축이 바뀌었더라도 수많은 세월동안 그 장소에 새겨졌던 삶에 대한 기억을 유지시켜 다음 세대에 이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자 했습니다. 철학자 게오르크 루카치의 말처럼, "올바른 진보란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앞선 시대의 업적을 흡수하여 이루어지는 누적적인 일"임에 동의하며 또한 "가장 잘 보존하는 방법은 가장 잘 활용하는 것"임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건축은 강력한 기억장치며 우리의 정체성은 총체적 문화인 건축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건축디자인캠프의 단골 메뉴였던 '건축읽기'가 '쉽게 짓고 쉽게 허무는' 폐단에서 쉽게(암망으로) 짓는 것에 대한 반성으로서 제대로 고민하고 제대로 짓기 위한 준비 단계라면 이번 주제인 '흔적... 덧쓰기'는 쉽게 허무는 것에 대해 반성하고 삶의 터, 생이 누적된 삶의장을 소중히 여기고 진취적으로 보존해야겠다는 의식을 갖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훌륭한 건축가로 성장해나갈 우리 학생들이 역사의 거울인 건축의 역할을 직시하면서 건축가의 사회·문화적 책임 의식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되는 캠프였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동적으로 수고해주신 튜터 및 크리틱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 번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도시·건축연구원 설계학교장
이관석

2 격려의 글, 초청의 글

□ 격려의 글

제16차 건축디자인 캠프를 시작하며..

도시건축연구원은 그동안에 이 지역의 교수님, 건축사님, 건축3단체 회원님의 성원에 힘입어 계속적으로 성장 발전해 왔습니다. 금번 도시건축연구원 설계학교에서는 제16차 건축디자인캠프를 한남대학교 건축학부에서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캠프의 취지는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각 대학 건축공학과 설계교육의 질을 공동으로 증진시키고 산학협동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참여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이론과 접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대전지역의 건축문화를 이끌어 갈 차세대 건축인을 양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축계에 불어 닥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지극한 관심 덕분에 설계학교장을 비롯한 설계학교 운영위원님들과 특히 튜터 및 크리티 선생님들이 후학들의 성장을 통한 디자인 캠프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 노력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건축3단체 회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개최되는 디자인 캠프에 참석하여 주셔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사)도시·건축연구원 원장
이길주

□ 초청의 글

산업 현장에서, 학계에서, 대전 지역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건축 발전을 위해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소중한 분들을 16차 건축디자인캠프에 초대합니다.

우리 대전에서 처음 시작되어 건축학도들의 살아있는 건축교육 현장이 되어온 디자인 캠프가 올해로 어언 열여섯 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금년의 캠프 주제는 그동안 좋은 성과를 거두며 계속해오던『집 읽기』를 한 해 쉬고 『흔적...덧쓰기』라는 화두로 1952년에 건립된 대흥동 농수산물검사소의 리노베이션을 주제로 하여 장소의 기억, 보존과 활용의 가치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건축이 지녀야 할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맥락을 짚어보며 오늘을 넓철히 파악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를 추스르고자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로서 힘을 얻고자 하오니 이제껏 보내주신 사람을 계속하여 주실 것을 감히 부탁드립니다.

올해는 한남대학교 건축학부에서 디자인캠프를 위해 장소와 모든 편의를 제공해주십니다. 한남대 건축학부의 모든 교수님들과 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입교식과 공개 크리티, 그리고 폐교식의 시간에 건축인사 여러분을 모시고 격려말씀을 듣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임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충심으로 원합니다.

(사)도시·건축연구원 설계학교장
이관석

5

운영진

1) 임원진

직위	성명/소속
설계학교장	이관석 (한남대학교 교수)
설계학교간사	이방섭 (건축사사무소 기가원 소장)

2) 운영위원

팀명	조명	튜터	크리틱
A팀	1조	김시원 : E.D.A 건축 허경은 : 충남대학교 박사과정	황종국 :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유병구 : CNU 건축사사무소 소장
	2조	신수범 : 건축사사무소 기가원 소장 김학균 : 로이건축소장	
B팀	3조	이양훈 : 건축사 송복섭 : 한밭대학교 교수	김학래 : 도시건축사 사무소 김명애 : 건양대학교 교수
	4조	정우영 : 참 건축사사무소 실장 한희경 : 충남대학교 박사과정	
C팀	5조	이정근 : 건축사사무소 UNI 소장 이난표 : 배재대학교 교수	이윤하 : 노둣돌 건축사사무소 소장 이승용 : 목원대학교 교수
	6조	김환식 : 영동대학교 교수 조도연 : D&B건축 소장	
D팀	7조	박수훈 : 한밭대학교 교수 조향우 : 건축사	길성호 : 한밭대학교 교수 이호정 : 공주대학교 교수
	8조	서동구 : 로이 건축사사무소 소장 서명규 : TAO 건축소장	
E팀	9조	조한목 : 건축사사무소 TAO건축 소장 이기욱 : 목원대학교 박사과정	조재억 : SEUIL 소장 오덕세 : 한빛 건축사사무소
	10조	박인규 : 배재대학교 교수 신진선 : ITL 건축소장	

6

운영회 활동

1) 운영회 활동사항

날짜	내 용	비 고
2004. 3. 29	제1차 운영회의 - 튜터, 크리틱 선정건 및 주제토론, 간사 결정	
2004. 4. 13	제2차 운영회의 - 주제접근, 재정간사 및 교육부, 기획부 구성 확정	
2004. 4. 22	1차 튜터 포럼 -주제 : 큰틀에서 합의	
2004. 5. 6	2차 튜터 포럼 - 주제(흔적...덧쓰기)확정, 작업범위 토론, 튜터(20명) 및 크리틱(9명) 확정	
2004. 5. 25	3차 튜터 포럼 -농산물검사소 도면배부, 작업범위토론 및 확정, 스케줄 정리	
2004. 6. 8	튜터/크리틱 전체모임 -흔적...덧쓰기에 대한 작업범위 확정	

2) 포스터·기념티·프랭카드 디자인

- 이양훈 소장

3) 보고서 디자인 및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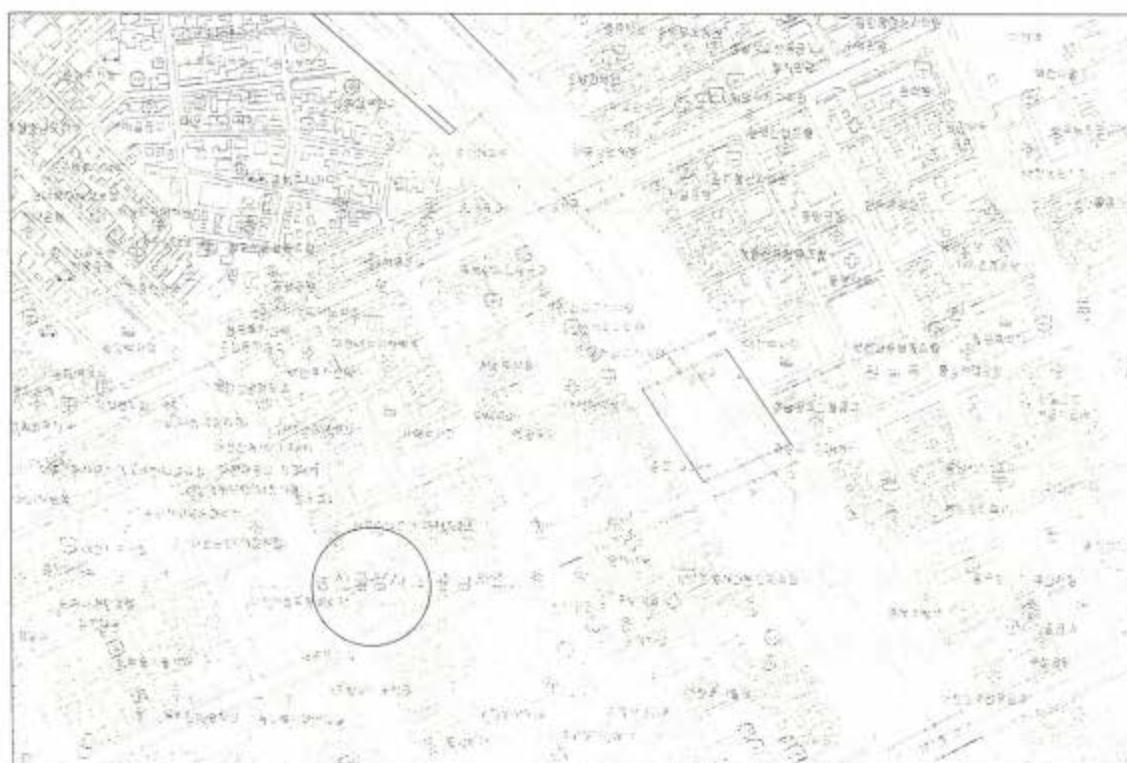
- 이기욱 선생

7

대상건축물 소개



전경 사진



위치도

□ 건축물 개요¹⁾ 및 실측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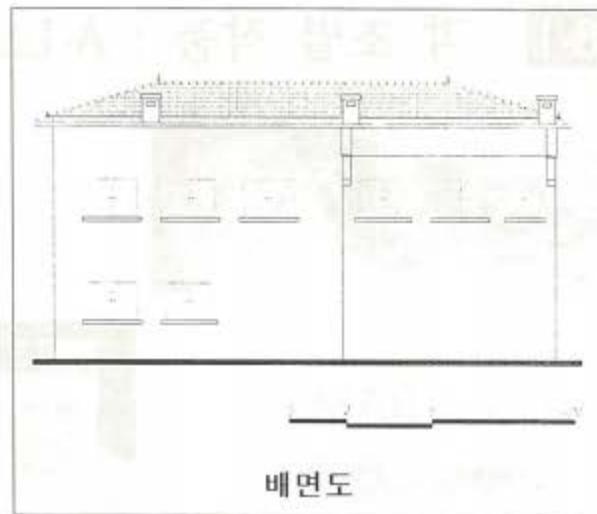
분야	건축물	종별	업무시설
명칭	(現) (原)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충청지원	용도	(現) (原) 관공서
소재지	(現)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 161 (原)		
건립	1950년 or 1952년	설계	배한구(배건축사사무소), 한동석
지정		시공	임현화(일성건설)
규모	• 대지면적 : 444.30㎡ • 건축면적 : 247.43㎡	• 연면적 : 432.49㎡ • 층수/크기 : 지상2층	
구조	조적조 / 모임지붕	보존상태	일부 파손
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면에는 '브리즈 슬레이브'라는 차양요소를 사용하고, 관공서이면서도 일반주택의 규모와 상치되지 않도록 입면을 선적 요소로 분절하였으며, 외벽은 몰탈뿐칠로 마감하였다. 특히, 이 건물은 서향창이 많이 설치되는 방향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데, 깊은 날개벽을 설치하여 이를 차단하고, 보다 적극적인 대처로 1층의 서향창 부분은 철제 가리개를 넓게 설치하여 조형성과 기능성을 적절히 표현하고 있다. 네거리와 인접한 올타리 너머로 자그마한 마당을 지나면 대리석으로 만든 아치형 현관이 있다. 건물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현관 규모도 작다. 네거리에서 보이는 2층 베란다는 일반 가옥의 모습과 유사하며, 소장실과 접해있는 베란다의 경우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서향 빛을 차단할 목적으로 만든 파고라가 설치되어 있었다. 내부는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배려가 두드러진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곧바로 각각 사무실로 들어서는 문과 2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고, 2층은 사무실이 곧바로 연결된다. 전체적으로 넓지 않은 건축면적으로 인해 사적 공간이 최소화되어 있다. 		
연혁 및 수리기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97년 5월 27일에 1층 사무실 27.5㎡를 한차례 증축하였으며, 현재 철제가리개는 보수공사시 도장 작업만하여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1층 검사실의 환기용 덕트와 냉풍기의 실외기가 기존의 건물의 경관을 저해하고 있다. 1999년 7월부터 농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의 품질관리업무를 강화하기 위하여 농산물 품질관리원으로 변경되었으나, 그 해 12월에 사무소를 선화동 옛 검찰청사로 옮긴 후 현재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참고사항	일반상업지역		
관계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정동, 대전의 근대건축, 꾸밈, 1985.04 유병우·박만식, 대전의 건축, 99건축문화의 해 대전광역시 지역추진위원회, 1999 김정동, 남아있는 역사 사라지는 건축물, 대원사, 2000 대전광역시건축사회, 사진으로 본 대전의건축, 대전광역시건축사회, 2000 대전광역시사편찬위원회, 대전100년사(3), 대전광역시, 2002 중구 건설과, 30년 이상 노후불량건축물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 대전광역시 건설방재과, 2002.01.10 대전광역시 중구청, 일반건축물대장, 2003.04 		
소유자	(국)국가보훈처	연락처	02-780-9601
관리자	(국)국가보훈처	연락처	02-780-9601

1) 김정동, 「근대문화유산 목록화 조사보고서」, 대전광역시, 2003.4, p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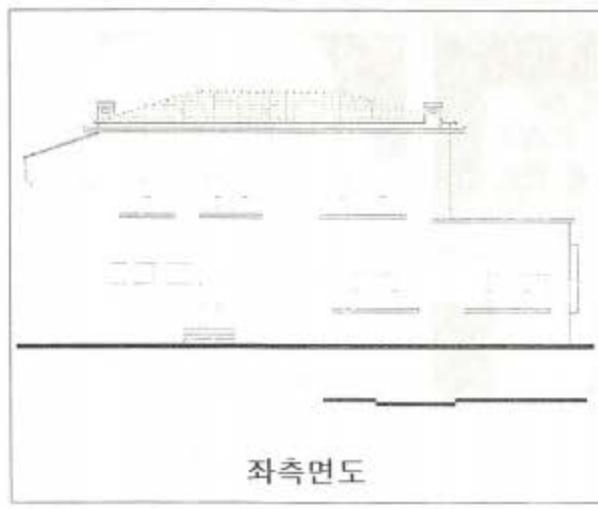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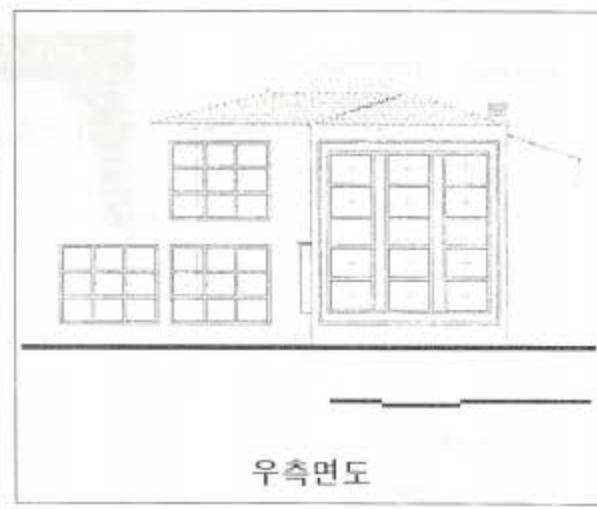
정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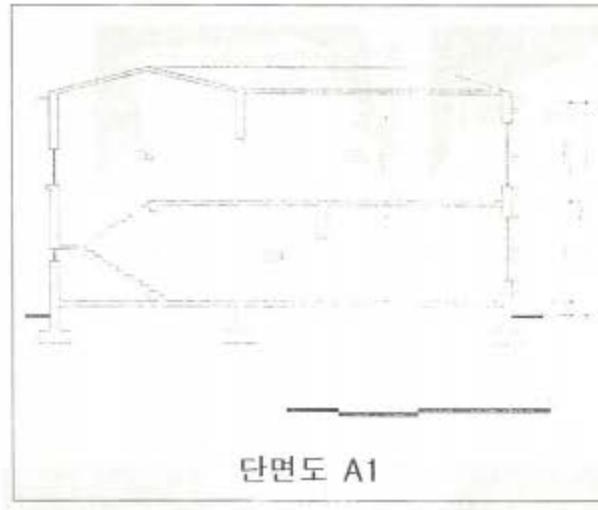
배면도



좌측면도



우측면도



단면도 A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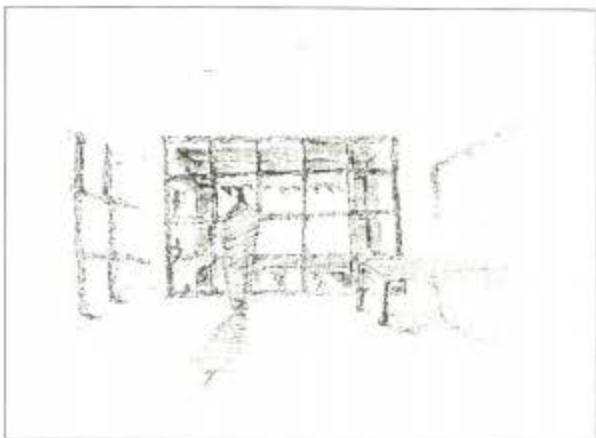
단면도 A2

■ 실측도면은 CNU 건축사사무소 유병구 소장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목원대학교 건축근대사연구실에서 추가 실측하여 완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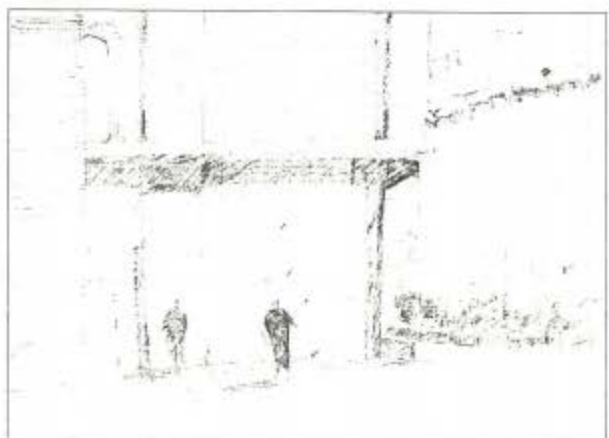
8-1 각 조별 작품 : A-1조



□ A팀 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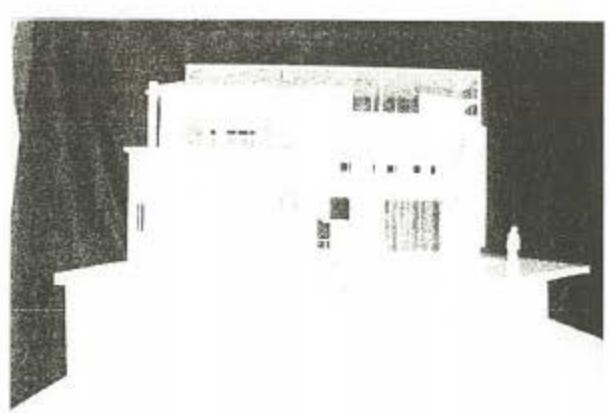
투시도1



투시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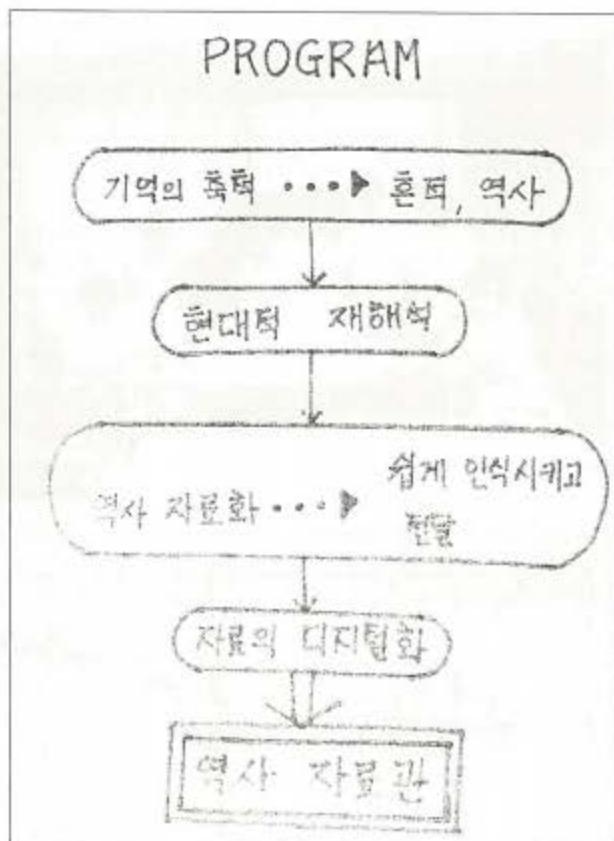


모형사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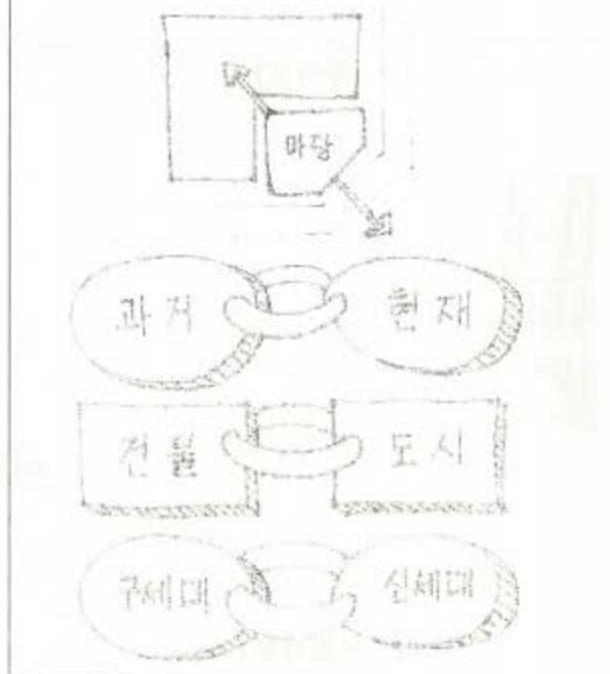


모형사진2

□ 개념 도



마당 = 연결고리



□ 작품 설명

1. 흔적의 의미와 가치 해석

의미 - 어떤 현상이나 실체가 없어졌거나 지나간 뒤에 남은 자국이나 자취.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가치로서 존재하는 것

가치 - 과거의 문화적(건축적 양식) 매개체로서의 의미

현재의 부재로의 회소성

2. 설계대상의 흔적의 가치

1) 도시의 축에 접한 대지로 사람들의 인식으로의 장소성

2) 50여년의 도시의 일부로서의 기억의 축적을 통한 시간성

3) 회소성

3. 설계대상의 상황인식

동시대의 건축물들이 기능을 갖고 가치 있게 사용되는 반면 대상물은 기능의 부재로 활용되지 않아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있다.

4. 프로그램 도출

기억의 축적물로서의 흔적과 역사의 공통된 시각에서 현대적 재해석을 통한 새로운 가치부여와 쉽게 접하고 인식할 수 있도록 변형

- 대전 역사 자료관

5. 접근방향에 따른 concept설정

1) 흔적의 공간 활성화

2) 흔적의 공간을 통한 과거와 현재, 도시와 부지의 link

3) 흔적의 적극적 인식을 위한 현대적 시점의 재인식

6. 건축적 해결

1) 마당공간의 수직적 확장을 통한 활성화와 흔적의 오브제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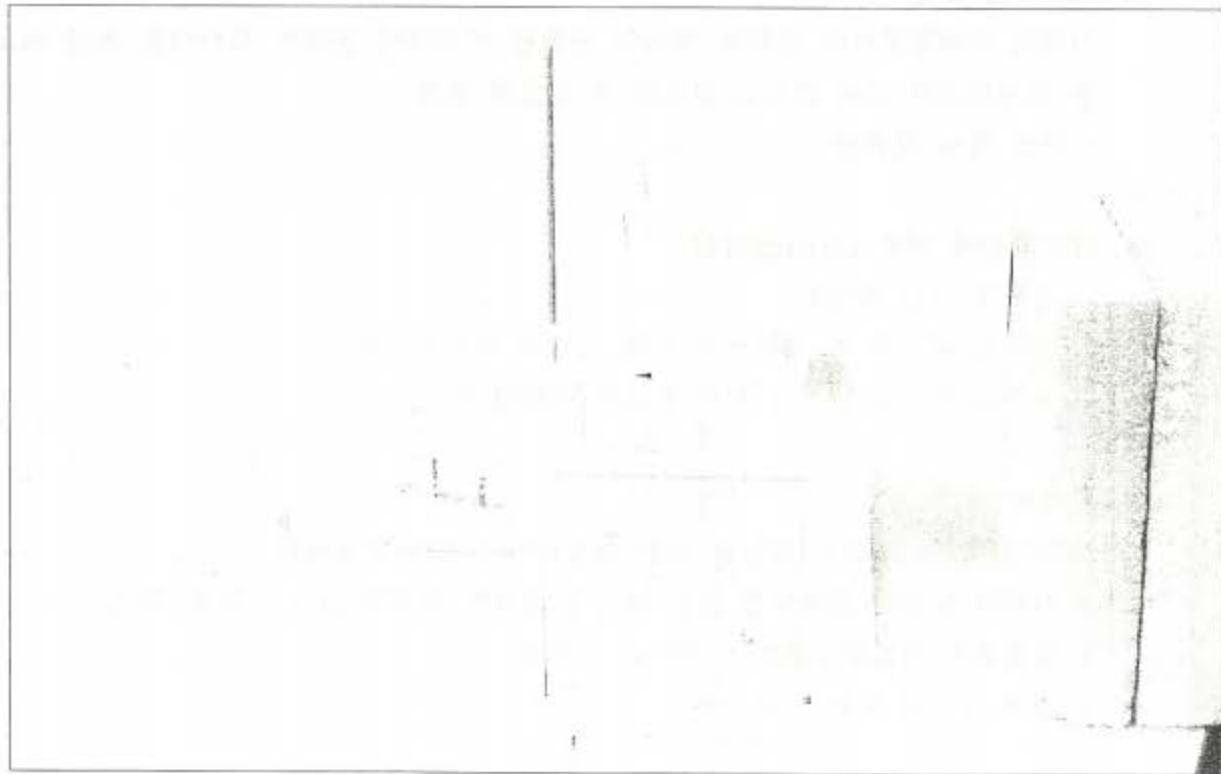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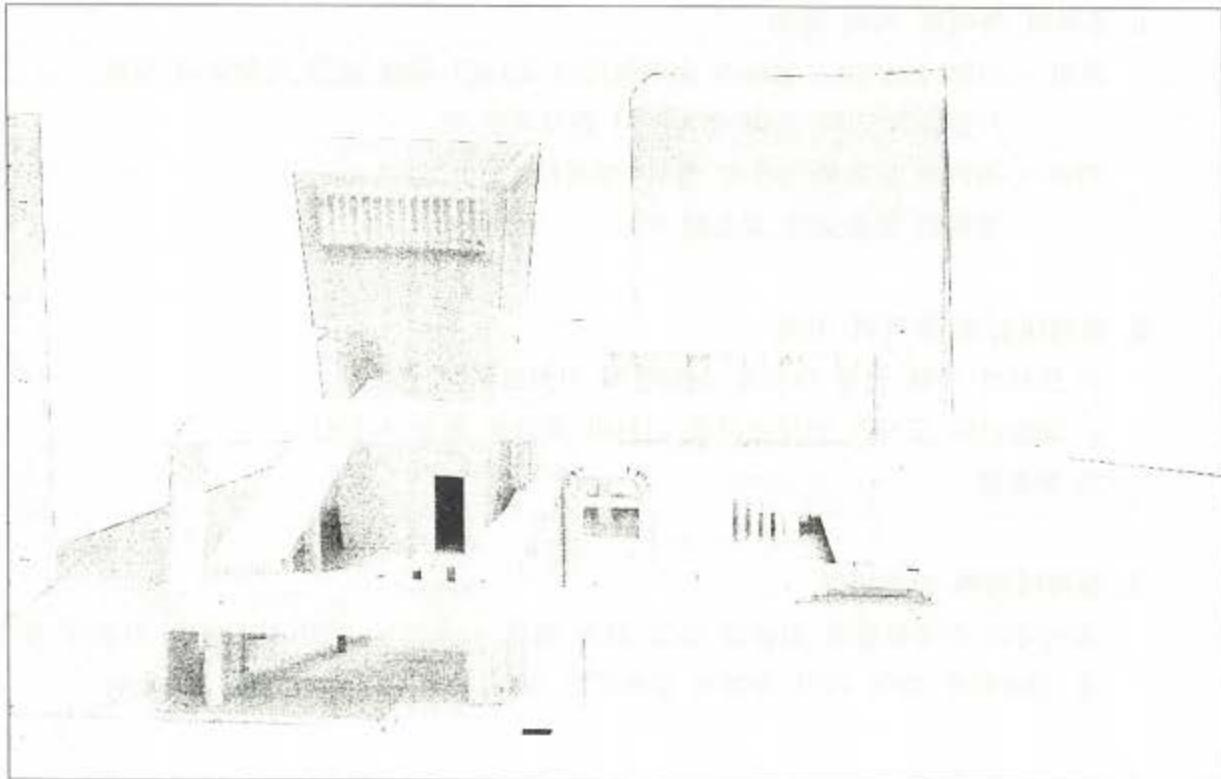
2) 현대적 모습의 증축부를 통한 대비로 흔적의 적극적 인식 - 지붕, 매스

3) 불필요한 기능요소들의 디자인화 - 루버

4) 과거 공간의 복원 - 파고라

8-2

각 조별 작품 : A-2조



□ 작품 설명

저희 2조는 대지분석과 건물 분석을 통하여 건축읽기를 하면서 이번 디자인 캠프의 주제인 흔적과 덧쓰기를 추론하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2조는 “흔적”이라는 의미를 과거 1958년 농산물 검사소가 건축 되었을 시 도심속에서 건축물이 상징하고자 하는 의미, 즉 설계자의 의도에서 찾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흔적”이라는 의미는 과거에서 의미했던 것이 현재 상황에 맞물려 연속성을 지닐때 그것이 “흔적”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농산물 검사소의 입면, 그 중에도 남서측면이 흔적의 요소라고 추론하고, 그 외 부수적인 요소들은 과감하게 해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해체된 곳에 덧쓰기를 실시하여 현재에 기능을 잃어버린 농산물검사소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농산물검사소의 주변 상황은 수직성이 강한 고층과 실틈 없이 빽빽이 들어선 건물, 그리고 “로드점”이라는 대지의 특성을 갖고 위치한 비워진 공간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또한 대지분석결과 은행사거리를 축으로 서로 다른 성격의 대지 교차점이 되는 부분에 위치하여 완충적 역할을 할 수 있고, 대지를 통하는 게이트 역할을 한다고 분석하고 그결과 컨셉을 “비워짐”과 “통과”라고 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념에 맞추어 설계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지위에 흔적(피막)을 남기고 그 피막을 현재에는 사람들이 과거에 대한 기억으로 모티브가 되어 이동하면서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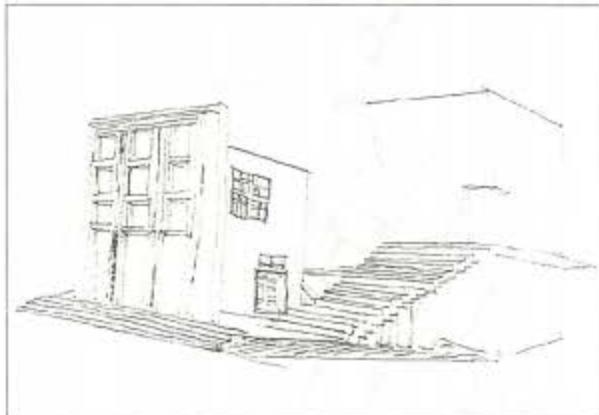
체험을 행해지게 하기위해서 동선에 많은 요소를 가미 하였고, 또한 동선은 긴장감과 피막이 다각도로 보여 지도록 하였다. 또한 선큰은 지하도의 인구 유동량을 고려하여 대지의 비워진 곳(마당)에 이전에 위치한 지하 계단을 마당으로 끌어 들어 보다 적극적인 형태를 취하였다.

마지막으로 “비워짐”이라는 부분에 어떠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설정하지 않고 대전 시내의 비워진 곳에 잠시 쉬어가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덧쓰기를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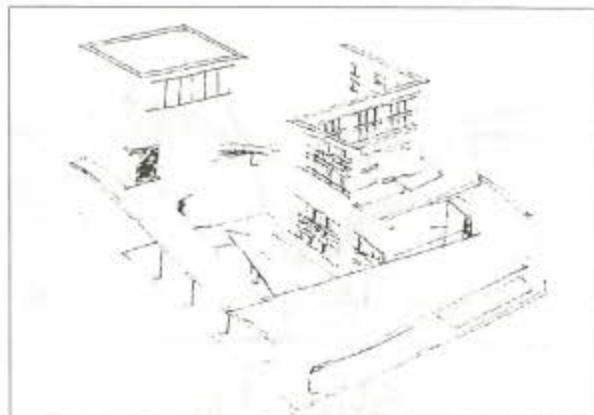
또한 “통과”는 성격이 다른 대지에서 또 다른 대지로 이동하도록 하는 완충적 역할을 부여하였습니다.

□ A팀 2조

- 작품명 : ‘비워짐’과 ‘통과’
- 크리틱 : 황종국, 유병구
- 튜 터 : 신수범, 김학균
- 팀 원 : 황정윤 (한남대)
최희동 (대전대)
이종선 (공주대)
정승훈 (목원대)
최현웅 (한밭대)



투시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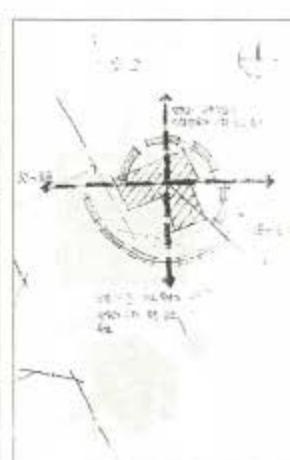
투시도2



Site 분석 : 접근



Site 분석 : 전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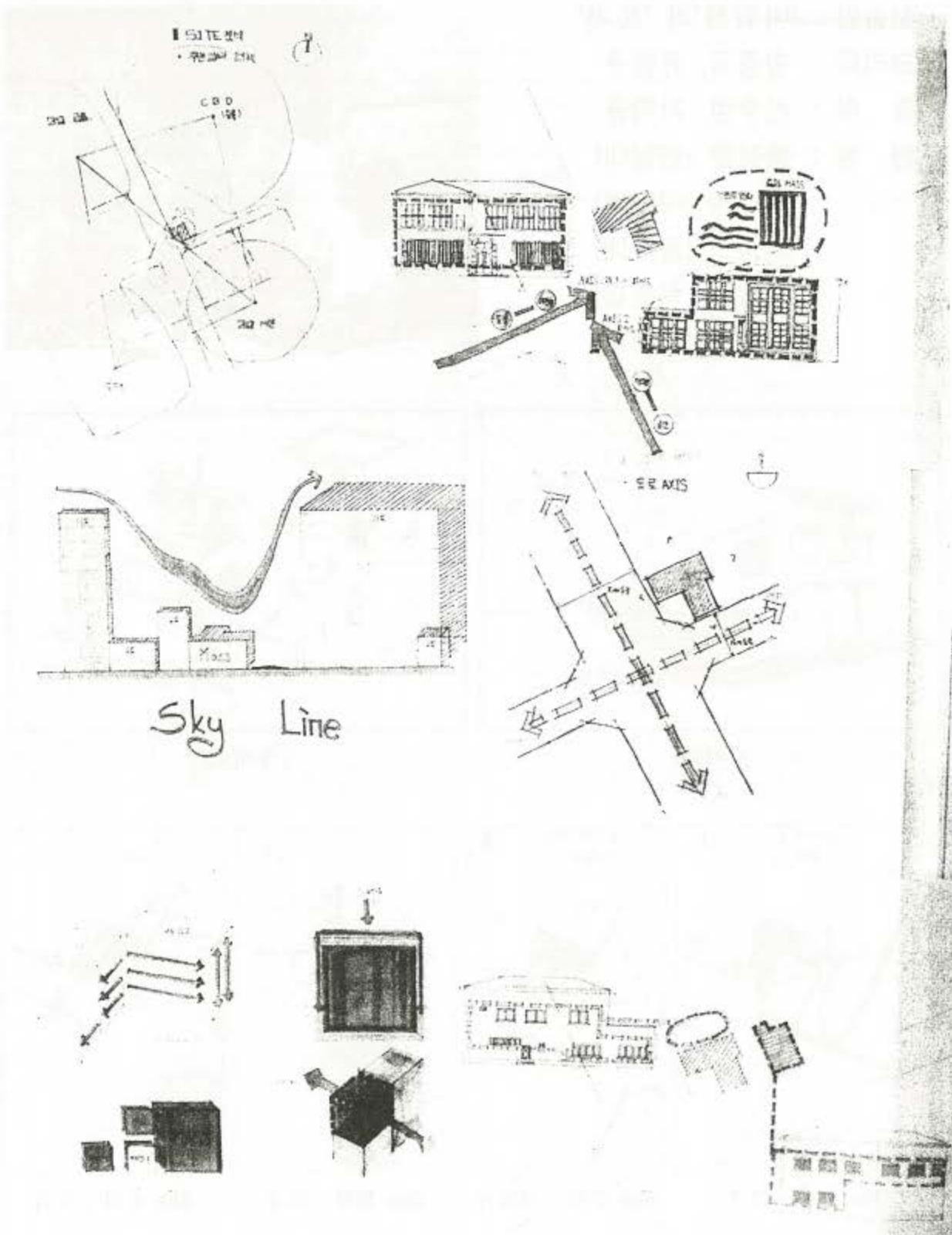


Site 분석 : 일조



Site 분석 : 소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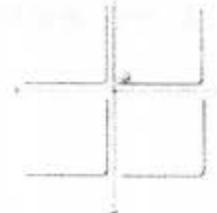
□ 개념도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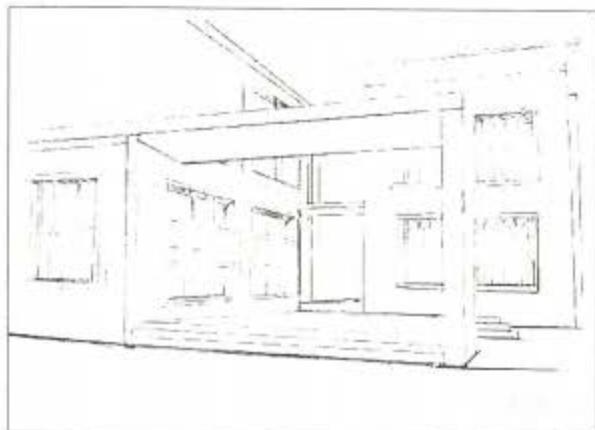
각 조별 작품 : B-3조

體 = 分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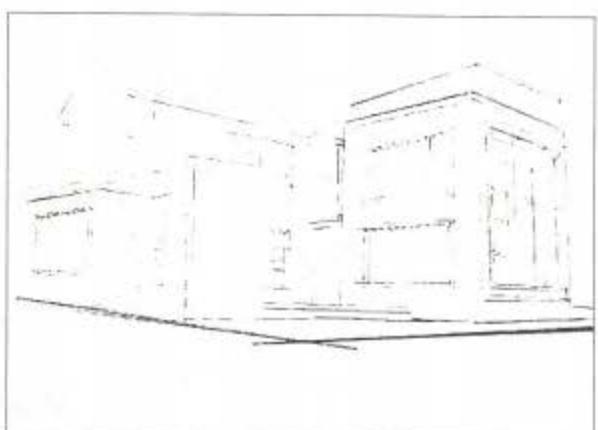


□ B팀 3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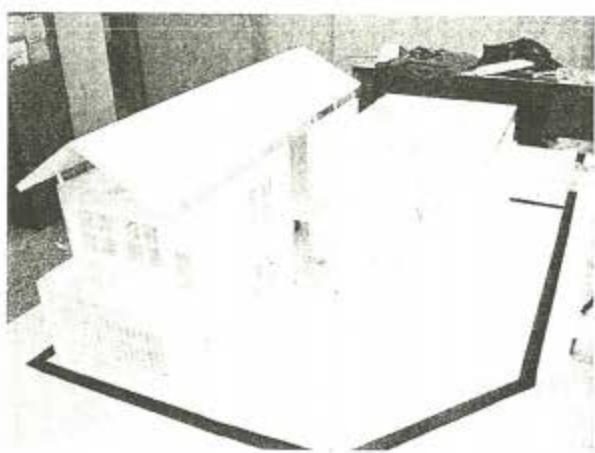
- 작품명 : 體 = 分리(우체국)
- 크리틱 : 김영애, 김학래
- 퓨 터 : 이양훈, 송복섭
- 팀 원 : 오혜영 (한남대)
안두진 (우송대)
유기자 (중부대)
김규동 (목원대)
김희동 (한밭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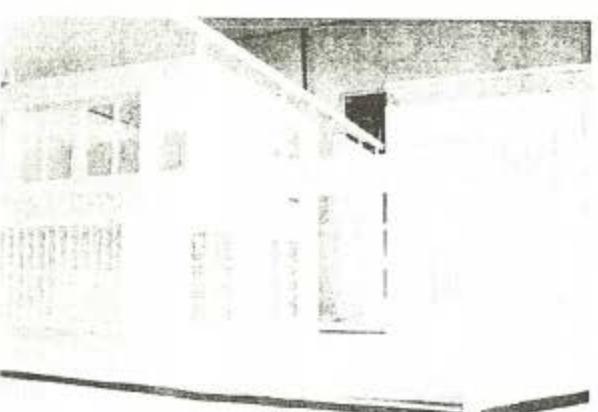
투시도1



투시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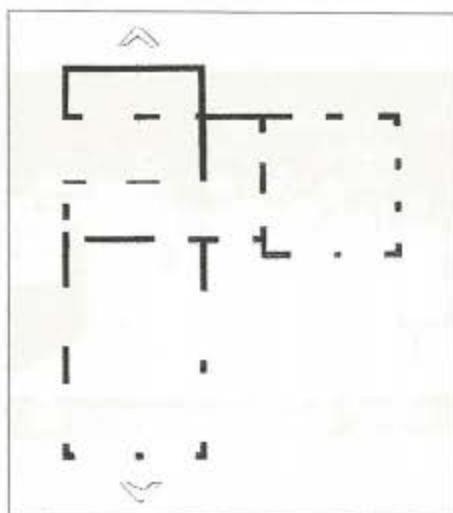


모형사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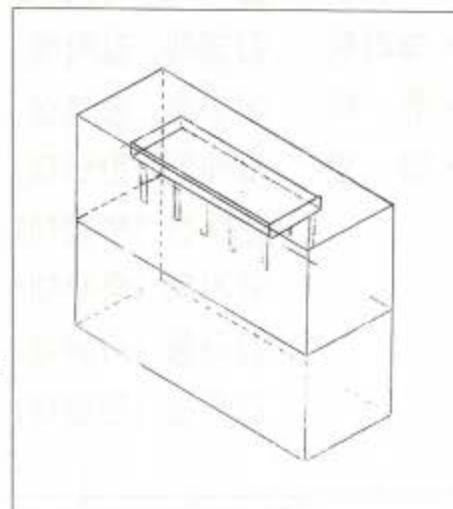


모형사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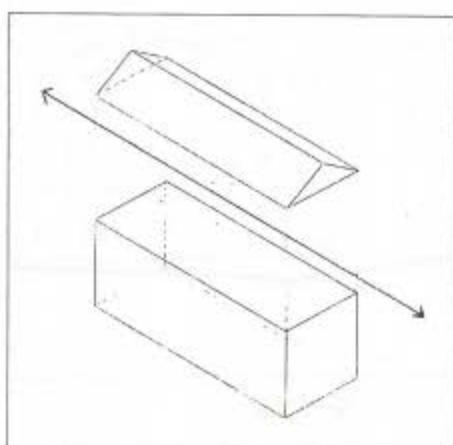
□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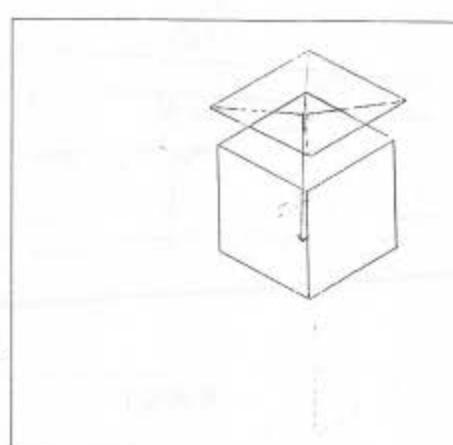
구조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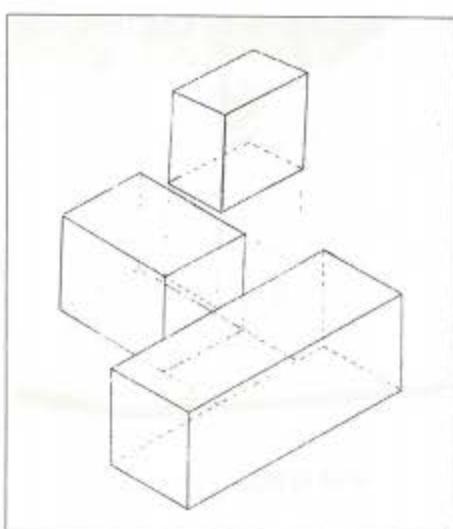
2층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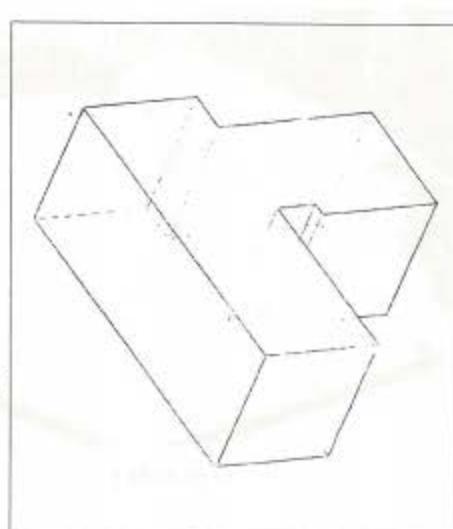
주 MASS 개념도



부 MASS 개념도



MASS 개념도1



MASS 개념도2

□ 작품 설명

조1-10. 은행 본점 1층

● 리노베이션의 접근 방법

- 건물 읽기를 통해 하나의 건축물이 가진 고유한 특성과 성격, 건축가가 나타내려고 했던 concept 등을 찾아 적절히 표현된 부분은 흔적으로 남기고 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덧쓰기를 통해 건축가의 concept 표현
- 왜(?)라는 질문을 통해 건축가의 concept 유도
- 건축가의 concept 그 자체가 건축물의 공간과 피막, 구조, 동선 자체를 나타내는 모티브로서 생각

● 리노베이션의 필요성

- 건축물에 대한 가치 설정 → 건축가가 표현하고자 했던 생각과 역사라는 시간성이 동반됨에 있어 가치 부여, 신축이 아닌 '개량'이라는 리노베이션에 대한 대응 선택

● 흔적

- 건축가가 생각하고자 했던 건축물이 공간이나 외부 입면 자체에 대해 건축가의 의도가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은 흔적으로 본다.
- 장방형의 매스와 정방향의 매스 그리고 그 방향성을 살려주기 위한 동선 커
- 건축가가 나타내려고 했던 4가지 입면 체계 (외부 시각에 따른 4가지 얼굴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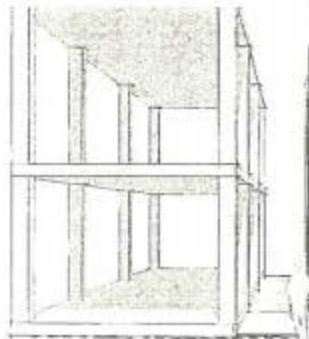
● 덧쓰기

- 건축가의 생각이 표현된 매개체인 건축물 표현이 건축물의 공간적 기능 수행여부 때문에 다소 감소된 부분을 현재의 새로운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건축가의 생각을 좀 더 확실하게 표현
- 장방형의 mass 정방향의 mass 의 분리를 통해 그 성격을 확실하게 표현
(장방형 - 방향성 강조, 정방형 - 중심적 역할 수행 강조)
- 방향성에 대한 확연성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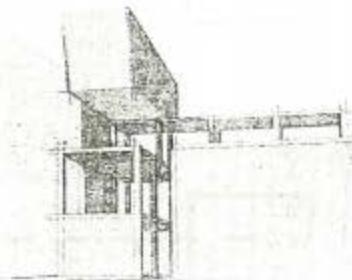
● 왜 우체국인가?

- 대지 자체를 4가지 각기 다른 성격을 지닌 상업지구의 중심에 위치했다고 보았다.
- 이런 각기 다른 성격의 상업지구안에서 각 지구의 역할을 보다 더 잘 수용할 수 있는 것 주변의 여건을 볼 때 젊은층이 주를 이루는 상업지구와 함께 업무시설이 범행되는 상업지구 또한 교육 시설이 수반되는 상업지구 그리고 도로축을 따라 조성되어 있는 은행업무 시설 등을 고려
- 문화와 업무 그리고 금융 이 모두를 수행 할 수 있는 것은 우체국이라고 생각

□ B팀 4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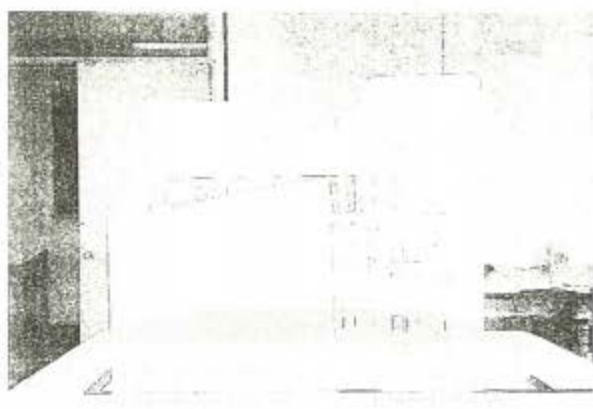
perspective 1



perspective 2



모형사진(정면)



모형사진(우측면)

□ 작품 설명

흔적... 덧쓰기

흔적들...

벽식 구조로 된 건물의 창을 벽식 구조에서 구현 할 수 없는 띠창을 창의 프레임을 이용하여 표현하려고 하였다. 이것으로 넓은 창을 구현하려 하였다. 그 당시는 RC구조가 우리나라의 처음 도입하는 시점이였다고 한다. 비록 허구로만 표현하였지만 그 시도를 높이 평가 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 입면을 흔적으로 남겼다. 이 입면은 과거부터 리노베이션이 된 지금까지 그 자리에 서있다. 이런 입면을 보고면서 이 건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이 건물이 오랜 시간 대전과 함께해 오고 있다는 것이며 이 주변을 지나다닌 사람들의 기억과 이야기가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입면만이 흔적의 전부는 아니다. 과거에 사람이 밟고 다니던 슬래브와 과거의 달혀있던 공간은 그대로 두기로 하였다. 그리고 현대의 공간과의 대조를 통해 과거의 것이 들어나길 바란다.

덧쓰기...

공간에 반전을 통해서 공간의 재구성한다. 이 건물 내부의 내력벽에 의해 막혀있던 벽들을 기둥 보강으로 하나의 공간으로 일어주고 외부 마당으로 열여있던 공간을 닫아주면서 공간을 재구성한다. 그리고 이들사이의 내부의 슬래브를 잘라 틈을 주어 두개의 대비되는 공간을 구별하는 동시에 동선재계를 구성한다.
이 변화로 인하여 주변 묘소와의 관계가 많이 달라진다. 이를테면 과거의 내부였던 벽면이 외부로 인식되고 외부였던 벽면이 내부로 인식함으로써 마치 주머니가 뒤집힌것과 같이 이곳을 지나다니는 사람들로 하여금 과거의 것에 대해 호기심을 유발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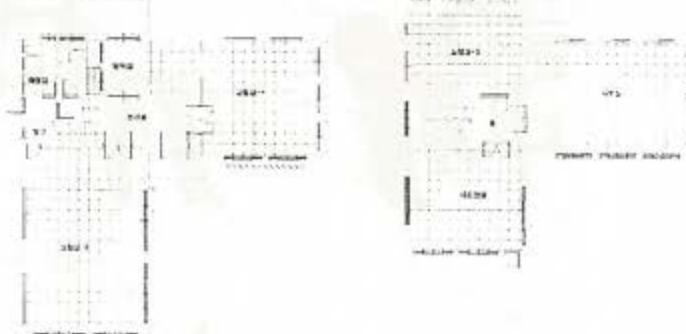
과거의 흔적을 가진 건물이 이 자리에 들어서면서 주변이 변화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이 건물의 용도를 주변 맥락을 고려하여 정하였다.



□ 개념도

Reading to The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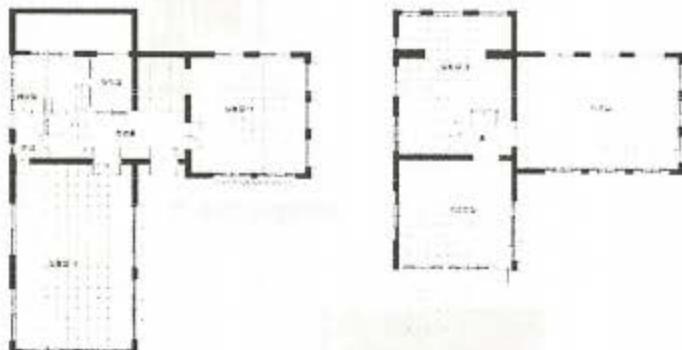
Space



내력벽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넓은 공간을 표현하려 했다. 하지만 내력벽에 의해 건물안의 공간은 많이 닫혀 있다. 이러한 공간은 현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담지 못할 것이다.

한편 앞마당의 공간은 도시를 향해 열려 있다.

Structure



■ 내력벽
비 내력벽

전체적인 구조는 벽식 구조이다. 이 구조로는 벽으로 내부공간을 한정하기 때문에 효율인 사용이 불투명하다.

Skin

벽식 구조로 된 건물의 창을 벽식 구조에서 구현 할 수 없는 미형을 창의 프레임을 이용하여 표현하려고 하였다. 이렇게까지 건축가는 이 입면들에 신경을 쓴것 같다.



8-5 각 조별 작품 : C-5조



흔적 ... 그리고
드쓰기

그것 무언가 관찰하고 생각 애도
있느니...
여러분 계급의 솔문을 지나오는
여행에서는 서길마다 문에
비치고 있다.

여. 진정이 드리운 여행에 그려보니
정말로 여유가 있는 편이었다.
여기엔 전쟁터에서는 아제를 찾았고
그리고 전쟁터 그리고 서길마다 문에
관찰하고 오직 그 티끌같다는 예상한
것도 무언가 드리운 여행이다.
그리고 그 티끌같은 예상은 예상이었다.

여기에서 전장을 떠나는 여행은 예상이었고
그리고 그 티끌같은 예상은 예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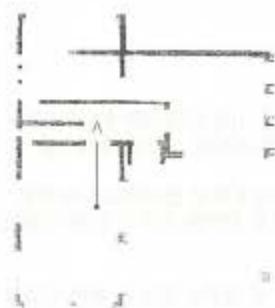
그리고...
그들은 서길에 서면서 이내 전쟁터에서 전장을
여기에서 나에게 그려보니 진짜 관찰이었다. 그들이
무언가 드리운 여행이다. 그 티끌같은 예상이었다.

그 거리 그림... 그 티끌같은 예상이었다.



누군가의 마음속에 조금씩 얹어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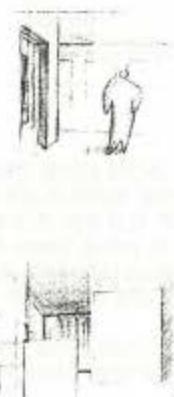
드쓰기



18 평면도



28 평면도



3



모형
사진



망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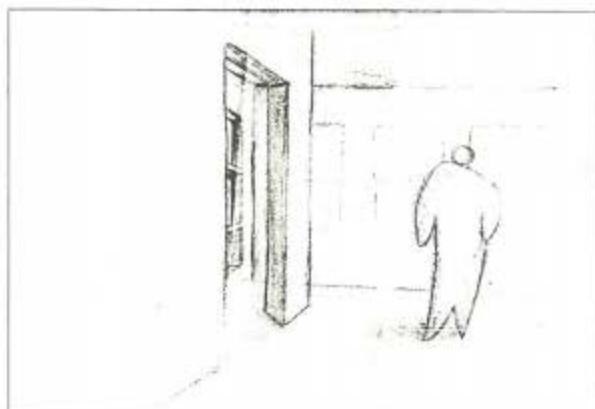
망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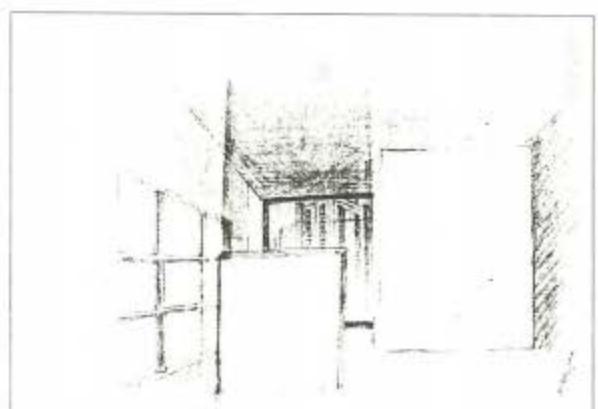
우측면도

□ C팀 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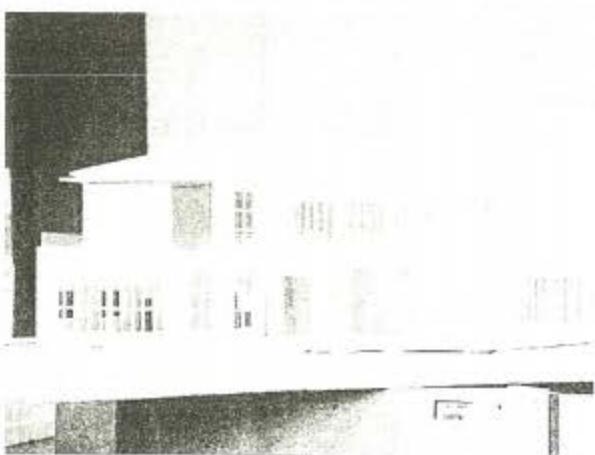
- 작품명 : 혼적... 그리고 덧쓰기
- 크리틱 : 이윤하, 이승용
- 퓨 터 : 이정근, 이난표
- 팀 원 : 김봉익 (한남대)
박진영 (건양대)
김성은 (공주대)
김병진 (목원대)
김은아 (한남대)



투시도1



투시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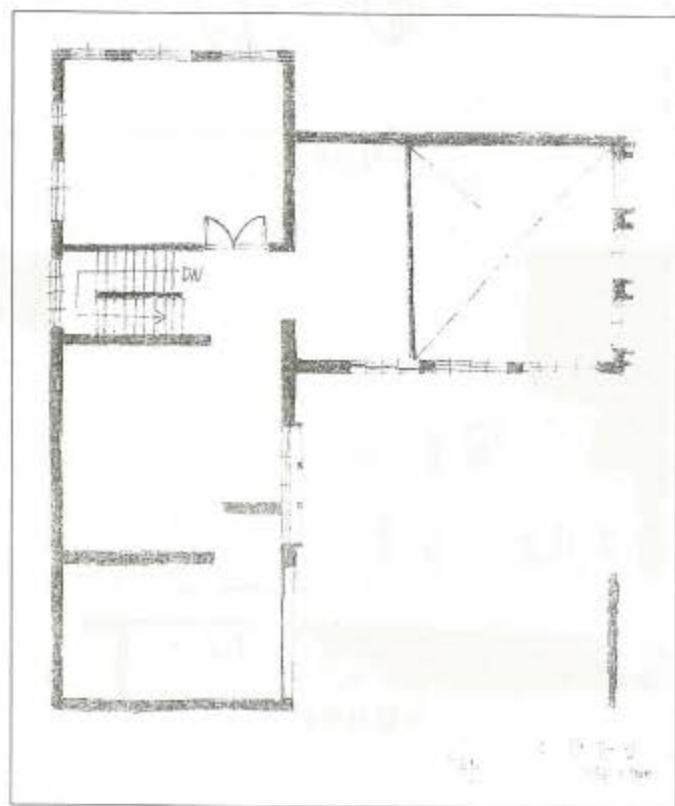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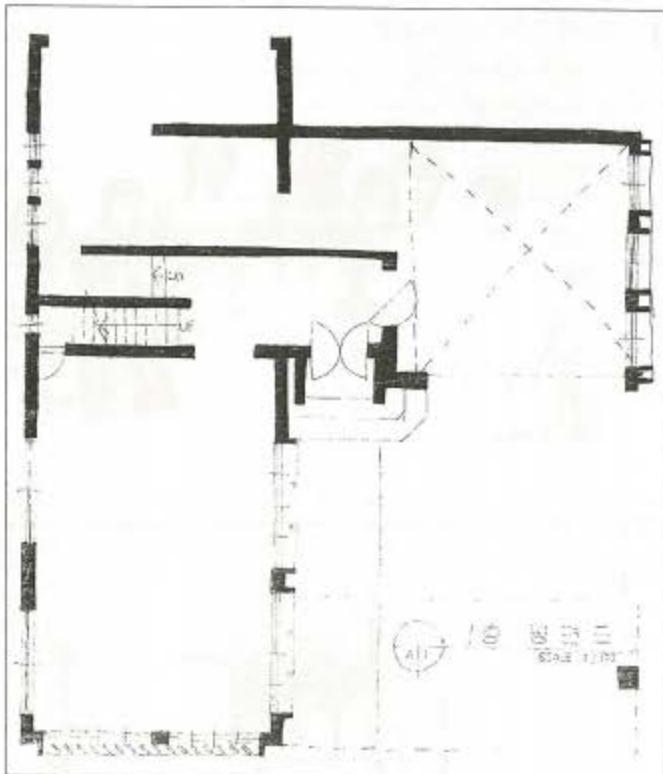


모형사진1



모형사진2

□ 개념도



□ 작품 설명

1. 작품의 대상

1950년대 농산물 검사소

2. 흔적과 덧쓰기에 관하여

1950년대 농업이 중심이 된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당시의 사회적 의미가 있는 검사소는 보존의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현 농수산물 검사소는 주변 도심의 상업건물들 속에 파묻혀 그 의미가 잊혀져 가고 있다.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건축인들에게도 검사소는 기억속에 중요하지 않는 의미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리노베이션을 통하여 그 존재의 가치를 되살릴 필요가 있다.

3. 어떻게 되살릴 것인가?

내부공간은 시대를 반영할만한 특별한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다. 내부공간이 현 시대에 볼 수 없는 기능의 의미를 담고 있지 않으며 역사성이라는 개념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판단이 되었다.

그러한 반면 입면의 형태들은 보존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다.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체의 특징이 입면에 그대로 나타내어지고 있고, 빛을 실내로 유입시키기 위한 루버의 설치 그리고 관공서로서의 입면 등의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입면을 중요한 흔적이라고 생각하고 남기기로 하였다. 따라서 내부공간들은 필요에 의해 삭제하거나 더하여 되살리기로 결정하였다.

4. 흔적과 덧쓰기 과정의 발전과정.

작품을 분석하면서 흔적의 당위성에 대해 고찰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흔적의 당위성과 덧쓰기의 타당성에 대해 많은 토론이 있었다. 결국 건축은 쓰여짐으로서 그 가치가 나타난다는 결론에 덧쓰기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했으나 덧쓰기의 과정에서 다시 보존에 중점을 두자는 의견이 거론되면서 흔적이나 덧쓰기나는 원론적인 토론과정 다시 반복되었다. 대화속에서 1층의 기존의 현관으로부터 2층까지는 흔적의 되찾기를 위한 내부공간을 체험하는 과정으로서 그리고 정면부와 마당의 연계를 통한 1층 부분은 시민들에게 열린 pass의 요소를 도입한 휴식의 공간을 제공하자는 의견으로 마무리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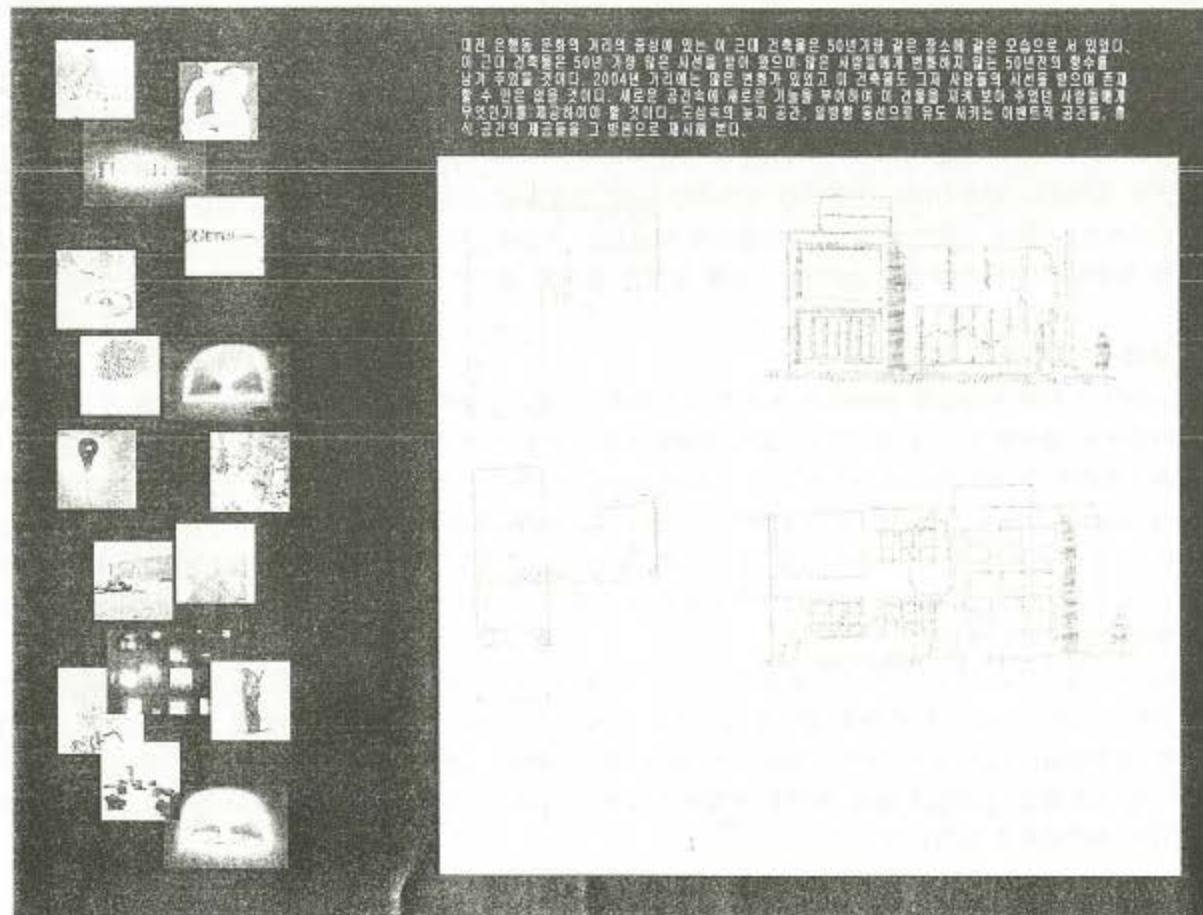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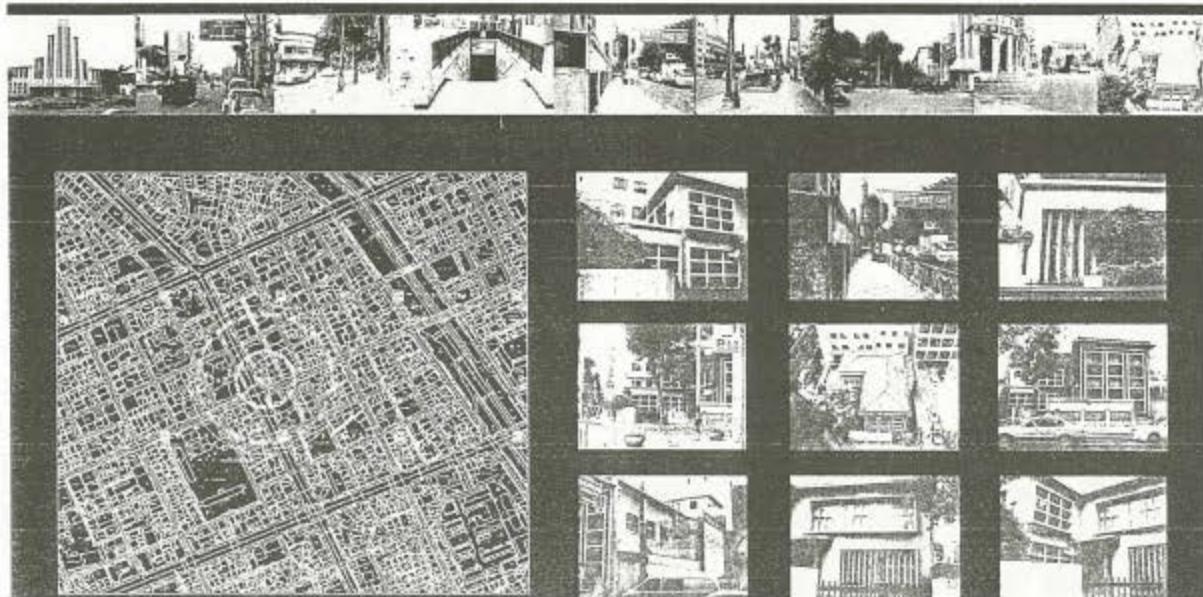
5. 구체적인 덧쓰기 과정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pass라는 요소를 도입하였다. 부지가 모서리에 면하여 기능이 활발할 수 있는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묻혀있고, 또한 은행동으로의 유입과 은행동의 단순한 소비문화에서 나타난 열린 휴식공간의 제공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pass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장소에 생명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pass는 단순히 길이라는 통과의 의미보다도 건물 사이를 통과하면서 정적인 부분에서의 쉬어갈 수 있는 의미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단순한 개념의 접근이 아닌 보다 더 적극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다. 쉬어가거나 거쳐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내부의 공간과 연결이 되면서 역사적인 건축으로서의 자취를 사람들은 무의식중에 느끼게 된다.

따라서 쉬어가고 더 나아가 머무르고 또는 거쳐서 통과하는 과정들이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건축에 생명을 넣어주고 사람들은 서서히 50여년의 시간만이 지난 단순한 콘크리트 덩어리를 사용하면서 인식이 변화하게 된다. 결국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다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수반하게 되는 발전을 거듭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진정한 흔적과 덧쓰기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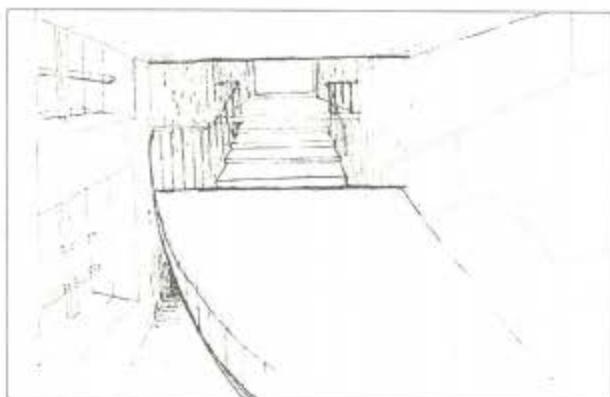
각 조별 작품 : C-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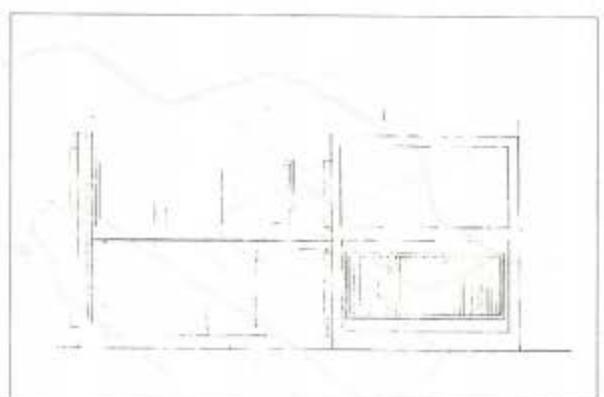
대전 은행동 문화역 거리의 광장에 있는 이 근대 건축물은 50년가량 같은 꽃소를 같은 모습으로 서 있었다.
이 근대 건축물은 50년 가량 같은 시선을 받아 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변奏하지 않는 50년 전의 형상을
남겨 주었을 것이다. 2004년 가리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고, 이 건축물도 그자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존재
할 수 있는 않을 것이다. 새로운 공간속에 새로은 기능을 부여하며, 그 건물을 지켜 보며, 주었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찾으려야 할 것이다. 도상속의 빛과 공간, 일정한 출신으로 유도시키는 이벤트적 공간을.
借此 공간의 재구성을 그 빛으로 재시작 본다.

□ C팀 6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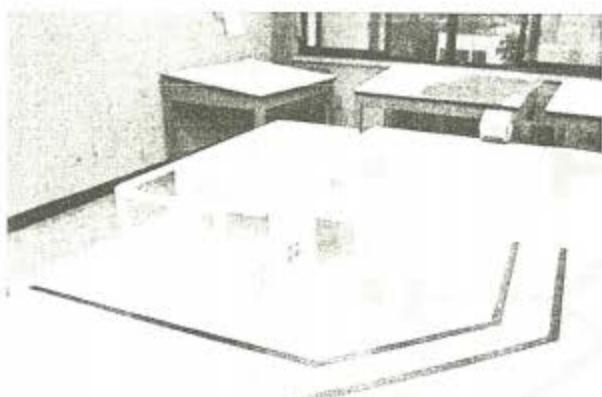
- 작품명 : 이끌림
- 크리틱 : 이윤하, 이승용
- 퓨 터 : 김환식, 조도연
- 팀 원 : 김정현 (한남대)
김수연 (중부대)
유아영 (공주대)
장창현 (목원대)
서자현 (영동대)



투시도1



투시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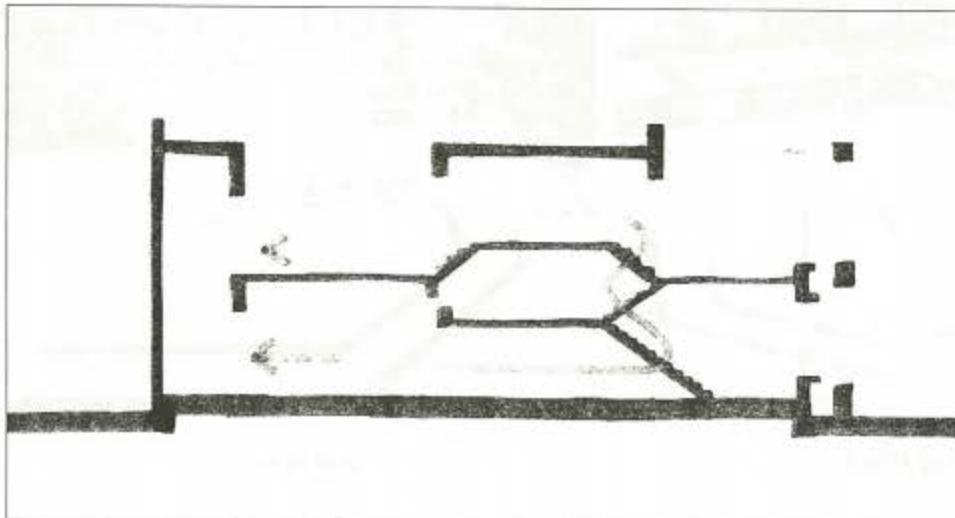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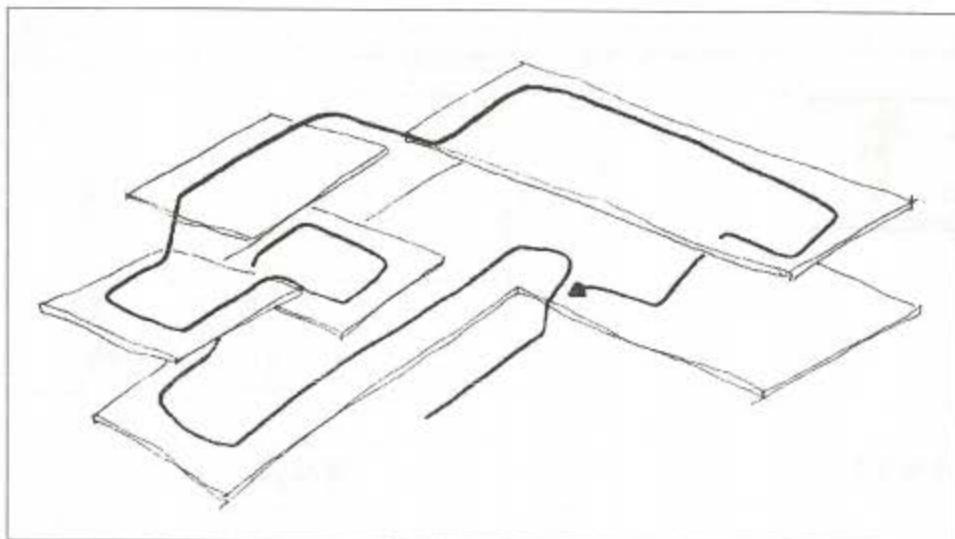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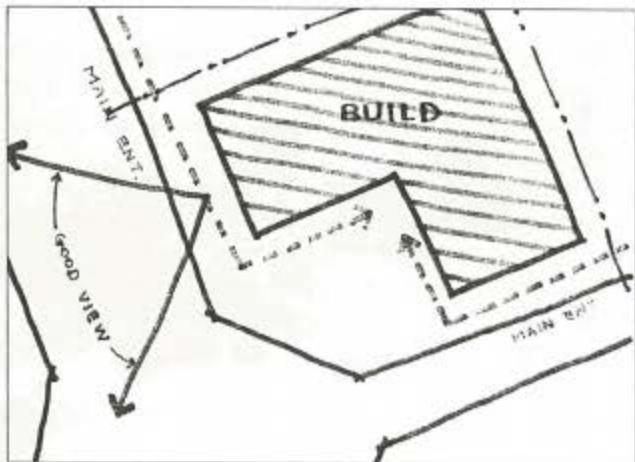


모형사진1



모형사진2

□ 개념도



□ 작품 설명

대홍동 농산물 검사소

왜 보존해야 하는가?

건물이 가진 질긴 생명력(50년 동안이나 주변건물에 비해 사라지지 않고 버텨왔음)

대전의 역사의 한 부분을 보여줌

Base Concept

- 가장 잘 재생하는 것은 가장 잘 활용하는 것

가장 잘 활용하려면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하는 이끌림이 중요

- 이끌림을 위한 요소들...

① 건물의 흔적, ② 감동을 주는 공간, ③ 문화공간

- 디자인 컨셉에 적용해 건물이 최대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건축물이 되게 한다.

Design Concept

1. 흔적은 사람들의 기억과 함께 있다고 보았고 기억에 가장 많이 인식되었을 부분이 위계가 더 높다고 보았다.

그러면 흔적의 위계가 가장 높은 곳이 어디인가?

건물에 국한해서 보았을 때 오랫동안 사용되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와 평면적인 요소보다는 건물의 옆을 지나면서 보았을 입면이 가장 많이 기억에 남았을 것이라고 보았다.

우리 조는 흔적의 위계가 가장 높은 곳만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 건물의 생명력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았고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사라져도 입면의 요소는 꼭 남아야 한다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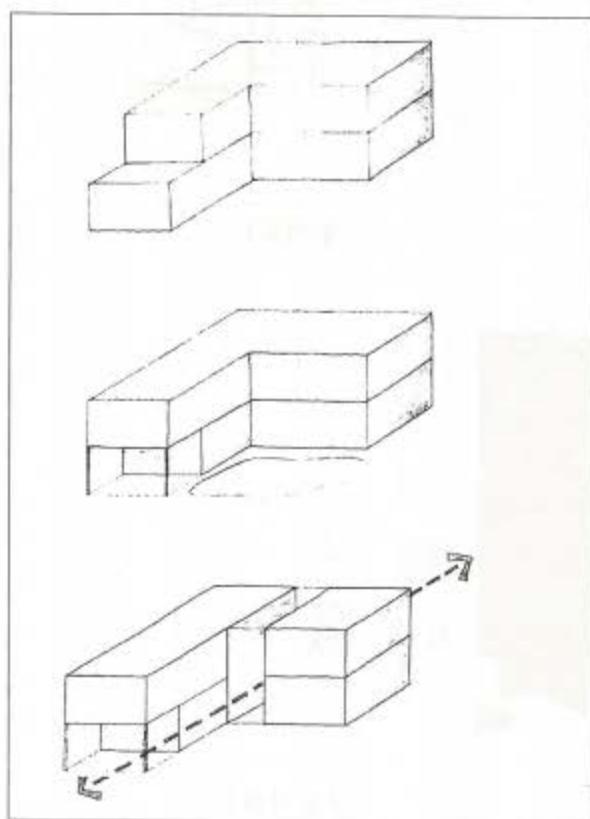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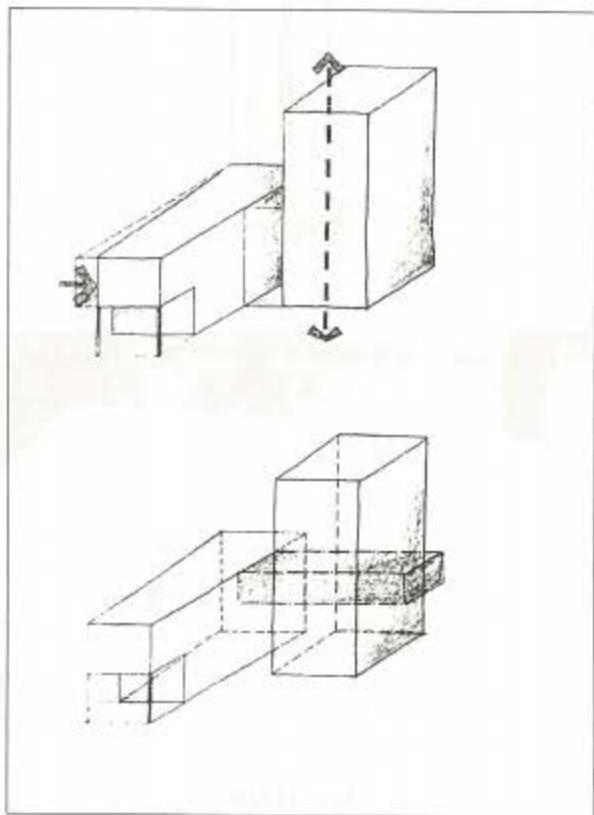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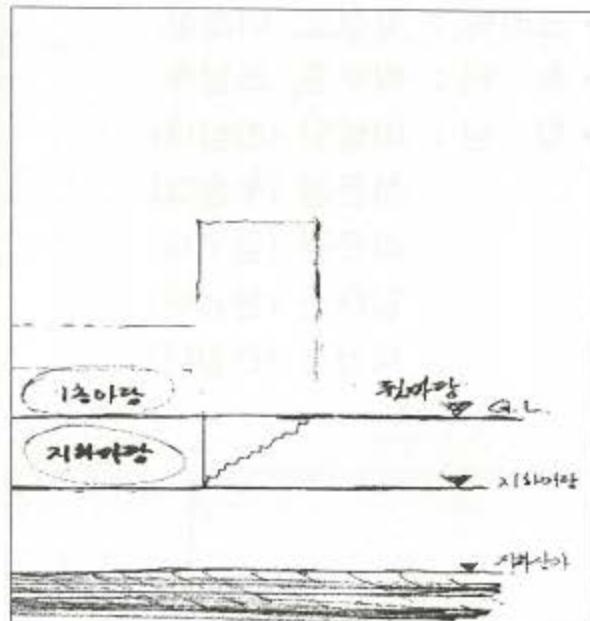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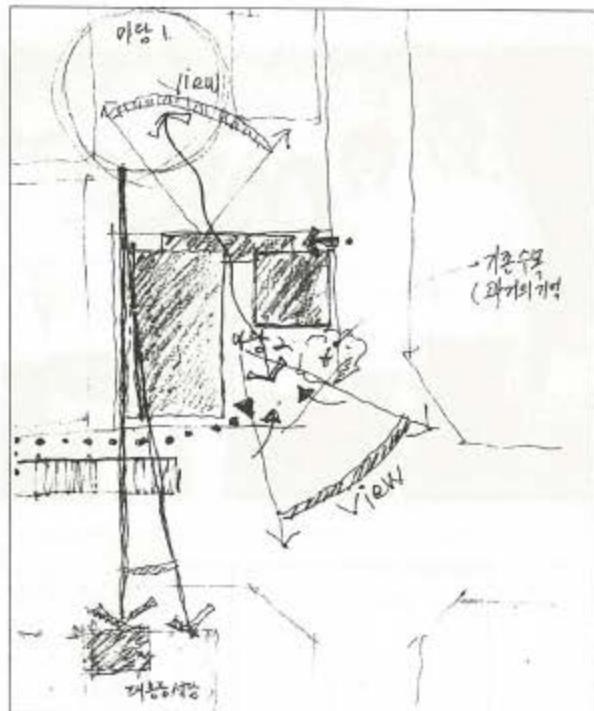
입면의 요소와 이끌림...(서측면 1층을 공간과 사람들을 이어 주는 차원에서 개방을 위해 유리벽으로 열고 무거워 보이는 매스를 디자인 적으로 띄워주었다. 이는 또한 기존 건물을 돋보이도록 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2. 공간과 사람들을 이어주는 차원에서 내부 공간에서도 포인트가 필요했고 포인트를 주기 위해 감동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서측 테라스 뒤의 레벨을 3개 층으로 나누고 테라스 전면 부분에 프레임을 두어 프레임을 통해 성당을 하나의 그림처럼 감상하게 하고 남측 2층 슬라브를 부분 삭제해 오픈공간을 둔 다음 이 요소들을 동선으로 연결해 건축적 산책의 포인트로 삼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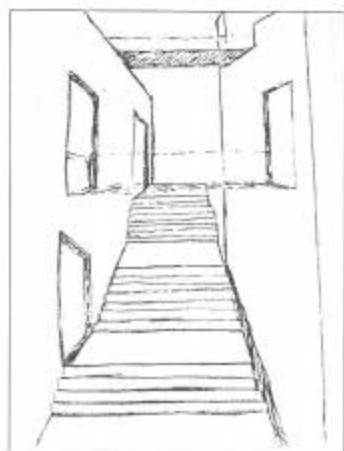
3. 마당을 자연녹지로 활용하여 상업적 공간이 난무하는 도시에 자연적 요소를 도입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요소로 이용한다. 또한 건물 자체를 자연녹지와 연계된 공간으로 활용한다.

□ 개념도



D팀 8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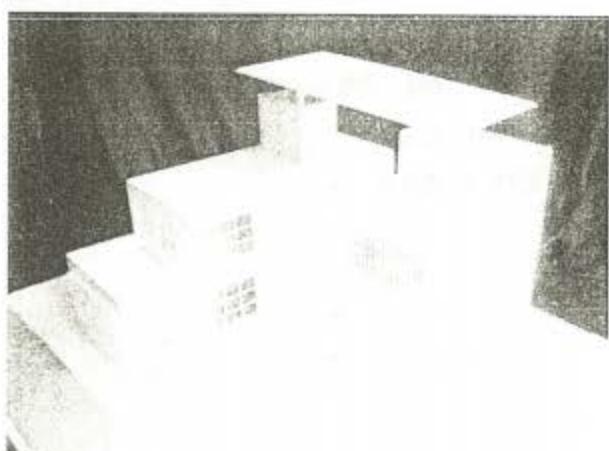
- 작품명 : 청소년 문화시설
- 크리틱 : 길성호, 이호정
- 퓨 터 : 서동규, 서명규
- 팀 원 : 손지혜 (한남대)
전성진 (건양대)
박구해 (영동대)
문세영 (한남대)
윤선아 (한밭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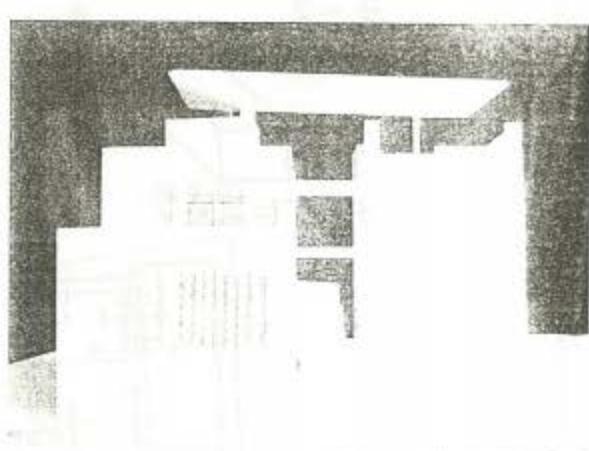
투시도1



투시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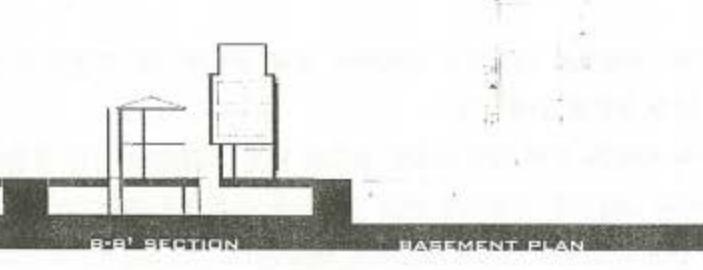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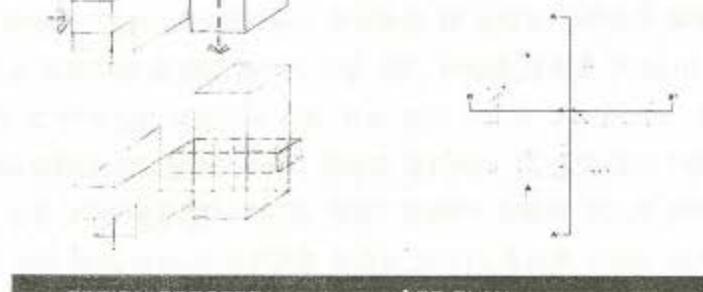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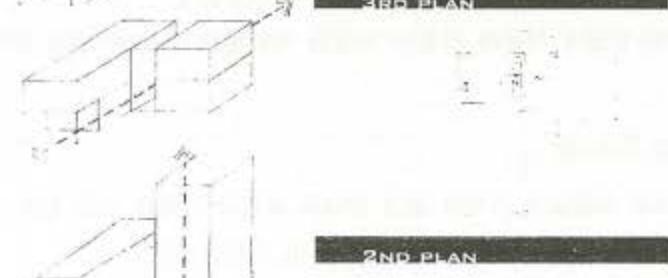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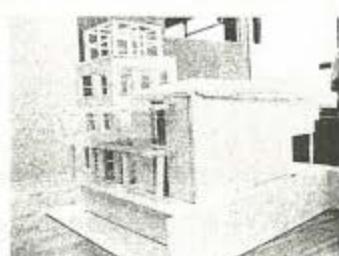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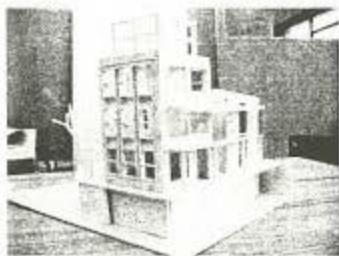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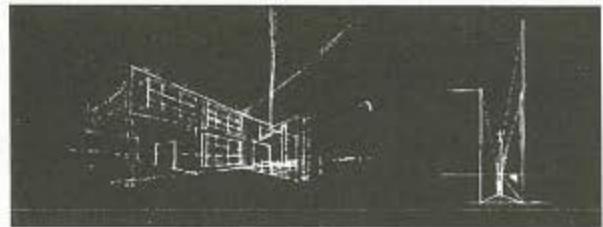
모형사진1



모형사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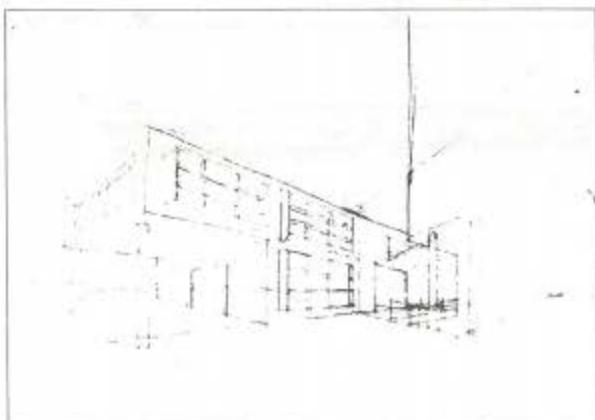
8-7 각 조별 작품 : D-7조

그 섬에 가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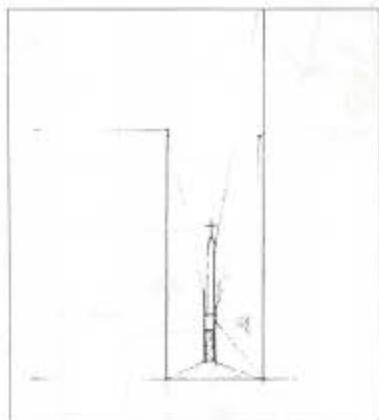


□ D팀 7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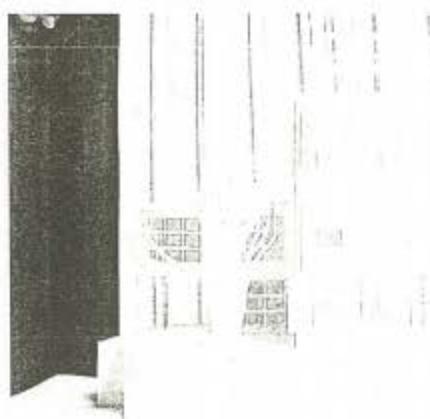
- 작품명 : 그 섬에 가고 싶다
- 크리틱 : 길성호, 이호정
- 튜 터 : 박수훈, 조항우
- 팀 원 : 이병일 (한남대)
전은경 (우송대)
이은경 (중부대)
김대진 (한남대)
박성호 (건양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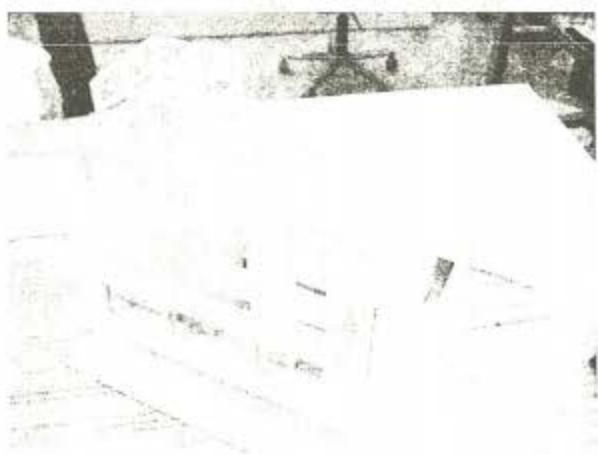
투시도1



투시도2



모형사진1



모형사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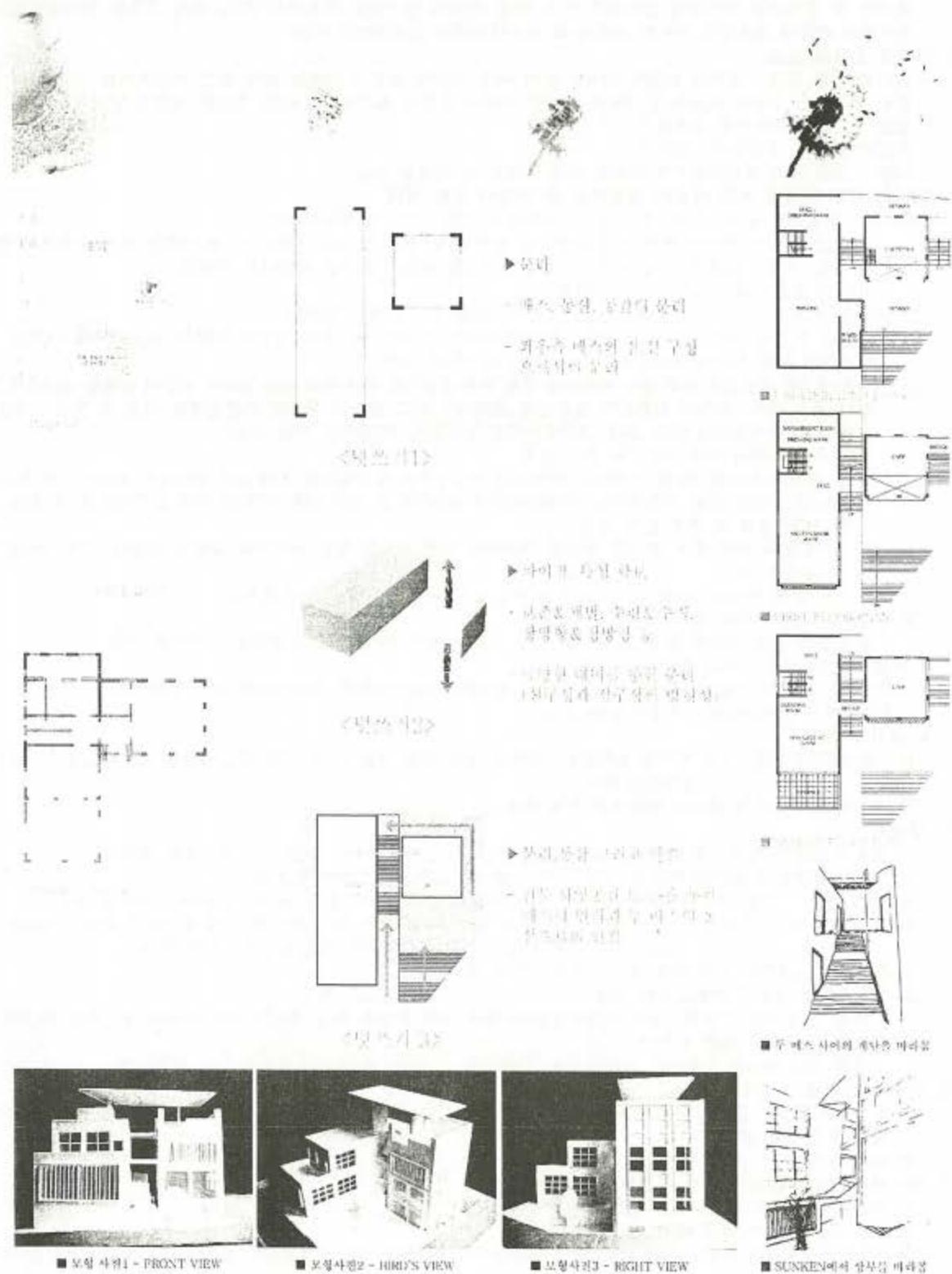
□ 작품 설명

제94주 주제: 디자인 09

1. 작품의 대상 - 1952년 건립된 농산물 검사소
2. 현재 상황과 개선 방향
 - 역사의 한 흔적으로 구도심에 입지하여 현재 보존, 단절의 공간으로 존재하고 있다. 쉽게 기존을 철거하는 현재의 도시적인 성향과 희소성의 가치를 생각할 때 리노베이션이 필요하다고 여김.
3. 선택된 흔적의 요소
 - 남서측 입면 형태 : 과거와 현재의 차이로 인해 내부 공간의 용도가 약화된 반면 입면 요소에서는 그 당시에 보기 힘든 콘크리트 구조나 남서측 입면에서 반영된 루버나 브릿지 슬레이유의 사용 등으로 멋부린 남서측 입면에 소중함을 인지하여 중요도를 부여했음.
 - 보도의 통행인 시각에서의 이미지
 - 나무 - 오랜 세월 유지되었기에 주위와 다른 나무로 써 가치를 지님.
4. 50년의 시간 경과에 따라 새로이 해결해야 할 건물의 일반 개념
 - 접근성 :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변 대지로부터의 동선의 접근성을 확보하려함.
(기존 대각선 방향의 전면 진입 마당으로 접근+새로 생긴 지하보도로부터의 접근+후면 주차 부지로의 접근)
 - 1). 전면 진입 마당의 접근성: 서측 매스의 1층 부분과 2층 테라스 공간을 반전시켜 구성함.
 - 기존 대각선 방향->서측 성당의 진입로
 - 2). 과거와 현재의 교통수단의 변화로 인한 접근성(뒷마당 확보 전체의 당위성)
 - 과거의 보도에 의한 이동보다 현재는 차량의 이동이 많아짐으로 주차 공간의 확보의 필요성(기존 대지는 도로로부터의 차량 진입에 어려움->후면 주차장부지로부터 고려)
 - 주변 대지의 상황으로 보아 동측 베란다에 현재 주차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의 있음을 인지하게 됨.
 - 후면 주차 대지: 주어진 건물로의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공간과 중요한 연관관계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임.(후면 주차부지의 매입 고려, 후면주차부지 뒷부분의 세3공지로 확장 고려)
 - 후면 주차 대지의 이용 가능성과 파급 효과 :
 - a. 빙 대지가 지하공간으로 주차장이 확보되고 지상부분을 뒷마당으로 확보되어 보다나은 공적인 공간이 구성된다면 인접해 있는 애견센터와 카페테리아의 상업성에도 보다 많은 이익이 되어 상부상조할 수 있는 공간이 확장, 공유 및 차후 병합 고려.
 - b. 지하보도와 후면 주차 부지와 동선을 연결하여 동선 제시와 건물 사이로의 대홍동 성당의 극적 view를 가지는 공간을 제시
 - c. 후면 주차 부지를 활용하는 건물 입면 세계를 통한 주차 부지의 공간의 질체고
 - 3). 지하도와 주차 부지의 연계
 - a. 건물의 북측 공간에 즐고 긴 틈새의 외부 계단을 제시하여 지하도와 후면주차 부지를 연결
- 연결 - 전면 진입 부지와 후면 주차 부지의 연결
 - 1) 적극적인 이동의 위해 두 매스를 분리-> 동서 장방향의 매스(동적)와 정육면체의 매스 형성(정적)
 - 2) 뒷마당에서 앞마당으로의 이동시 view 형성
- 공간의 확장
 - 1) 지하 마당의 활용 : 1층 바닥의 불투명한 유리로 인해 빛을 유입시키고 기존 오동나무를 1층 마당에서 지하로 옮김, 지하마당 임시.
 - 2) 남측 매스의 수직적 공간의 확장으로 볼륨 확장
5. 덧쓰기
 - 1). 동측에 덧붙인 매스 : 투명한 매스로 두 매스를 연결하는 통로 제시, 후면 주차 부지로의 조망 제시.
 - 2). 분리된 장방형과 정방형 매스의 입면 구성 : 남서측 입면을 모방하여 덧붙임.
 - 3). 매스 반전 : 기존 테라스 부분의 1층 매스를 2층으로 이동, 1층의 진입 동선의 유도와 접근성을 확보
 - 4). 북측의 틈새 공간 형성 : 지하도에서 후면 주차 부지 공간으로의 동선 유도와 함께 틈사이로 보이는 대홍동 천주 교회, 근대 건물의 극적인 시야 확보, 두 건물 사이의 시각적 연계
 - 5) 뒷마당과 대응되는 동측 매스 추가 : 통로의 기능 부여,
 - 6). 지하마당의 구성과 지하도로의 형성
 - 전면 진입 마당의 오동나무를 지하부분으로 옮겨 대지 주위에 있는 플라타너스나무와의 높이차를 형성하고 지하부분으로의 시선을 유도함.
 - 전면 진입 마당을 전체적인 투명한 유리 블럭으로 형성하여 지하 마당으로의 빛을 유입시킴
6. 용도와 쓰임새 : 공방
 - 1) 장방향의 매스 : 공방과 지하 소극장 형성, 대전 지역향토 공예품 공방 및 전시 견학시설(은비녀, 굽무, 장신구, 심자수 등 민예품 공방)
 - 2) 남측 매스 : 전시 · 판매시설
7. 리노베이션으로 변화된 것과 제시되어야 할 부분
 - 1) 접근성 향상을 통한 근대 건축물의 활용도의 제고
 - 2) 주변 공간과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
 - 3) 대홍동 성당으로의 새로운 시야 확보, 후면 주차 부지의 존재의의 제시 설계안에서 동측 부지의 확장 필요성을 제시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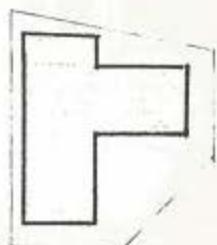
각 조별 작품 : D-8조



□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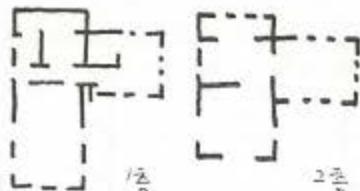
<과정 스케치>

1. 흐적



- 농산물 검사소 (대전 충남 지사)
- 대屯동 위치
- 기존 건물의 인식

2. 읽기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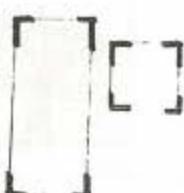
구조적 특징

좌측 면스의 선 구성

우측 면스의 점구성

3. 덧쓰기 (RENOVATION!!)

·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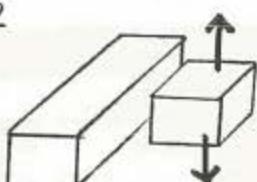


분리

Mass, 질량, 공간 등 분리

좌 우측 면스의 면·선 구성으로서의 분리

·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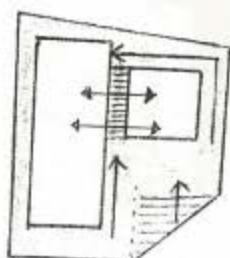


차이점 특성 확보

(보존과 개발, 수령 & 수직, 상비향 & 전방향 등)

- 선성의 방향성 > 극명한 대비를 통해 분리
점수성의 상향성

· 3-3



분리·통합 및 연결

면스들의 린을 통한 인식 및 동선으로서의 연결

□ 작품 설명

▷ Propos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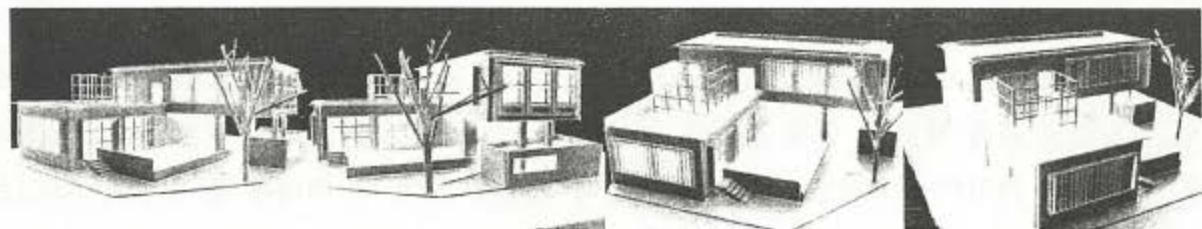
대전 구도심의 중심가로에 위치해 있는 '옛 농산물 검사소'는 50여 년이라는 시간 속에 대전 시민과 함께 해왔다. 현재 건물은 전면에 형성되어져 있는 대로를 기점으로 구분되어지는 문화의 거리와 문화예술의 거리의 중간에 위치에 있다. 이 지역은 문화의 거리라고는 지정되어 있지만 문화를 뚜렷이 내포하기보다는 다분히 상업적인 특성이 강한 지역으로 특징지어지고 있다. '옛 농산물 검사소'는 주변환경 속에서 상업성이 배제된 시설로서 이 지역의 주 이용 계층인 청소년에 대한 문화시설을 제한함으로서 문화의 거리의 기반 될 수 있기 바란다.

▷ Design Proce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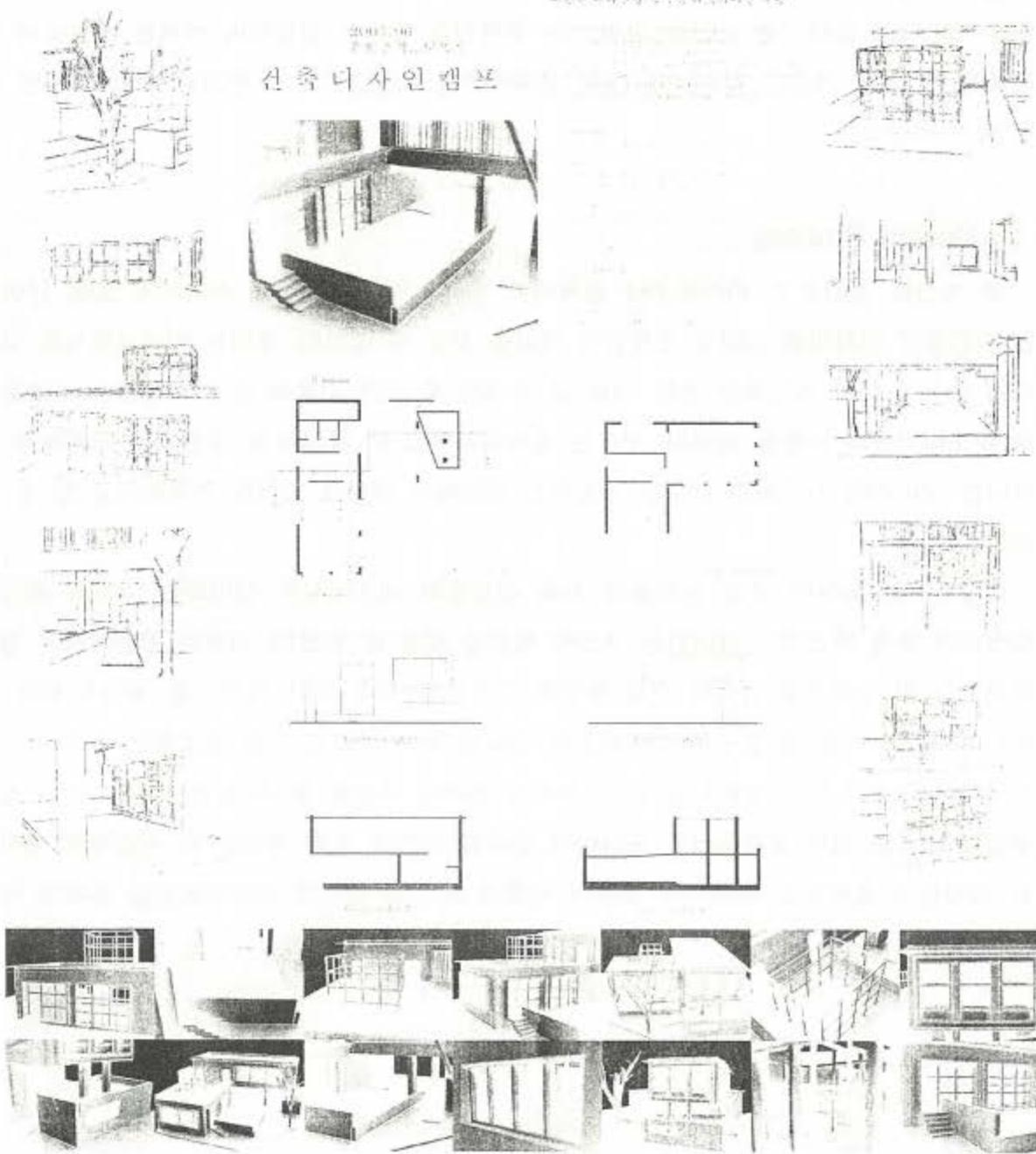
'옛 농산물 검사소'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우리에게 인식되어온 이미지와 50여 년이라는 시간동안 한자리에 그대로 존재함에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우리는 인식으로서의 이미지와 동시에 오랜 시간동안 존재 가능 할 수 있도록 했던 건물의 원초적 근원인 구조로부터 리노베이션의 방향을 정했다. 구조는 움직이지 않으며 절대적인, 표면으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기에 시간성과 결부된 구조라는 측면에서 건물에 남겨진 기억이라고 할 수 있겠다.

평면에 구성되어진 구조 분석결과 좌측 장방형의 매스에서는 선이라는 구조적 특성이 있었으며 우측 매스에는 점이라는 구조적 특성을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평면에서의 장방형과 정방향 구성으로 인하여 더욱 뚜렷이 구분되어지고 있다. 또한 1층 계단식 벽의 벽에서의 분리와 1층 홀 입구와 좌측매스와 만나는 벽의 분리로 인한 요소들로 좌측 매스의 선구성은 더욱 뚜렷이 보여지고 있다. 하지만 평면과 구조로 볼 수 있었던 강한 선과 점의 구성은 건물의 외부 모습에서는 드러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우리는 옛 시간부터 가지고는 있었으나 표면으로 드러나지 못했던 건물의 특성을 현재의 리로베이션을 통하여 극명하게 드러내 주고자 한다.

8-9 각 조별 작품 : E-9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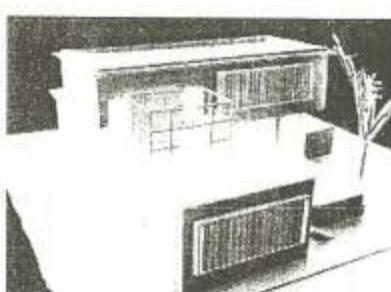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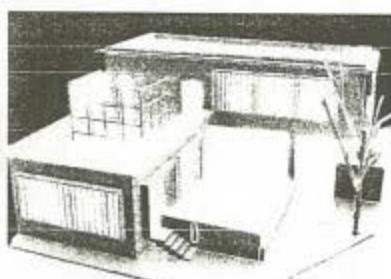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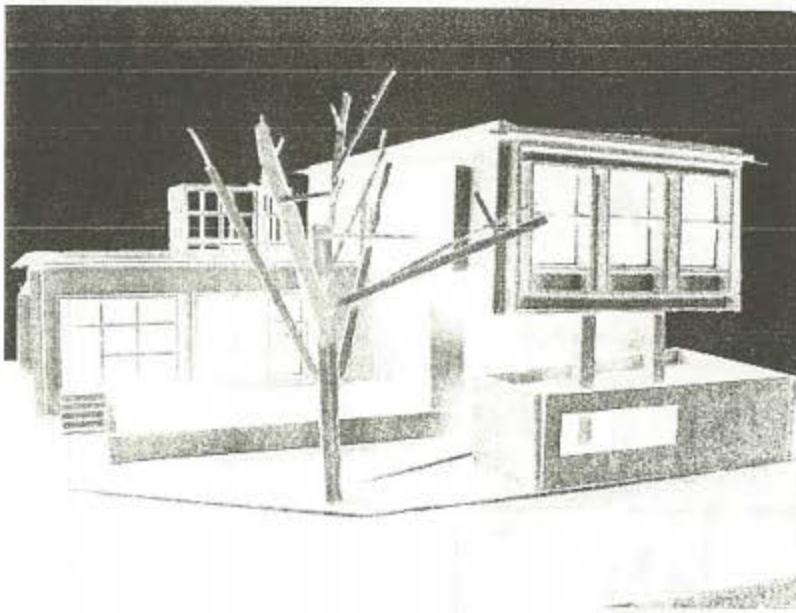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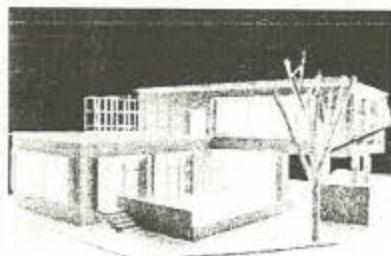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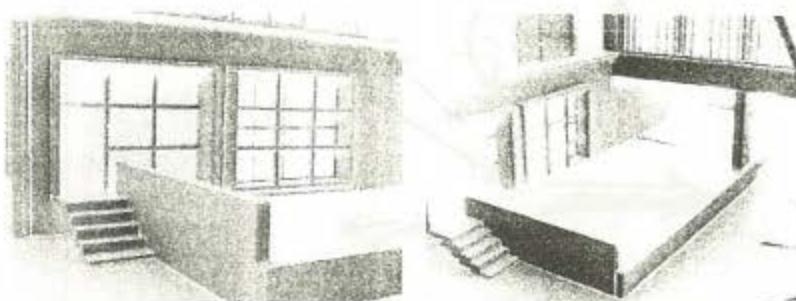


• 2000 年第 1 期 • 第 10 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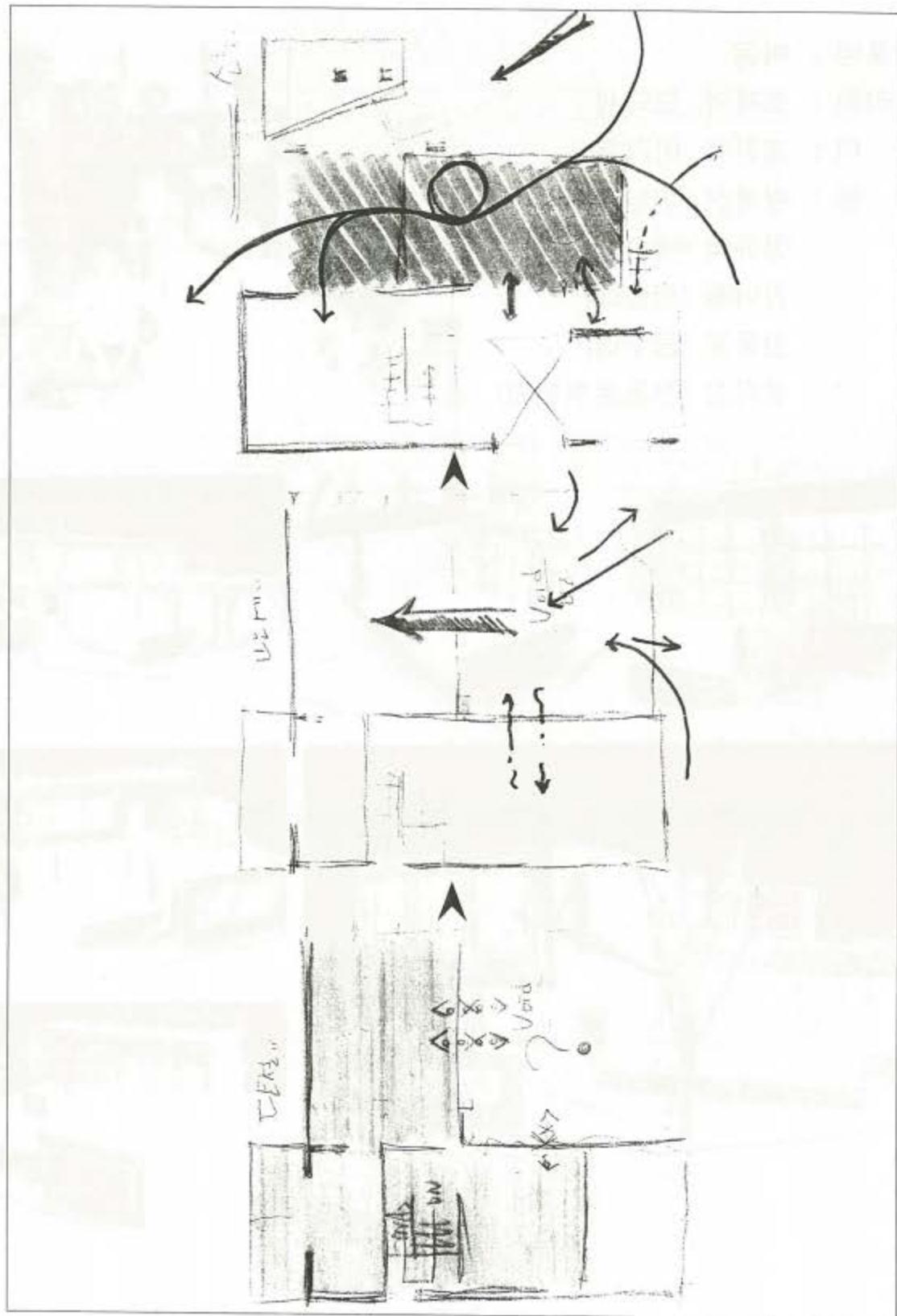
□ E팀 9조

- 작품명 : 비움
- 크리틱 : 조재억, 오덕세
- 튜 터 : 조한묵, 이기욱
- 팀 원 : 황혜선 (한남대)
정유석 (대전대)
김미용 (한남대)
한동훈 (공주대)
유희정 (전통문화학교)



모형사진

□ 개념도



□ 작품 설명

대흥동 농수산물 검역소 리노베이션 계획

대흥동 농수산물 검역소는 지난날 우리의 기억을 담고 있는 건축물이지만....

현재의 우리세대에게는 건물이 잘 인식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이지만 인식되지 못하는 건물....

그러한 현실에서 더 이상 그 건물은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다.

과거에는 우리의 삶을 담았던 추억의 건물에서 다시 오늘의 추억을 담는 작업....

그곳에 지금은 잃어버린 삶을 다시금 담아냄으로서....

추억을 부활시키고 건물에 다시금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 대지답사 : 우리에게 잘 인식되지 못했던 건물들을 보고 느끼다.
- 분석 : 형태적인 여러 요소들에 질문을 던지고 해석하다. 흔적을 발견하고 찾아가기 시작한다.
- 발견 : 그 집이 기진 요소 중에 마당과 테라스를 통한 비워짐에 주목하다.
- 재해석 : 마당과 테라스를 현대의 도시 속에서 재해석하다.
- 개념도출 : 위의 과정을 통해 도심 속의 여유 공간이라는 개념을 도출하다.
- 개념의 구체화 : 개념 속에서 비움이란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비우고 그 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다.
- 형태언어로의 표현 : 구체화된 개념을 형태적으로 표현하다.

< 도시속의 비워진 공간에 주목.... >

그렇다면 어떻게 비울 것이고 비워진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 현재 마당의 비워짐..

그 비워진 공간의 크기와 형태 등의 여러 가지 조건은 주변의 질서가 다른 가로 속에서 주변과 대응하는 데에 방법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다. 그리고 현재의 비워짐은 내부 공간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한 실정에서 지금의 비워짐이 시각적으로 동선상으로 열린 공간이 된다면 단지 이동통로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 앞으로의 비워짐..

그래서 비움의 방법에 시각적으로나 접근의 면에서 완전히 열린 공간이 아닌 시야적으로는 충분히 열리면서 동선상으로는 완전한 오픈이 아닌 어느 정도의 영역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막 들어오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도에 의해 경험시키고자 한다.

■ 비워진 공간의 변화.

(=비움의 확장)

지금의 비워진 공간은 내부와 외부와의 관계에 비추어볼 때 크기 형태 방향 등 여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지금의 마당에 도시속의 여유라는 비워짐의 의미를 부여하기에 협소하다고 판단. 비워진 공간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렇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얼마만큼의 확장이 필요할까? 란 질문 속에서 대지가 면하고 있는 대로와 소로의 성격을 비교해 비교적 차량 동선이 적고 가로수로 인한 조망이 대로보다 좋다고 판단한 소로쪽으로의 비움을 결정하였다. 더불어 우리가 확장하고자 한 공간 뒤에 지금은 비록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또 다른 비워진 공간을 함께 발견하고 우리의 비움과 관계를 모색해보기로 하였다.

(=비워진 공간의 변화)

그러한 과정에서 비움의 공간을 결정했다면 과거 비워진 공간과 우리 판단에 의해 새롭게 확장된 공간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변화를 준다면 어떤 방법을 통해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새롭게 생겨난다. 지금 이대로의 비워진 공간은 과거에 비해 단지 넓어졌을 뿐 사용자로 하여금 별다른 호응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비워진 공간 속에서 레벨을 변화시켜 보기도하고 그 공간과 내부 외부와의 관계를 함께 모색해 본 결과 비워진 대지와 면하고 있는 활동적이고 유동적인 도로와 대비되는 정적인 수공간을 계획하였다. 단지 비워진 공간에 물을 담고 그 공간의 레벨을 조정함으로서 지나가는 사람들과 내·외부 공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비워진 공간에 담겨진 물이라는 요소를 체험시키고자 하였다.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과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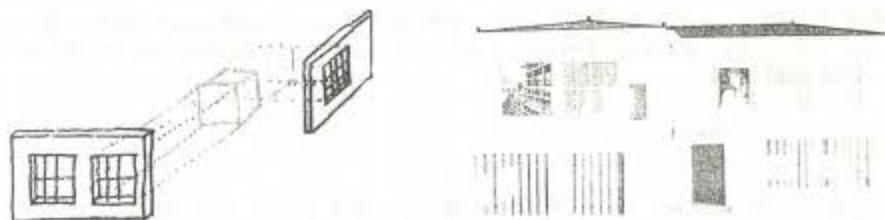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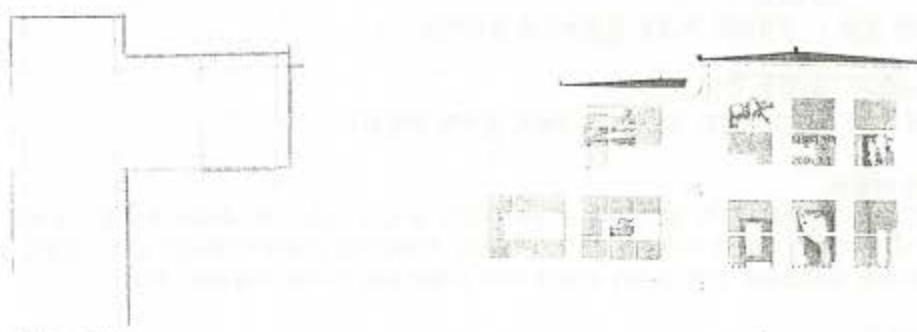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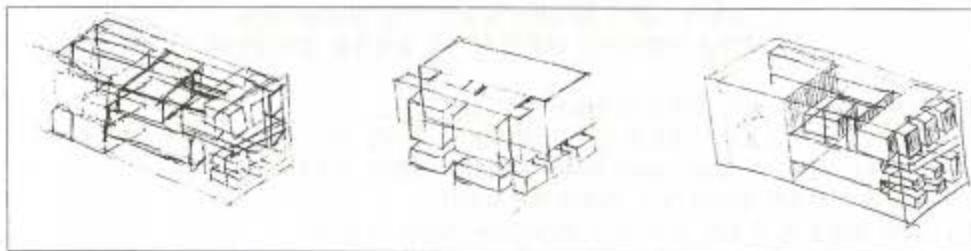
그러한 비워진 공간이 벽으로부터 자유로운 마당에 국한하지 않고 건물 내부에서도 열린 공간을 결합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더불어 비움과 함께 내부 공간에서도 각자 다른 감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고민해 보았다. 또 내부 공간에서 외부 비워진 공간과 또 다른 외부 공간으로의 서로 다른 방향과 시선을 통해 하나의 건물 속의 공간에서도 외부에 대한 여러 모습을 담아내고자 하였다.

8-10 각 조별 작품 : E-10조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

E-10조 김원 선문식 이선희 조은주 주용준

■ 개념스케치



■ 개념도

■ Display < on-line과 off-line의 연결
(매직글라스) 과거, 현재, 미래의 연결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 E팀 10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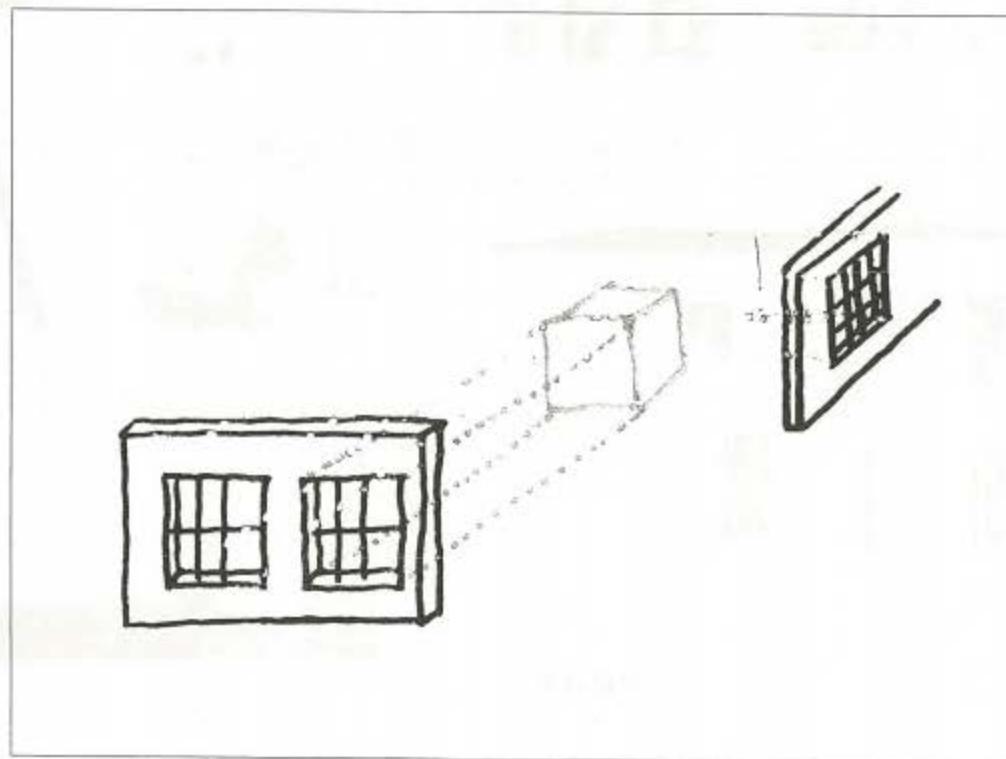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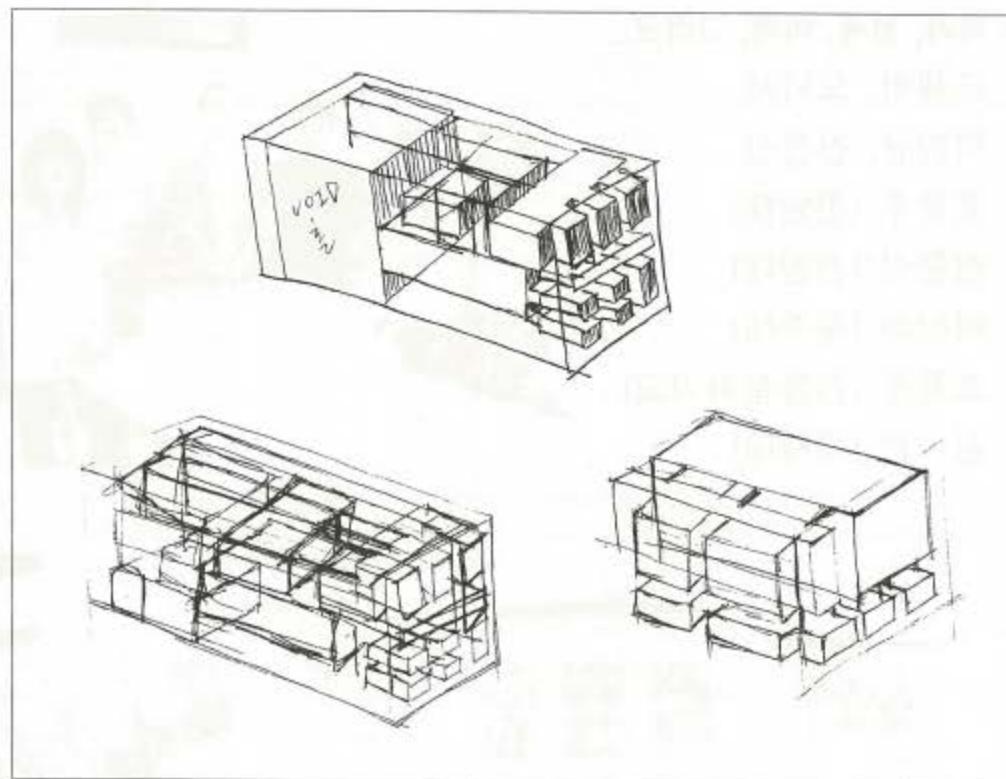
조경설계

- 작품명 :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 크리틱 : 조재억, 오덕세
- 퓨 터 : 박인규, 신진선
- 팀 원 : 조은주 (한남대)
신문식 (건양대)
이신화 (공주대)
조용준 (전통문화학교)
김 완 (배재대)



모형사진

□ 개념도



□ 작품 설명

흔적이란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인지하고 있었다면 그것이 변하더라도 그 안에서 그것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그것이 변화해도 변화를 느낄 수 없고, 또 그 안에서 흔적을 느낄 수 없다. 그것을 경험하고 인지하기 위해서는 community가 이루어져야하고 community가 활발할 수록 인지가 가능하고 흔적도 강하게 느낄 수 있다.

농수산물 검사소의 가장 큰 단점은 많은 사람들이 이 건물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건물을 알고 경험했던 사람들은 과거건물의 흔적을 느낄 수 있지만 이 건물을 인지하지 못했던 사람들한테는 흔적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다가올까.

우리는 두 가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존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방법과 또 하나 새로운 추억들로 채워 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기로 했다.

우선 농수산물검사소에서 찾을 수 있는 특징들을 찾아보았다. 정적인 창문, 아치형문, 마당, 테라스 등이 있었다. 그중에서도 창문이 주변상황의 향 문제나 실의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고려했다고 보았다. 또한 누구나 창문만 보아도 한국적 느낌과 옛 건물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는 창문을 흔적으로 남기고 특별한 흔적과 특성을 찾을 수 없는 내부 공간은 변화를 주어 우리가 새로운 흔적들로 채워가기로 했다.

창문을 흔적으로 남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나왔다. 창문의 프레임만 보존하여 창문 위치의 변화를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창문과 벽 모두 다시 말해 건물의 외피를 그대로 모두 보존하자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창문을 강조하기 위해 벽의 변화를 주는 것으로, 벽이 들어가서 창문이 튀어나와 보이게 하고 더 나아가 그 벽을 투명하게 하여 더욱더 창문을 강조하자는 것이다.

우리는 내부공간의 변화를 주어 예전의 흔적을 없앤다 해도 입면의 창문만을 통해 예전 공간들이 어떠했을 거라는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외피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창문을 흔적으로 좀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창문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안으로 돌출되어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다. 흔적을 단지 시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몸으로 만지기도하고 다가가기도 하면서 경험해 좀더 흔적을 잘 인지시키게 하였다. 과거의 흔적으로 만들어진 공간에 새로운 현대의 흔적 더 나아가 미래의 흔적들로 채워가는 형식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이 되는 것이다.

이때 선택할 수 있는 이러한 그리드 선은 다양하다. 평면상에선 그리드선 사이의 폭을 조절해 좁고 넓은 공간을 만들 수 있고, 단면에선 선사이의 간격조절로 높고, 낮은 공간을 만들 수 있다. 과거의 흔적인 창을 공간을 이용해 흔적을 남겼다면, 이러한 다양한 레벨과 크기의 공간에는 우리가 새로 남길 수 있는 흔적들로 채운다.

여기에 우리가 채울 수 있는 흔적은 유한할 수도 있고, 무한 할 수도 있다. 우리는 유한하기 보단 무한한 흔적들이 남겨지길 원한다. 흔적을 유한하게 하기위해 우리는 스마트 윈도우(애저글래스)같은 정보 시스템을 도입했다. 정보시스템을 이용해서 우리의 흔적을 영상물을 유리나 LCD등에 Display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는 on-line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영상, 자신의 사진 등을 이 공간 안에 흔적으로 남길 수 있고 off-line으로도 직접 이 공간에 흔적을 남길 수 있다.

이는 on-line, off-line 으로 시공간을 초월해 community가능한 공간을 형성한다. 이러한 시스템은 과거흔적이 남겨있는 건물, 흔적을 남기는 현재와 미래에 다시 여기를 올수 있다는 기약을 하는 미래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해준다.

우리의 건물은 건축적으로나 프로그램 모두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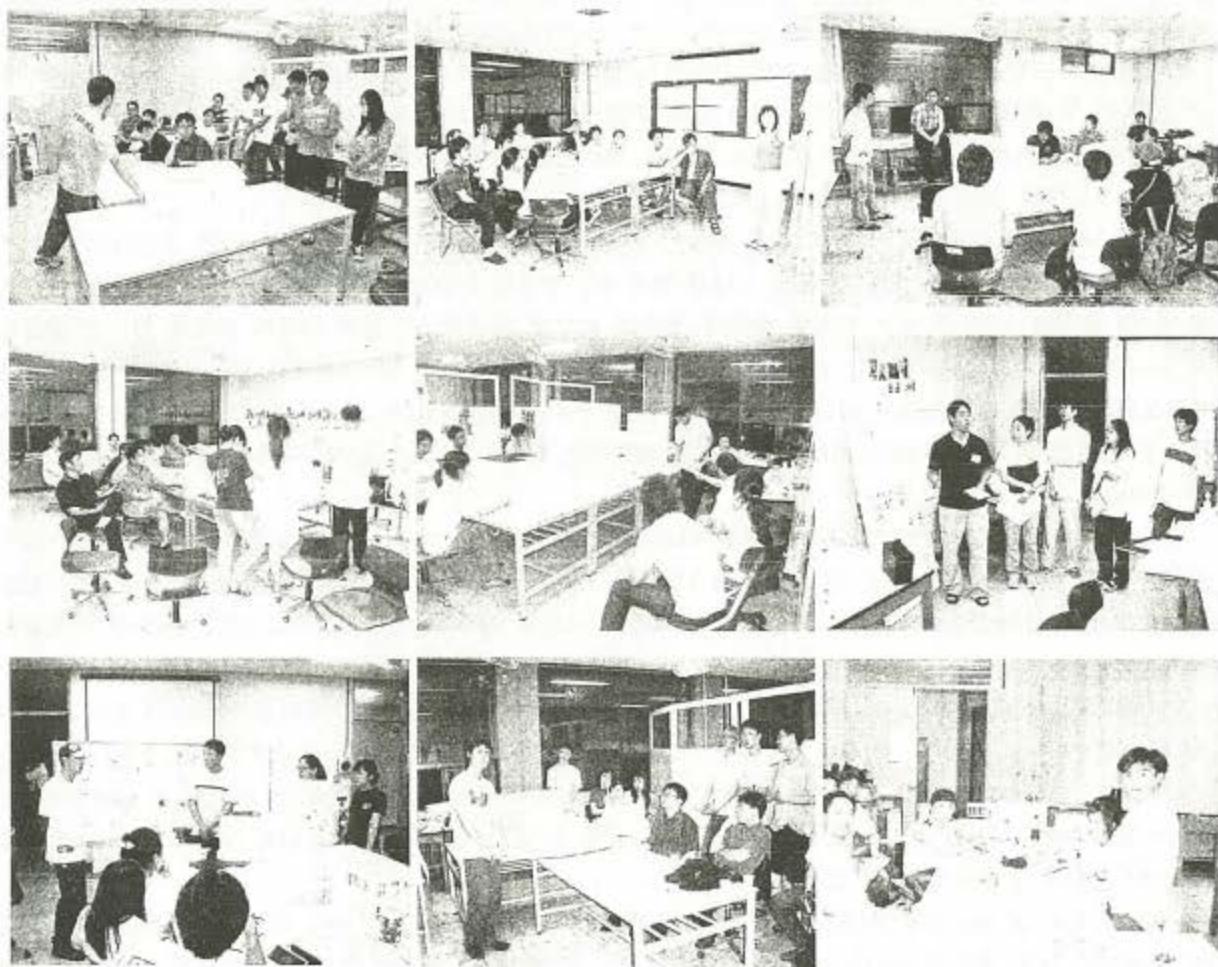
9

캠프활동

■ 입교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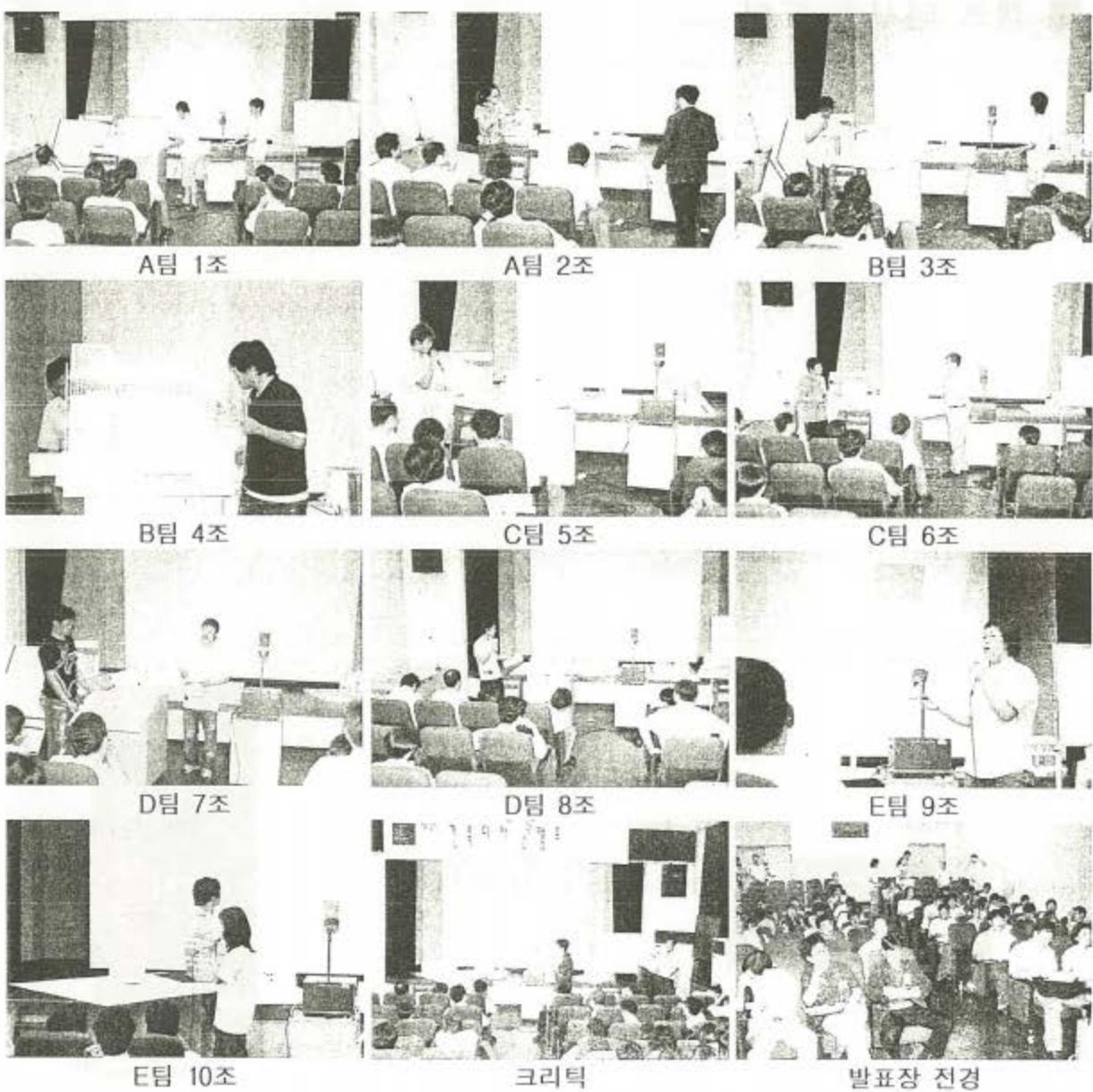
■ 조별 크리틱



■ 학생 대담



■ 공개발표 및 크리틱



■ 폐교식



■ 캠프 티셔츠 도안

16 Design Camp

전면

후면

16

Design Camp



전면 마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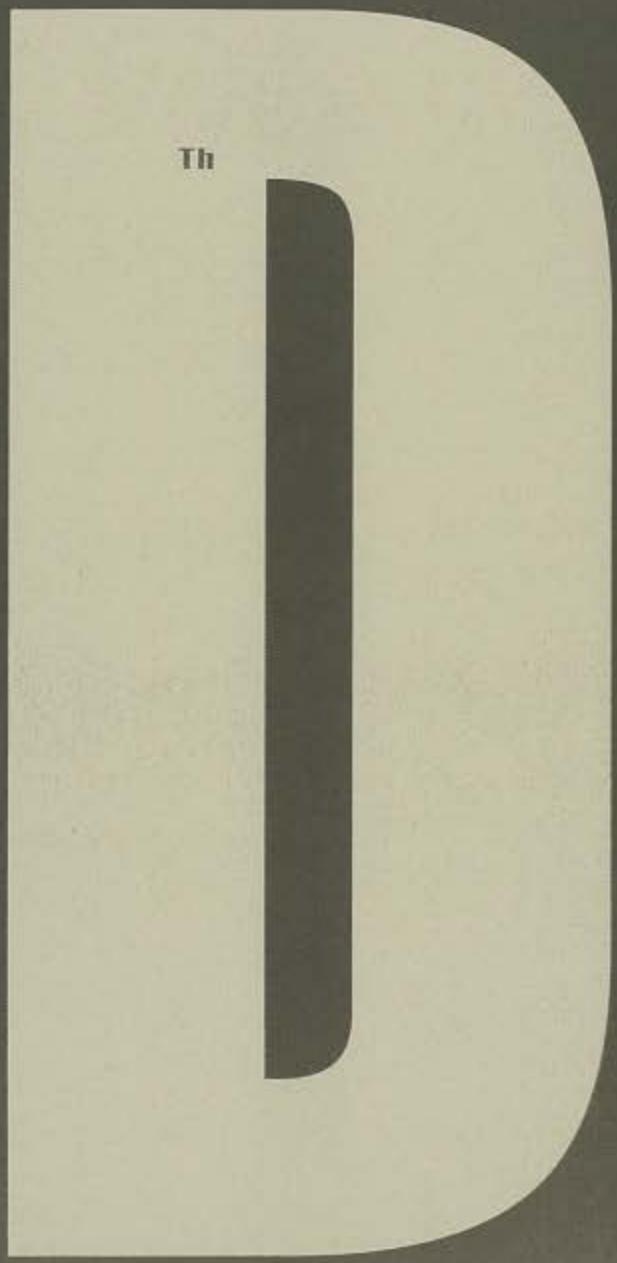
후면 마크

Research Institute
of
Architecture



건·축·디·자·인·캠·프

- 일 시 : 2004. 6. 28 ~ 7. 2 (6.25 예비모임)
 - 장 소 : 한남대학교 건축학부
 - 주 쇠 : (사)도시·건축연구원 설계학교
 - 후 원 : 대한건축사협회대전광역시건축사회
한국건축가협회대전광역시지회
대한건축학회대전충남지회
 - 도움을 주신분들 (한글순)
 (주) 계룡건설 (주) 세종엔지니어링
 (주) 금성백조 (주) 신화엔지니어링
 (주) 삼성건설 (주) 한림엔지니어링
 (주) LG건설 (주) 종합건축사사무소목성
 아림종건 (주) (주) 정원건축
 (주) 도원엔지니어링



Th

The Fisher House

1960 - 1967
LOUIS I. KAHN

Petite Maison d'Artistes

1926
LE CORBUSIER

Casa Kalman

1974 - 1976
LUIGI SNOZZI

Casa Bianchi

1972
MARIO BOTTA

Kidosaki House

1982 - 1985
TADAO ANDO

주 제 : 건축 읽기 (사고의 ICON화)

건 · 축 · 디 · 자 · 인 · 캠 · 프



■ 목 차

1. 발간사
2. 격려의 글, 초청의 글
3. 프로그램
4. 조 편성
5. 운영진
6. 운영회 활동
7. 대상건축물 자료
8. 각 조별 작품분석
 - 8-1. A팀 1조
 - 8-2. A팀 2조
 - 8-3. B팀 3조
 - 8-4. B팀 4조
 - 8-5. C팀 5조
 - 8-6. C팀 6조
 - 8-7. D팀 7조
 - 8-8. D팀 8조
 - 8-9. E팀 9조
 - 8-10. E팀 10조
9. 캠프활동
10. 단체사진

1

발간사

순수하게 이타적인 단체가 있다면, 그만큼 아름다운 인간관계는 훈치 않을 것입니다. 자기 존재의 확인은 될지언정 결코 자기 부각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자신을 내어주고 함께 고민하는 행위를 통한 깨달음에 부요해지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함으로써 화목해지는 단체가 있다면, 그 생명력은 길고 시간이 흐를수록 공고해질 것입니다.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는 지혜를 견지한다면, 각박한 현실에 큰 위로와 안식이 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설계학교는 바로 이런 모임일 것입니다. 열일곱 차례의 적지 않은 디자인 캠프를 수행해온 설계학교는 지역사회의 건축문화를 개선하고 활성화하려는 공동목표를 지녔고 봉사와 희생의 마음을 지닌 이들의 헌신을 통해 꾸려져 왔습니다. 올해도 역시 유난히 어려워진 건축업계의 불황에도 불구하고 튜터, 크리틱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도움과 참가를 원하는 인원이 대폭 늘어나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일부 조정해야 했던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진행되었습니다. 건축을 함께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행복한 기억은 과정에서 일어났던 작은 어려움들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올해는 그동안 디자인캠프의 단골주제였던 건축읽기를 다시 한 번 시행하였습니다. 여러 차례의 경험을 바탕으로 통상적인 진행에 사고의 아이콘(icon)화까지 추가하여 변화를 시도해보았습니다. 작품에 대한 이해 자체부터 어렵게 느끼는 학생들로 하여금 낱낱의 구체적 관념에서 공통성을 뽑은 종합적 관점인 개념을 추출하게 하고 그 메시지를 담은 그림문자로 번안해보는 작업이 쉽지 않았고 이를 지도하는 튜터 및 크리틱 선생님들께도 익숙하지 않은 접근법이었지만 짧은 시간동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물이 비록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 힘든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건축이 결코 형태 유희에 그치지 않음을, 독단적인 감각의 배설물이 아님을 체험하였을 것입니다. 건축이 '개성의 보편화'라는 지난한 지적(知的) 과정을 거치는 끊임없는 탐구의 결과물임을, 그것을 간단명료하게 표출할 수 있는 능력 또한 필요함을 깨닫는 캠프였으리라 믿습니다. 마음을 함께 한 결과물을 담은 이 작은 책자는 미래를 준비하며 더위와 졸음을 인내했던 학생들이 맷은 소중한 열매입니다. 그러한 열심과 성실이 좋은 건축가가 되는데 가장 필요한 자질임을 확인하며, 함께 고생해주신 튜터 및 크리틱 선생님들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사)도시·건축연구원 설계학교장

이관석

2 격려의 글, 초청의 글

□ 격려의 글

이 지역의 교수님, 건축사님, 건축3단체 회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해온 도시건축 연구원의 설계학교에서 금년도 제17차 디자인캠프를 배재대학교 건축학부에서 개최키로 하였습니다. 건축디자인캠프는 대전과 인근지역을 중심으로 각 대학의 건축 관련학과 설계교육의 질을 공동으로 증진시키고 산학협동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참여하는 학생들로 하여금 실기와 이론을 접목시키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대전과 인근지역의 건축문화를 이끌어갈 차세대 건축인을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건축계에 불어 닥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지극한 관심과 후원덕분에 설계학교장을 비롯한 설계학교 운영위원님들과 특히 뉴터 및 크리틱 선생님들이 후학들의 성장을 통한 디자인캠프의 발전을 위하여 현신적 노력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건축3단체 회원 여러분들께서는 금번 개최되는 디자인캠프에도 적극 참석해 주셔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사)도시·건축연구원 원장
이길주

□ 초청의 글

산업 현장에서, 학계에서 우리의 건축 발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소중한 분들을 17차 건축 디자인캠프에 초대합니다.

전국 최초로 건축3단체인 산학이 합심하여 출범시킨 디자인캠프가 올해로 어언 열일곱 번째를 맞이하였습니다. 금년의 캠프 주제는 그동안 수차례 채택되어 좋은 교육적 성과를 거둬왔던 건축읽기를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구축의 유익함을 잠시보류하고 훌륭한 건축 속에 내재된 자율적이자 관계적인 여러 의미들을 깊이 해독해 봄으로써 건축이 정신의 순수한 창조물이면서 구체적인 명제의 해결책임을 실감하여 내실 있는 건축을 준비하는 자세를 추스르고자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더하여 힘을 얻고자 하오니 이제껏 보내주신 사랑을 계속하여 보내주실 것을 간히 부탁드립니다.

금년은 배재대학교 건축학부에서 디자인캠프를 위해 장소와 모든 편의를 제공해주십니다. 새로 지은 좋은 환경을 베풀어주시는 배재대 건축학부 모든 교수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입교식과 공개 크리틱, 그리고 폐교식 시간에 건축인사 여러분을 모시고 격려말씀을 듣는 기회를 갖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부디 입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충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도시·건축연구원 설계학교장
이관식 드림

3

프로그램

날짜	시간	제 목	내 용	진 행	비 고
6/24 (금)	15:00-15:50	예비모임	팀 구성 발표 및 퓨터 작업실 소개 주제 소개 및 참고자료 배부	본 부	강 당
	16:00-	팀별모임	작업방향도론	퓨 터	작업실
6/25(토)		조별작업	기초 준비작업(모델1/30, 도면)	조 원	작업실
6/26(일)		조별작업	기초 준비작업(모델1/30, 도면)	조 원	작업실
6/27 (월)	09:30-10:30	입 교 식	입 교 식	본 부	강 당
	10:30-12:50	주제강의-1	건축 읽기 방법론/형태구성요소와 체계	조 재 억	강 당
	13:00-13:50	중 식			
	14:00-15:50	주제강의-2	건축표현 방법론	이 양 춘	강 당
	16:00-17:30	조별작업	체계별 질문 20가지 만들기	퓨 터	작업실
	17:30-18:30	석 식			
	18:30-19:50	조별작업	체계별 질문 20가지 질문 - i·con화	퓨 터	작업실
	20:00-	Critic-1	조별 크리틱	퓨 터	작업실
6/28 (화)	08:00-08:50	조 식			
	09:00-11:50	조별작업	질문에 답하기(답의 i·con화)	퓨 터	작업실
	12:00-12:50	중 식			
	13:00-16:50	조별작업	*	퓨 터	작업실
	17:00-17:50	석 식			
	18:00-20:50	조별작업	*	퓨 터	작업실
	21:00-	Critic-2	조별 크리틱	퓨 터	작업실
6/29 (수)	08:00-08:50	조 식			
	09:00-11:50	조별작업	종간 크리틱 준비	퓨 터	작업실
	12:00-12:50	중 식			
	13:00-16:50	Critic-3	종간 크리틱(팀별로 진행)	퓨터/크리틱	작업실
	17:00-17:50	석 식			
	18:00-19:50	조별작업	크리틱 내용 분석	퓨 터	작업실
	20:00-21:50	다과회		본 부	세미나실
	22:00-	조별작업	작업의 수정/보완	퓨 터	작업실
6/30 (목)	08:00-08:50	조 식			
	09:00-11:50	조별작업	전체 크리틱 준비	퓨 터	작업실
	12:00-12:50	중식			
	13:00-16:50	Critic-4	전체 크리틱	퓨터/크리틱	작업실
	17:00-17:50	석 식			
	18:00-18:50	조별작업	크리틱 내용 분석	퓨 터	작업실
	19:00-	조별작업	작업의 수정/보완/판넬작업	퓨 터	작업실
7/1 (금)	08:00-08:50	조 식			
	09:00-11:50	조별작업	마무리작업, 제출	퓨 터	작업실
	12:00-12:50	중 식			
	13:00-16:50	공개 Critic	발표 및 크리틱	본 부	강 당
	17:00	폐 교 식		학 교 장	강 당

4

조 편성

팀	조	튜터	학 생 편 성									크리틱	비고
			학 교	학년	성 명	성 별	학 교	학년	성 명	성 별			
A	1	김 시 원 총 칭 기	한남대학교	2	김명훈	남						오 덕 세	
			건양대학교	3	박예지	여							
			목원대학교	2	임동택	남							
			한밭대학교	3	박순필	여							
			대전대학교	3	도경주	여							
	2	신 수 범 정 미 속	한남대학교	3	신미경	여	배재대학교	4	이지혜	여		이 호 정	
			건양대학교	3	남형석	남	우송대학교	3	김성현	남			
			대전대학교	3	임소라	여							
			한밭대학교	3	윤아미	여							
			영동대학교	원1	한우진	남							
B	3	조 항 우 곽 운 정	한남대학교	3	권용택	남						길 성 호	
			건양대학교	3	이종용	남							
			한국전통문화학교	3	노경민	남							
			한밭대학교	3	총화영	여							
			배재대학교	2	이미라	여							
	4	서 명 규 윤 원	한남대학교	3	서명석	남						황 종 국	
			건양대학교	3	민슬기	여							
			목원대학교	2	백주형	남							
			대전대학교	3	황지연	여							
			한국전통문화학교	3	서효원	남							
C	5	이 정 근 우 재 식	한남대학교	3	이윤미	여	한남대학교	3	이기석	남		김 환 식	
			건양대학교	3	최용환	남	배재대학교	3	김봉희	여			
			목원대학교	3	윤주미	여							
			한밭대학교	3	윤효정	여							
			중부대학교	3	이재호	남							
	6	박 수 훈 박 인 규	한남대학교	3	안경현	남						이 승 용	
			건양대학교	3	김정혜	여							
			목원대학교	2	전용숙	남							
			우송대학교	3	조유순	여							
			대전대학교	3	안동근	남							
D	7	이 앙 훈 임 혜 숙	한남대학교	3	허정화	남	대전대학교	4	김사용	남		김 명 애	
			건양대학교	3	이지연	여	우송대학교	3	이수길	여			
			목원대학교	2	변희영	여	배재대학교	4	하관승	남			
			한밭대학교	3	김명록	여							
			중부대학교	2	최기혁	남							
	8	조 도 연 구 시 온	한남대학교	3	김광숙	여	배재대학교	2	오재석	남		송 복 섭	
			건양대학교	3	신혜진	여	우송대학교	3	고원석	남			
			목원대학교	3	백은미	여							
			공주대학교	4	박정규	남							
			대전대학교	3	박인순	여							
E	9	조 한 북 허 경 은	한남대학교	3	이명렬	남						조 재 역	
			건양대학교	3	강성규	남							
			목원대학교	3	이강희	여							
			한밭대학교	3	임은숙	여							
			대전대학교	4	남성호	남							
	10	구 승 민 유 병 구	대전대학교	2	나영환	남	배재대학교	3	김남숙	여		김 학 래	
			건양대학교	3	정광순	남	우송대학교	4	김태형	남			
			목원대학교	2	박지명	여							
			공주대학교	4	오지영	여							
			영동대학교	4	송선영	여							

5

운영진

1) 임원진

직위	성명/소속
설계학교장	이관석 (경희대학교 교수)
설계학교간사	이방섭 (건축사사무소 기가원 소장)

2) 운영위원

팀명	조명	튜터	크리틱
A팀	1조	김시원 : E.D.A 건축 홍창기 : 테라건축 소장	오덕세 : 한빛건축 소장 이호정 : 공주대학교 교수
	2조	신수범 : 기가원건축 소장 정미숙 : 이례건축 소장	
B팀	3조	조항우 : 기단건축 소장 곽윤정 : 충남대학교 박사과정	길성호 : 한밭대학교 교수 황종국 :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
	4조	서명규 : TAO건축 소장 윤 흰 : 우송공업대학교 교수	
C팀	5조	이정근 : UNI건축 소장 우재식 :	김환식 : 영동대학교 교수 이승용 : 목원대학교 교수
	6조	박수훈 : 한밭대학교 교수 박인규 : 무위건축 소장	
D팀	7조	이양훈 : 서이건축 소장 임혜숙 : 예우건축 소장	김영애 : 건양대학교 교수 송복섭 : 한밭대학교 교수
	8조	조도연 : D&B건축 소장	
E팀	9조	조한복 : TAO건축 소장 허경은 : 시공건축 소장	조재익 : 서이건축 소장 김학래 : 도시건축 소장
	10조	구승민 : 꾸시노건축 소장 유병구 : CNU건축 소장	

6

운영회 활동

1) 운영회 활동사항

날짜	내 용	비 고
2005. 4. 21	제1차 포럼 - 주제선정 및 크리틱 선생님 위촉	
2005. 5. 12	제2차 포럼 - 건축읽기 작품 5개 선정	
2005. 6. 4	제3차 포럼 -주제설명 및 작품읽기	
2005. 6. 17	제4차 포럼 - 건축읽기 스터디 최종발표(개념아이콘으로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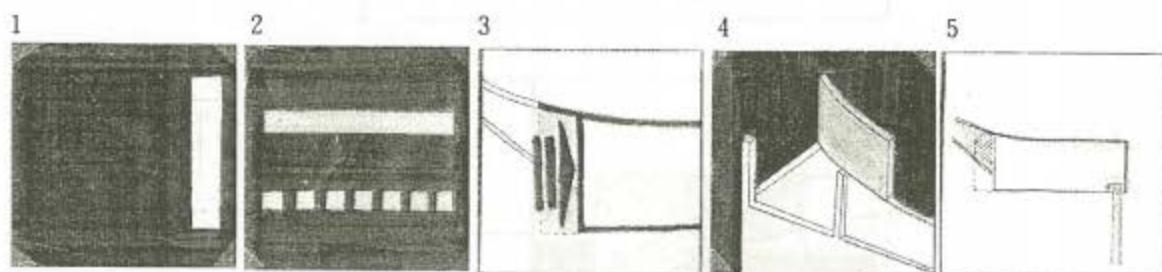
2) 포스터 · 기념티 · 프랭카드 디자인

- 이양훈 소장

3) 보고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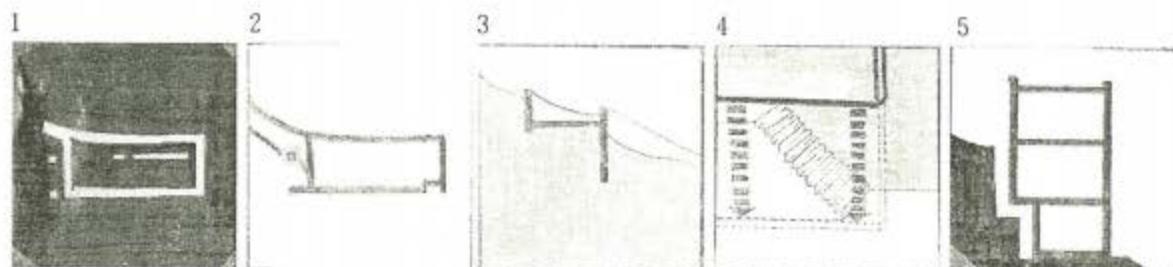
- 조한목 소장

- 수직적 입면 요소들의 위치가 면의 끝부분에 위치한 이유는?
- 주 Mass에서 수평적 성격을 띠는 입면 요소들의 의미는?
- 남측면이 내부로 들어와 있는 이유는?
- 파고라의 서측에서만 벽을 사용한 이유는?
- 주 Mass의 주변요소들이 관입의 형태로 맞물린 이유는?



4.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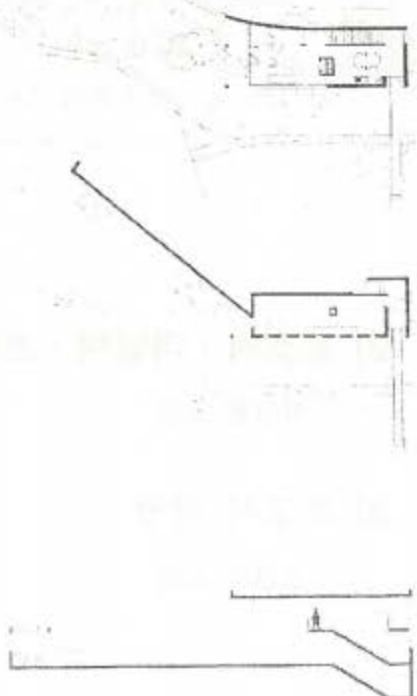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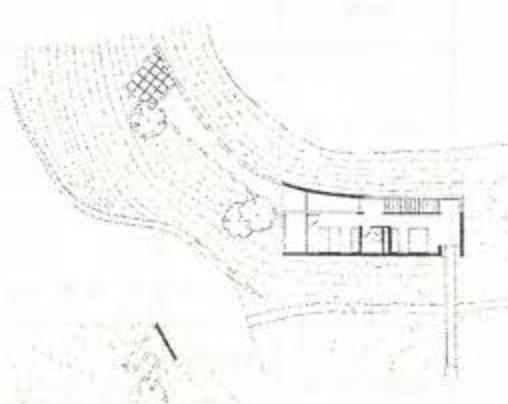
- 벽식 구조에서 평면에 점적인 요소가 남게 된 이유는?
- 2층에 기둥이 각 기둥인 이유는?
- 데크 와 파고라를 왜 벽으로 지지하고 있는가?
- 계단에서 난간을 사용하지 않고 벽을 사용한 이유는?
- 서측 내력벽이 췌이는 이유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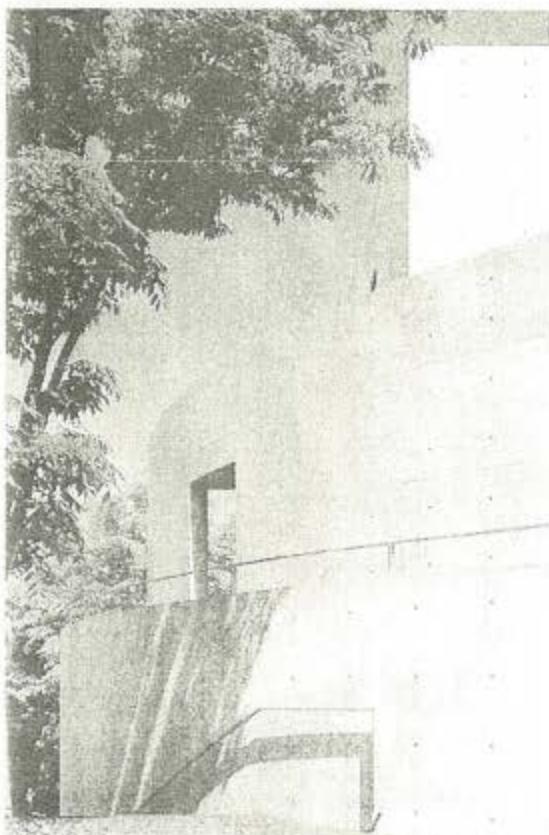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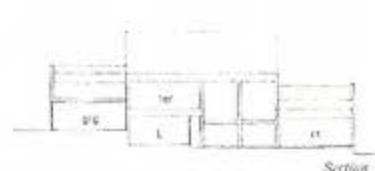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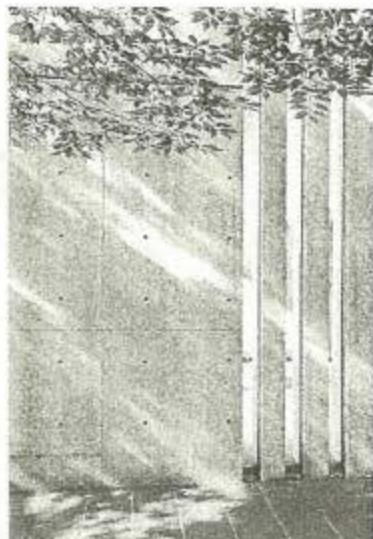
7

대상건축물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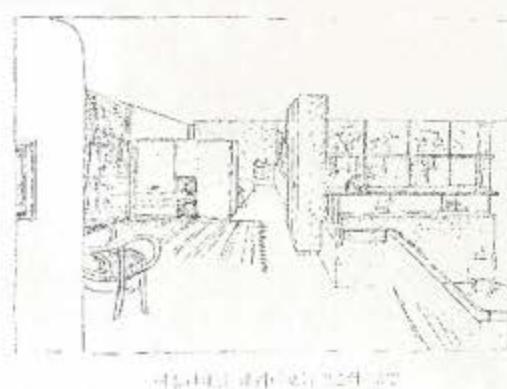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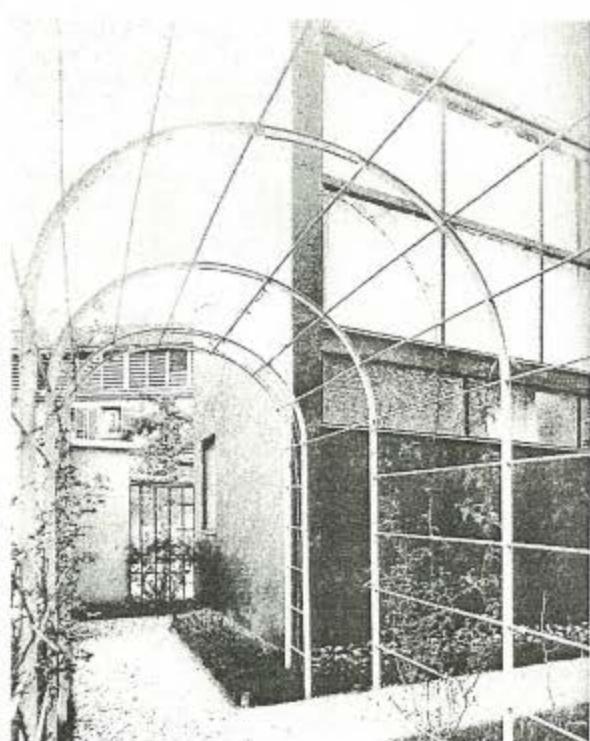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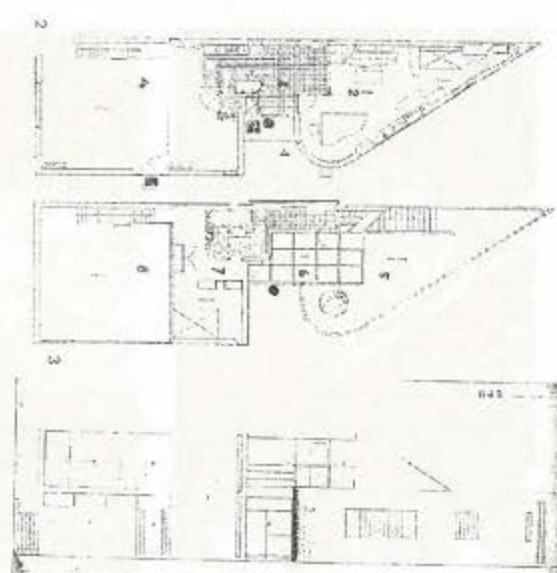
□ Casa Kalman (1974–1976) – LUIGI SNOZZ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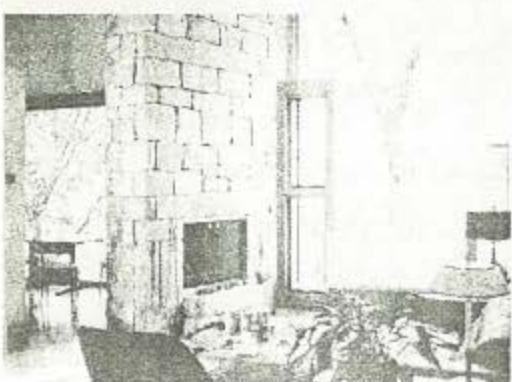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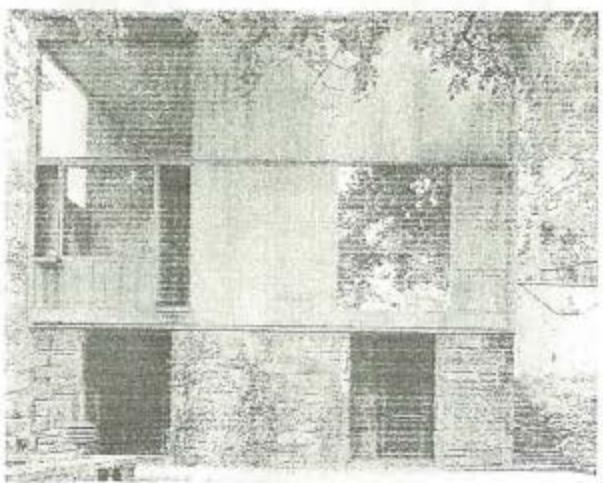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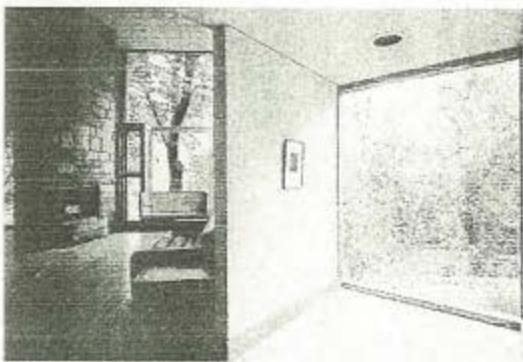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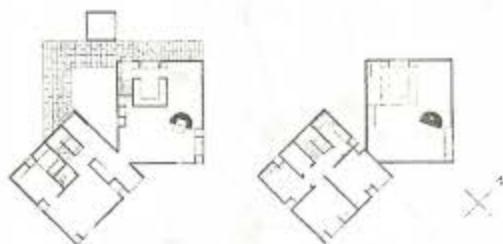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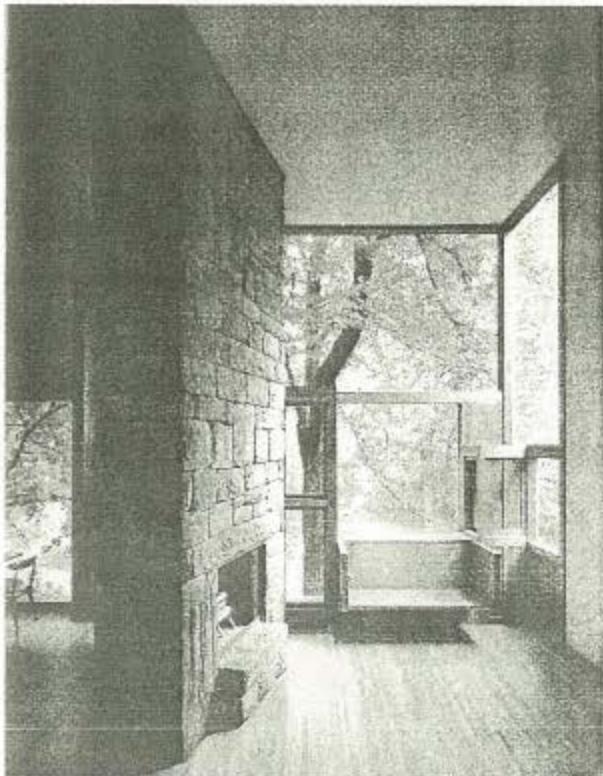
□ Kidosaki House (1982–1985) – TADAO AN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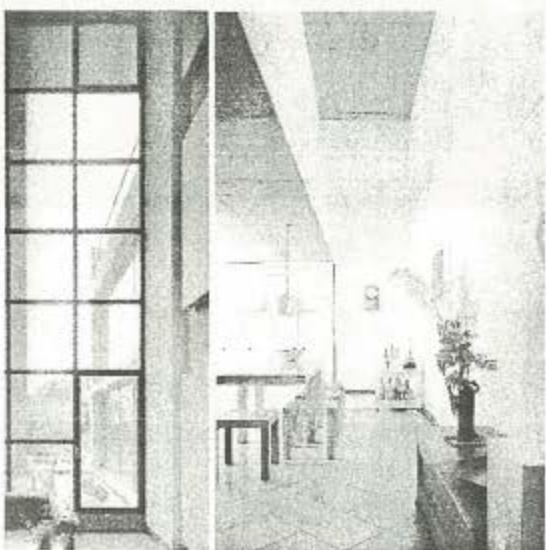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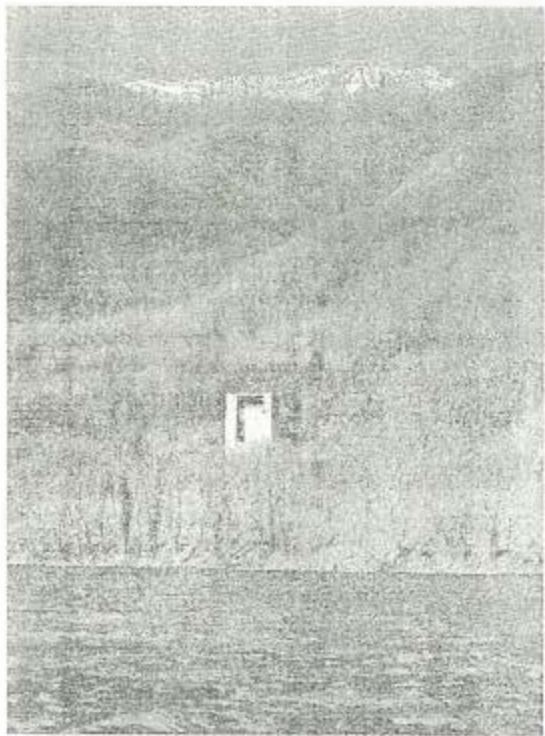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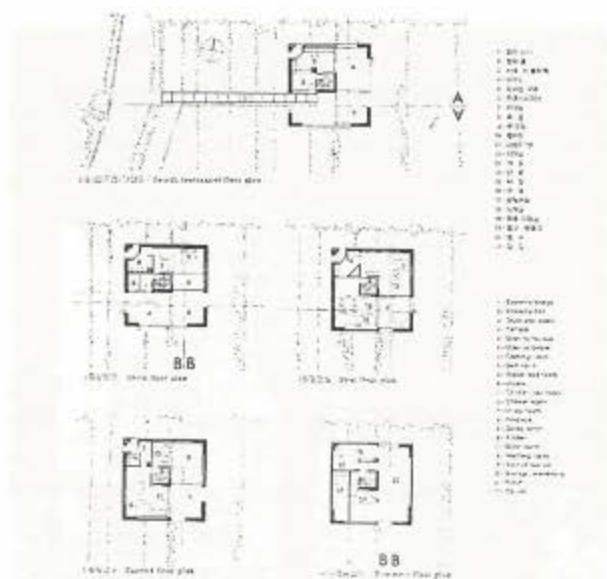
□ Petite Maison d'Artistes (1926) – LE CORBUSIER



□ The Fisher House (1960–1967) – LOUIS I. KAHN



Casa Bianchi (1972) – MARIO BOTTA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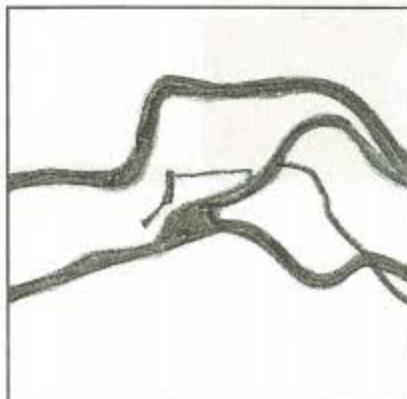
각 조별 작품분석 : A-1조

- 크리틱 : 오덕세, 이호정
- 뷰 터 : 김시원, 흥창기
- 팀 원 : 김명훈 (한남대) 도경주(대전대)
박예지 (건양대) 임용택 (목원대)
박순필 (한밭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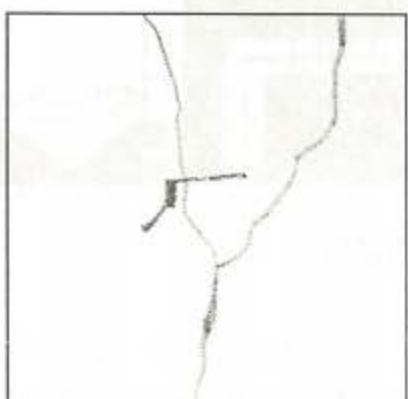


■ 대지 분석

Roa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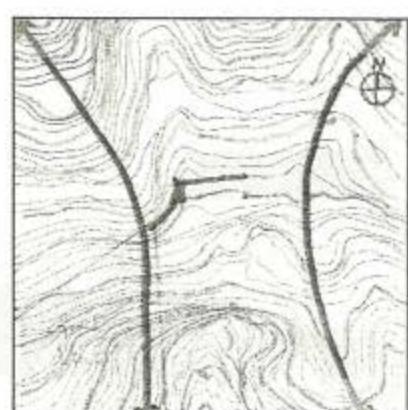
Stream



Build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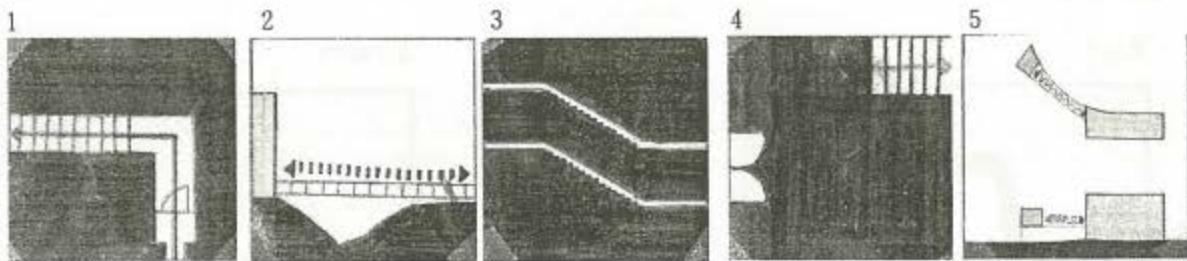
Axis & View



■ 묻고 답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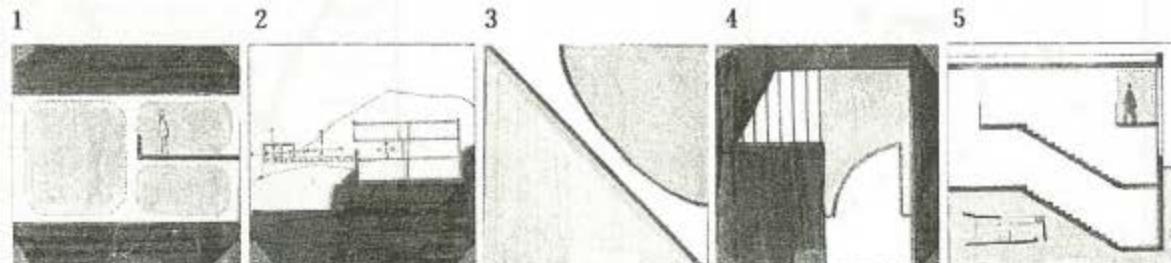
1. 동선

- 주 출입을 왜 긴 동선을 가진 브릿지를 사용하였는가?
- 같은 방향의 직선 계단을 같은 위치에 적층시킨 이유는?
- 2층에서 데크로 나가는 입구를 계단에서 어긋나게 위치시킨 이유는?
- 출입구에서 동선이 직각으로 꺾인 이유는?
- 파고라까지의 동선의 길이가 길어진 까닭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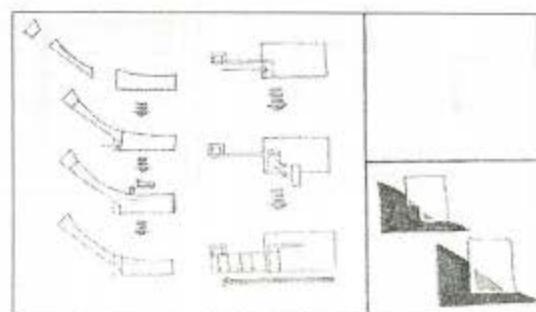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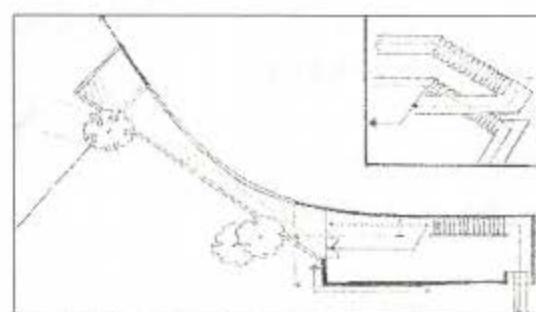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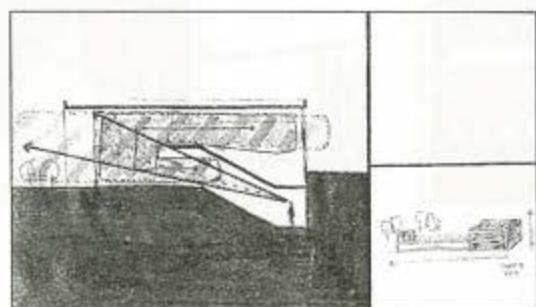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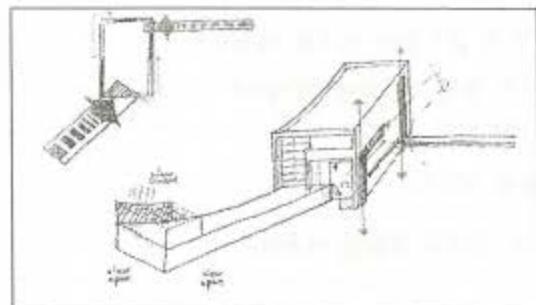


2.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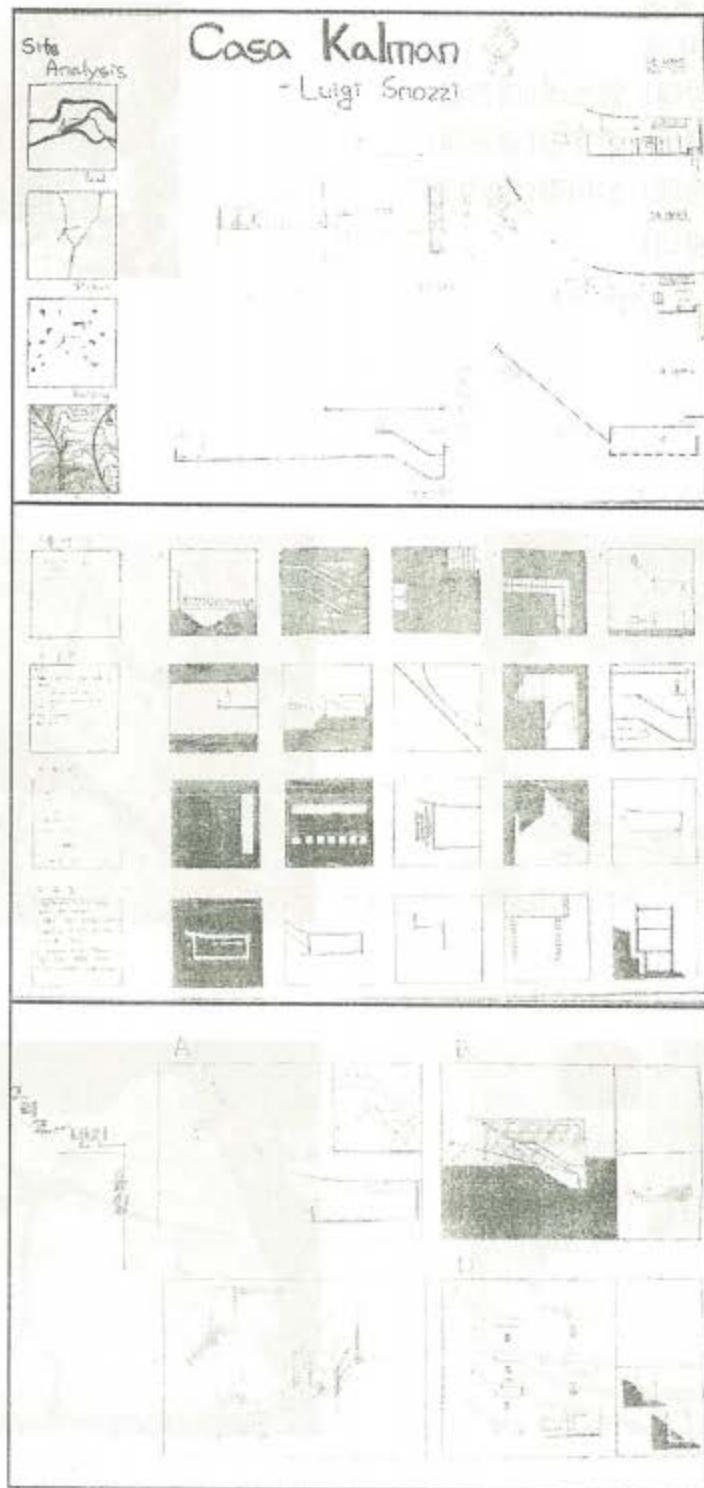
- 건물의 2.3층에 위치한 void한 수직공간이 갖는 역할은?
- 동선의 흐름에 따르는 공간의 변화는?
- 데크의 평면 형태가 북측은 곡선인 반면에 남측은 사선으로 이루어진 까닭은?
- 진입홀이 작고 폐쇄적인 이유는?
- 발코니의 공간적 의미는?



■ 분석과정



■ 최종판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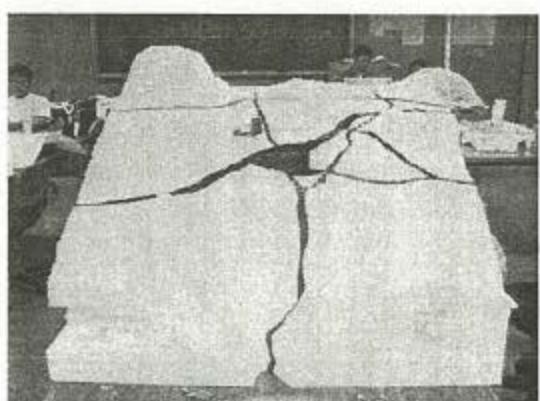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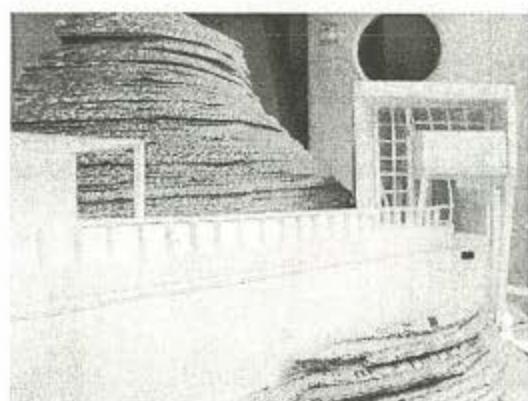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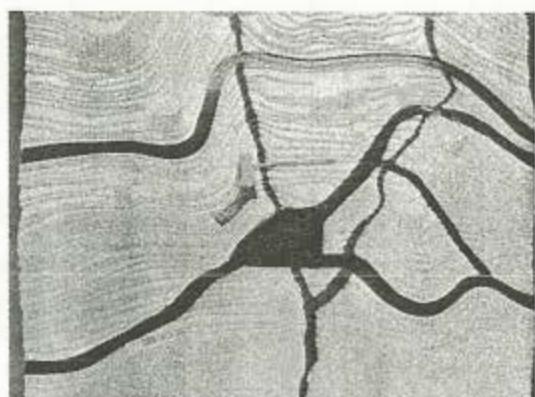
8-2

각 조별 작품분석 : A-2조

- 크리틱 : 오덕세, 이호정
- 뷰 터 : 신수범, 정미숙
- 팀 원 : 남형석(건양대) 임소라(대전대)
이지혜(배재대) 한우진(영동대)
김성현(우송대) 신미경(한남대)
윤아미(한밭대)



■ 모형 작업



■ 묻고 답하기

1. 주메스가 남북 방향인이유?

- 대지 등고선을 따라 배치하였다.
- 다양한 외부공간을 경험하기위해.

2. 주층이 2층임에도 불구하고 1층으로 진입한 이유?

- 건물 내부에서 대지의 경사를 느끼기 위해

3. 주메스와 파고라의 형태가 갖는 형태적 특징?

- 주메스로 파고라쪽의 외부공간이 관입한다.

- 주메스와 파고라 연결부의 양쪽벽면이 한쪽은 곡선벽이고 한쪽은 직선벽의 형태를 가지는데, 곡 선벽은 등고선의 방향과 일치하여 자연에 순응하는 성격을 가지며, 직선벽은 파고라까지의 동 선 방향을 지시한다.

- 주메스는 남쪽 외부공간으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파고라는 남서쪽 외부공간으로의 방향성을 가진다.

4. 브릿지, 계단, 파고라가 가지는 동선의 연계성?

- 여러방향의 동선을 연결하여 다양한 외부공간을 경험할 수 있다.
- 동선의 길이를 가장 길게하여 파고라에서의 뷰를 더욱 극적이게 경험할 수 있다.

5. 배스의 길이보다 브릿지의 길이가 더 긴 이유?

- 내부동선에 비해 긴 수평적인 파고라를 경험하고, 수직적인 계단을 경험하며, 이 수직적인 계단 을지나 다시 수평적인 파고라까지의 동선을 경험함으로써 건물 내부서 대지의 경사를 느낄 수 있다.

6. 계단이 서쪽끝에 면해서 일방향으로 올라가는 이유?

- 평면적인 브릿지의 길이감 부각 시키기 위해서

7. 계단실에서 파고라 출입구 까지의 동선이 동선커와 일치하지 않는 이유?

- 파고라로 가는 직선벽의 방향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8. 진입로의 방향이 주메스와 직교하며, 주메스의 북쪽끝에 위치하는 이유?

- 가파른 건물의 지형을 느끼지 않고, 건물의 지형을 내부에서 느낄 수 있다.
- 북쪽끝에 위치함으로서 공간의 변화성을 최대한 길게 유도 할 수 있다.

9. 1층 공간의 성격?

- 1층은 덕트 스페이스로 인해 공간이 나누어 질 수 도 있으나 그 공간의 성격은 매우 약하다. 결국 이 공간은 하나의 공간으로 알 수 있다.
- 동쪽면의 7개의 점적인 수평창과 남쪽면의 창이 연속되어지므로서 방향성을 느낄 수 있다.

10. 2층 벽난로가 갖는 공간적 의미?

- 벽난로의 기능으로 인해 공간은 두개로 나누어 진다.

- 벽난로의 위치가 중앙에 위치함으로 통로의 기능을 가져다 준다. 이것은 이 공간은 완전 밀폐되어 지지 않고 개방성인 성격을 띠고 있다.

11. 3층 화장실이 갖는 공간적 의미?

- 2층과 같이 2개의 공간이 서로 개방성을 가지고는 있으나 화장실의 볼륨으로 인해 2층보다, 개방성이 떨어진다.

12. 남쪽 동선커의 2,3층 공간이 수직적으로 오픈된 이유?

- 오픈된 공간을 통해 외부의 느낌을 내부로 가져다 준다. 이는 파고라가 관입되는 형태를 보여주기도 한다.

- 오픈된 공간을 통해 곡벽이 방향성을 제시 한다.

13. 남쪽의 보이드된 공간이 갖는 의미?

- 외부의 느낌을 내부로 가져다 준다.

14. 모든 개구부의 위치가 슬라브 밑에 면한 이유?

- 창의 기능적인 역할이 있고 더 큰 효과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 내부의 공간에서 연장성을 느낄 수 있다.

15. 주메스와 파고라의 연결부가 곡선쪽은 솔리드 직선쪽은 보이드한 이유?

- 곡선벽은 옹벽을 역할을 하고, 직선벽 또한 구조벽의 역할을 하나 옹벽과는 다른 구조성격을 띠므로 두 벽의 다른 성격을 보여준다.

- 곡선벽은 자연의 지형에 따라 순응하는 성격을 가지며, 직선벽은 동선의 방향을 제시한다.

16. 출입구 수직창 입면과 남측 보이드된 입면이 샛백된 이유?

- 주 메스에 대한 관입을 나타낸다.(외부공간의 느낌을 내부로 가져다 준다. 이는 외부의 동선을 내부의 동선으로 가져다 주기도 한다.)

17. 1층 동쪽 입면에서 정방형의 창이 같은 높이, 같은 크기로 연속된 이유?

- 동측면 창은 남측면의 창과 이어지고 이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 동쪽면의 7개의 점적인 수평창과 남쪽면의 창이 연속되어지므로 방향성을 느낄 수 있다.

18. 서측면의 곡선벽이 내부로 들어온 이유?

- 건물이 접하고 있는 대지의 지형을 내부에서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

19. 동측면의 1,2층 공간의 비움이 갖는 의미?

- 파고라가 주메스에 관입됨을 보여준다.

20. 동측 수평창과 연결된 남측 수직창의 의미와 서측 수평띠창과 연결된 북측 수직창이 지닌 의미?

- 내부공간에서 외부공간을 받아들이는 커를 형성하는데, 이커는 남쪽과 북쪽 끝에 형성된다. 동측창과 연결되는 남측

21. 1,2,3층 계단실에 면하는 내벽의 두께가 외벽의 두께와 다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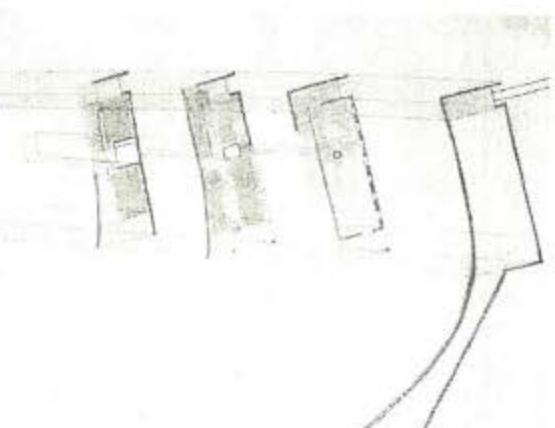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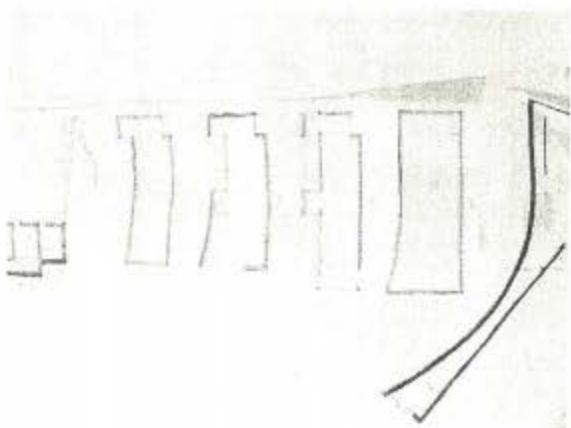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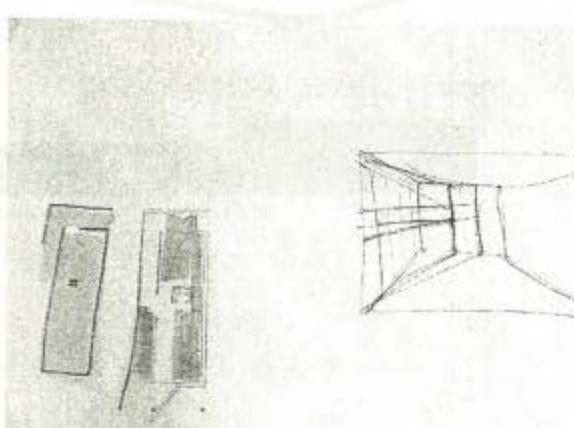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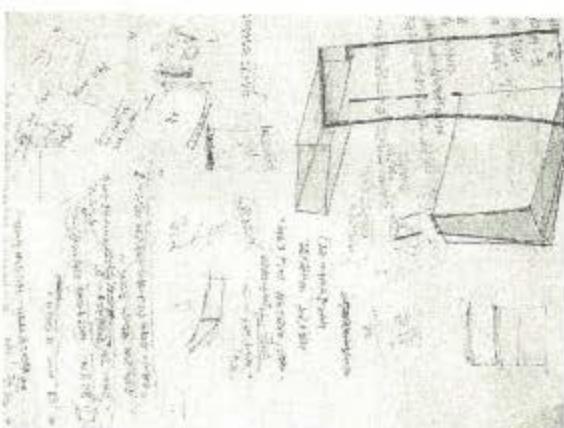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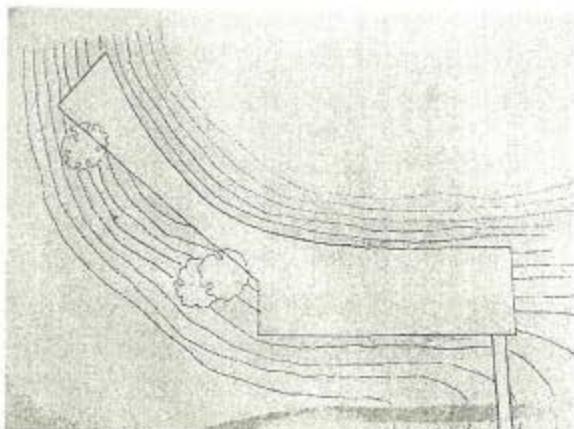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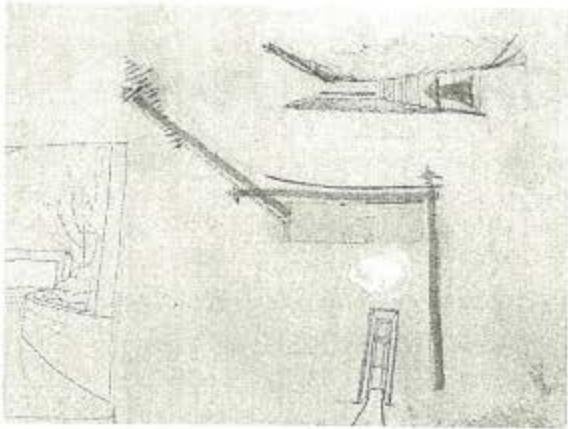
- 외벽은 토암을 받는 옹벽의 역할을 하며, 내벽은 3층 슬라브를 받치는 구조벽의 역할을 하므로 이 벽의 성격이 다름을 두께로 나타내고 있다.

22. 남쪽 입면의 2개의 점구조와 계단실 끝에 장방형 구조체가 갖는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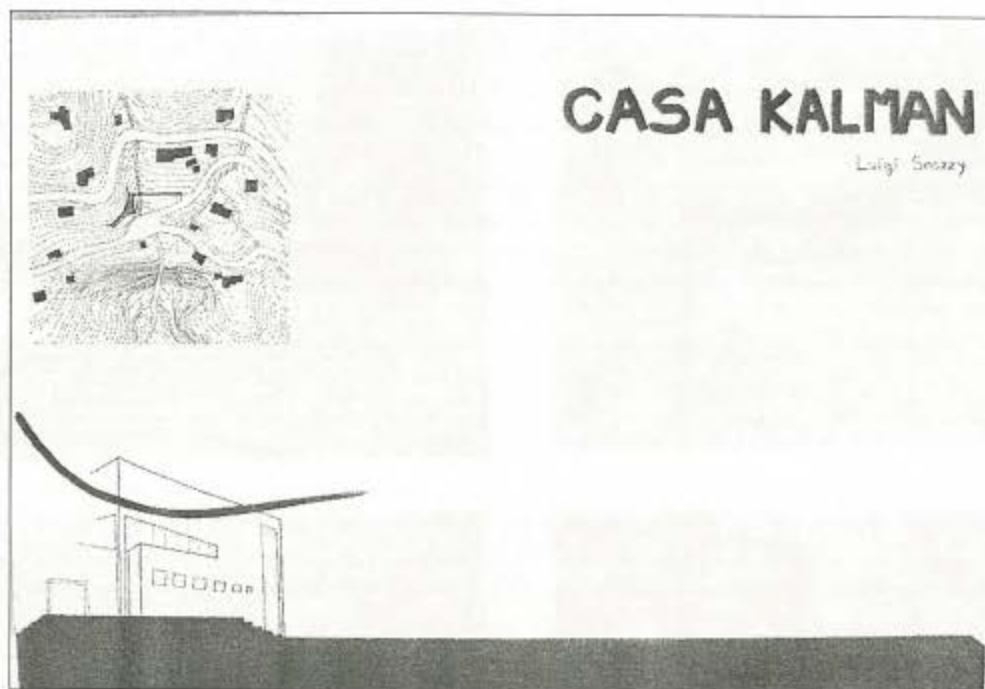
- 계단실 내벽과 장방형 구조체와 연결선상에 있는 점구조는 서로 연결되므로 남쪽방향으로 방향성을 가진다.

■ 분석과정

분석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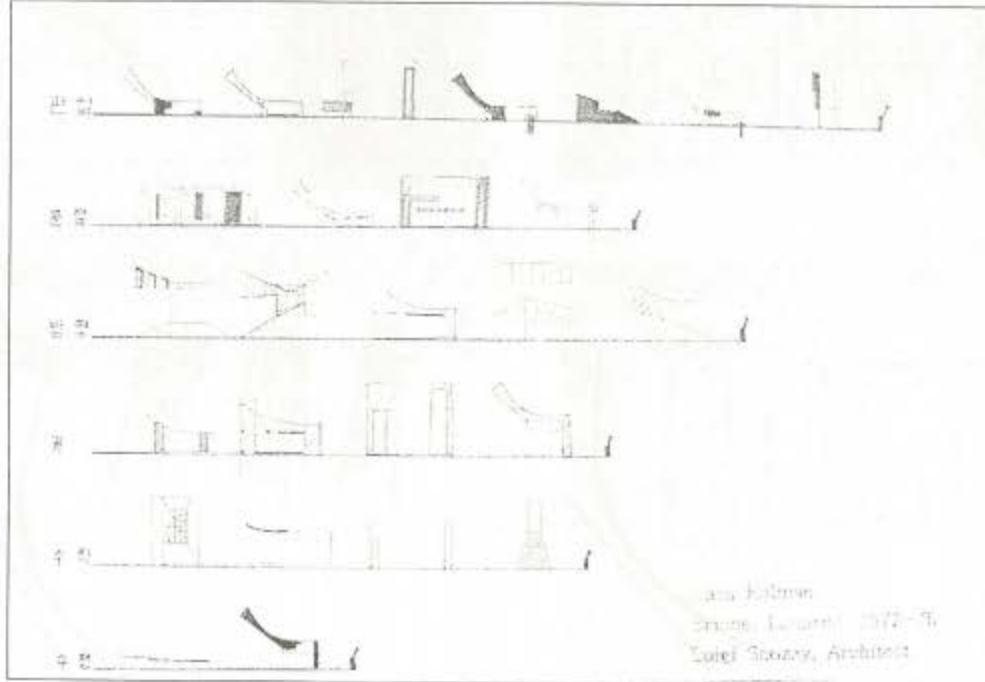


■ 최종판넬



CASA KALMAN

Luigi Saccà



Casa Kalman
Via del Lavoro 10/12 - 5
Luigi Saccà, Archit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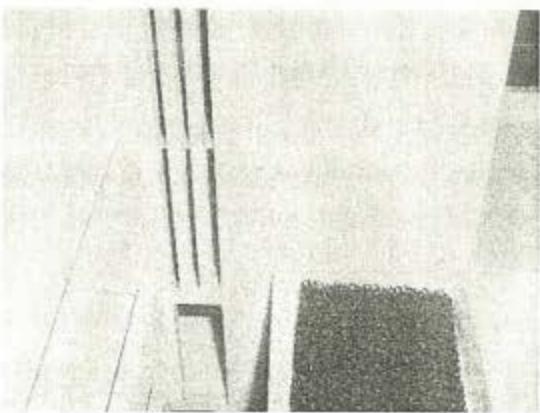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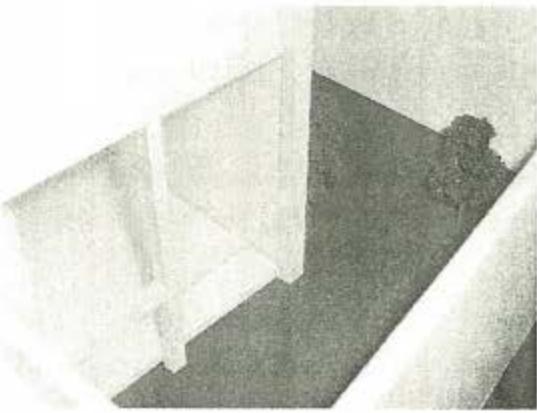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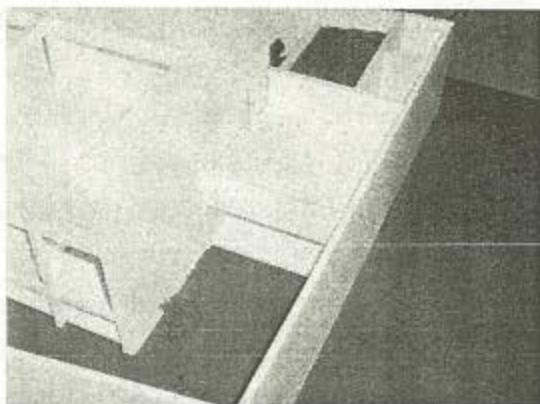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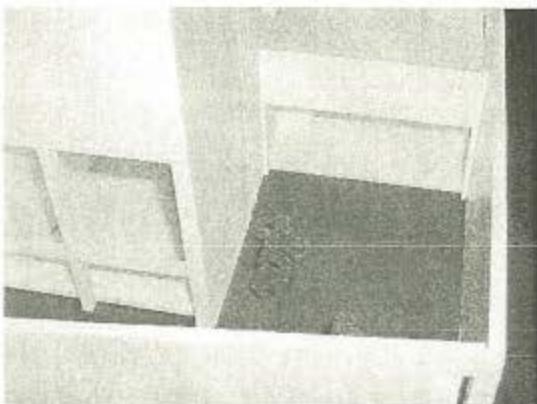
8-3

각 조별 작품분석 : B-3조

- 크리틱 : 길성호, 황종국
- 퓨 터 : 조항우, 곽윤정
- 팀 원 : 권옹택(한남대) 이종용(건양대)
이미라(배재대) 홍화영(한밭대)
노경민(한국전통문화학교)



■ 모형작업



■ 묻고 답하기

1. 대지의 경사진 대지인데 왜 진입부를 낮게 했는가?

- 주변 건물과의 관계성(skyline)을 주변의 주택군들 skyline과 조화시키고 진입을 낮춤으로써 주변 주택군들을 약간의 필터링

2. 12x12 입방체가 24x24 모듈의 왜 가운데에 위치하는가?

- 외곽의 12개는 주변과 관계를 맺고 중심부의 12x12m는 가장 고유성을 나타내는 공간 ※ 중심 <--> 주변

3. 진입부에서 세 개의 다른 벽들이 존재하는데 4m의 곡벽, 6.9m의 곡벽과 9.3m의 벽이 나타내는 의미는?

- 4.0m의 곡벽 : 가로면과 대응하는 벽 6.9m의 곡벽 : 장소를 규정하는 벽
9.3m 입방체를 이루는 벽 : 하늘과 만나는 방식을 만드는 벽

4. 2F --> 3F 계단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왜 외부에 위치하는가?

- 1층은 각각의 세대, 2층은 공적 공간, 3층은 사적 공간(부부만의 공간)으로 실의 성격이 상이하게 다르다.
계단이 내부에 존재하게 된다면 2층과 3층 사이에 연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간의 성격을 확실히 드러내 주기 위해 계단이 외부로 위치한다.

5. Entry Court와 Court를 대각선으로 배치한 이유는?

- Entry court는 공적인 부분이며 court는 가장 사적인 부분으로서 다른 성격을 가진 두 부분이 인접해 있거나 맞물려 있거나 한다면 공간의 성격이 애매함을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성격을 확실히 나타내 줄 수 있는 대각선 배치를 한 것이다.

6. 1층 동측면 court 부분으로 열린 역십자형창에서 가로방향으로 위치한 프레임 벽의 위치는 왜 그곳일까?

- 역십자형 창을 제외한 1층 동측면 court 부분을 바라보는 실들은 모두 court 부분의 나무를 바라보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면 역십자형의 창은 가로방향(1.6m) 높이의 벽을 통해서 전면부 마당이 아닌 하늘과 만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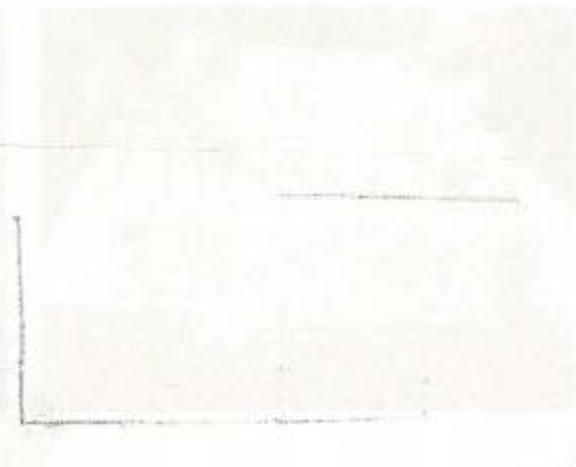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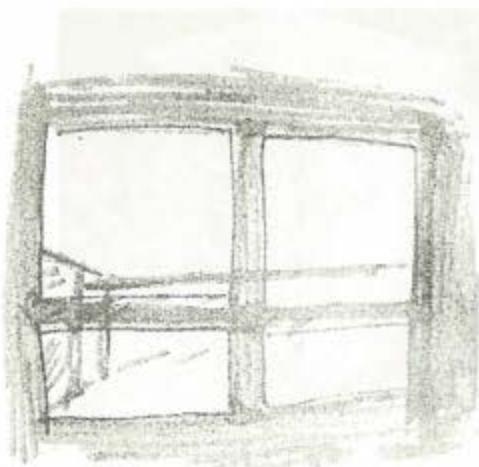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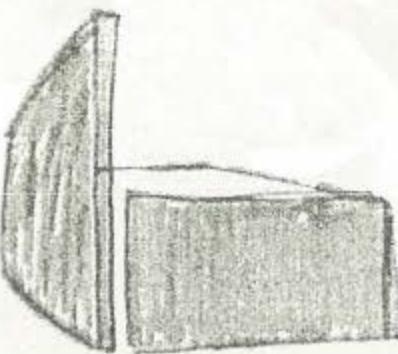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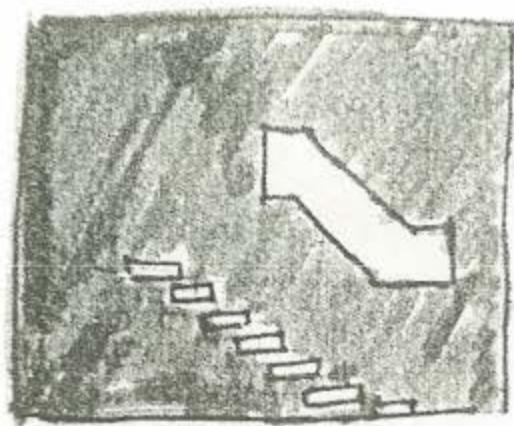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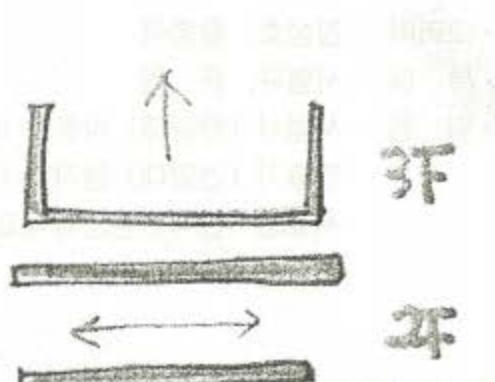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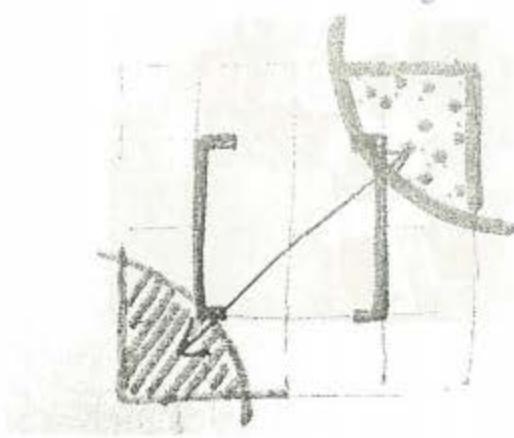
7. 1층 court에서 벽이 나와 있는 이유는?

- 1층의 court 부분에는 3개의 거실이 면해있어 벽이 없다면 서로의 privacy를 침해하게 된다.

8. 점구조(라멘구조) 대신 벽식 구조를 택하게 된 이유는?

- 벽식 구조는 구조체로서의 역할 및 입면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다.
다시 말해, 키도사키에서 벽이라는 조건을 통해 공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벽의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는 벽식을 채택.

■ 분석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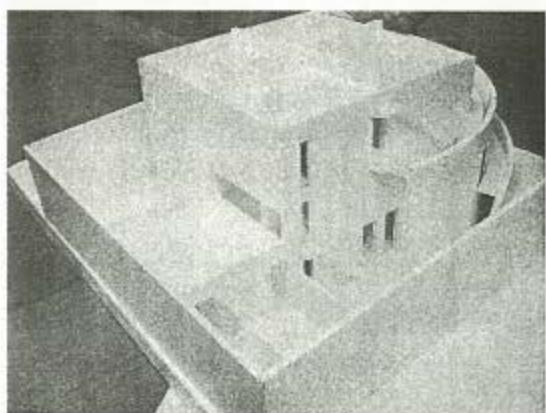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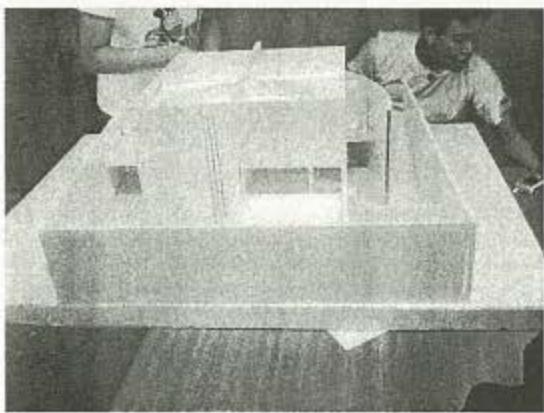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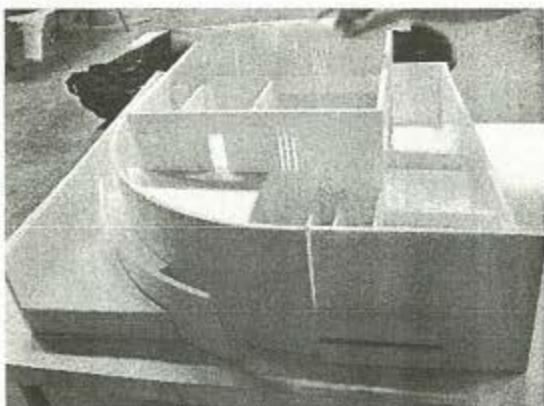
8-4

각 조별 작품분석 : B-4조

- 크리틱 : 길성호, 황종국
- 뷰 터 : 서명규, 윤 훈
- 팀 원 : 서범석 (한남대) 박주형 (목원대)
민슬기 (건양대) 황지연 (대전대)
서효원 (한국전통문화학교)



■ 모형작업



■ 묻고 답하기

1. 구조

- 점구조 대신 벽식구조를 택한 이유는?
- 이중피막구조를 택한 이유는?

2. 공간

- 공간의 구성방향이 층별로 다르게 된 이유는?
- 1층과 2/3층 공간의 외부로의 대응방식이 다른 이유는?
- 1층 사적공간(침실)이 전정과만 관계된 이유는?
- 전정과 후정포함 1/2층간 Void된 공간의 의미는?
- 2층 거실상부 천창의 위치는 왜 그곳이며, 의미는 무엇인가?
- 천정과 벽 마감에 있어 1층과 2/3층이 다른 이유는?

3. 동선

- 1층 바닥 진입레벨이 2.3M 내려가 형성된 이유는?
- 1층 주진입구가 크게 개방된 이유 및 폭 설정기준은 무엇이며, 2층 주진입구가 협소한 이유는?
- 2/3층간 계단이 입방체 외부에 위치한 이유는?
- 3층 출입부분이 폐쇄적으로 형성된 이유는?

4. 피막

- 전체적인 외부피막이 폐쇄성을 띤 이유는?
- 1층 우측세대 침실과 전정간 창이 낮게 조정된 의미는?
- 12M입방체 동측면 좁고 긴 수직창의 위치는 왜 그곳이며 의미는?
- 1층 좌측세대 침실 전정으로의 창문이 출입이 어려운데 아래까지 크게 개방한 이유는?
- 남측 외부 벽체의 좁고 긴 개구부(좌/우·측 2개소) 위치 및 의미는?

5. 형태

- 12M 입방체의 위치는 왜 그곳이며 크기 결정 기준은?
- 사면에 형성된 외부벽체의 높이는 왜 그 높이이며 의미는?
- 서측 외부 곡선 벽체의 높이가 다른 이유와 분리된 의미는?
- 주진입구 곡선 벽체의 반지름은 왜 그 크기이며 그 위치에서 끝난 이유는?
- 전정부분에 형성된 2개의 계단 모양 및 구조가 다른 이유는?
- 1층 후정의 2세대간 돌출된 구분벽체가 분리된 이유와 길이 결정요인은?